

2023 제26권

ISSN : 2635_5604

HANSEI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학생생활연구



한 세 대 학 교 상 담 센 터

HANSEI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학생생활연구

제 26권

발 행 인 정 문 경

편 집 인 오 영 금

발 행 처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발 행 일 2023년 12월 27일

우 15852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ISSN : 2635 - 5604

학생생활연구는 한세대학교 상담센터의 기관지로서 연 1회 간행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 상담분야의 연구논문과 신입생 실태자료를 게재합니다. 학생생활연구는 무료로 다운로드되며, 구독관계는 상담센터 T(031-450-5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학술지는 21권부터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학생생활연구」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학생생활연구

제 26 권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인 사 말

우리 한세대학교는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서 신앙과 학문을 연마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와 인류문화창달에 기여할 새 인간상을 구현하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에 입각하여 우리 학교는 창의성, 나눔과 배려, 비판 분석적 사고, 소통, 문제해결의 능력을 갖춘 인재상을 키워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을 키워내는데 발맞춰 학생상담센터는 한세대학교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 한세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청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업과 대인관계,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여 많은 대학생은 우울과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심한 경우 자해·자살의 위험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은 크게 변하지 않고 제 자리를 맴돌고 있어 대학생들의 정신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한세대학교 학생들이 심리적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여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통하여 한세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학생생활연구지는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심리상담에 도움이 되는 학술논문과 한세인의 신입생 실태조사와 상담소의 이용실태를 정리하여 엮었습니다. 본 학술 연구지가 해가 거듭될수록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문들과 조사 연구를 수록하여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더욱 알차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세인들의 학생생활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3. 12.

한세대학교 상담센터장

정 문 경

목 차

제1장. 연구논문

아동기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중년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식의 탐구	
임 선 정· 정 문 경.....	8
대학생 자살생각 연구 동향 분석	
김 은 영· 정 문 경.....	21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대상관계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이 진 옥.....	36

제2장.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_ 오 영 금

I. 서론	51
II. 연구방법	52
1. 조사대상	52
2. 조사도구 및 내용	52
3. 조사기간 및 절차	53
4. 자료 분석 방법	53
III. 연구결과	54
1. 개인별 특성	54
2. 가정환경 특성	64
3. 대학 생활 및 학업 관련	70

4. 진로 및 직업 관련	96
5. 정신건강 관련	106
6. 학생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 관련	140
IV. 결론	158

<부 록>

2023학년도 신입생 설문 조사서	163
2022학년도 학생상담센터 활동 보고	167
2023학년도 학생상담센터 운영 현황	172
학생생활연구 논문 투고 규정	174

표 목차

<표 1> 성별 분포	55
<표 2> 연령 분포	57
<표 3> 출신고교 소재지	59
<표 4>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	61
<표 5> 본인의 종교	63
<표 6> 가정 경제 수준	65
<표 7> 등록금 부담 예정자	67
<표 8> 대학입학 후 주거 형태	69
<표 9> 대학진학의 목적	71
<표 10> 본교 선택의 이유	73
<표 11>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	75
<표 12> 본교 입학의 만족도	77
<표 13> 본교 입학의 불만족한 이유	79
<표 14> 불만족 시 앞으로 계획	81
<표 15> 전공학부 교육과정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정도	83
<표 16> 전공학부 선택 시 결정적인 요인	85
<표 17> 전공학부의 지원 결정 시기	87
<표 18> 전공학부 선택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 원하는 지원	89
<표 19> 다전공 이수 용의	91
<표 20> 교수님에게 기대하는 것	93
<표 21> 대학에서 기대하는 경험	95
<표 22> 대학 졸업 후 기대하는 경험	97
<표 23> 직업 선택 시 우선 고려하는 것	99
<표 24>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 가정 원하는 것	101
<표 25>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	103
<표 26>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105
<표 27> 외로움	107
<표 28> 불안	109
<표 29> 분노	111

<표 30> 우울과 무기력	113
<표 31> 자해 충동	115
<표 32> 자해 충동의 원인	117
<표 33> 자살 충동	119
<표 34> 자살 생각을 하는 이유	121
<표 35> 자살 충동 시 대처방식	123
<표 36> 자살 충동 시 진행 정도	125
<표 37> 자신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과도한 정도	127
<표 38> 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129
<표 39> 스마트폰 주된 용도	131
<표 40> 규칙적인 운동 여부	133
<표 41> 현재 삶의 만족도	135
<표 42> 삶에 대한 기대치	137
<표 43> 행복한 삶의 기준	139
<표 44>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141
<표 45> 학생상담센터 이용 여부	143
<표 46> 학생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서비스	145
<표 47> 상담받고 싶은 문제	147
<표 48>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인식 정도	149
<표 49> 성추행·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인식 정도	151
<표 50> 성추행·성희롱·성폭력의 경험 정도	153
<표 51> 성추행·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대처 방법	155
<표 52> 성교육 시 가장 알고 싶은 것	157

아동기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중년여성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임선정*

정문경†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한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 이야기, 학대 경험 이후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의 이야기, 학대 경험에서 살아낸 이야기를 탐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형성하는지,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이어지고 구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아동기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49세~50세의 결혼 유지 중이거나 결혼 경험이 있는 중년여성 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를 적용하여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인 시간성, 사회성, 장소 안에서 진행하였다. 탐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에게 발견한 의미는 ‘무너져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가정’, ‘애증의 부모’, ‘나 없는 삶’, ‘불행은 불행으로 되풀이’, 학대의 재현에서 건디고 버티며 살아내기’로 해석되었다. 아동기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중년여성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발견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중년여성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깊게 이해하게 됨에 따라 함께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연구가 되었다. 둘째, 학대의 경험 이야기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중년여성이 살아온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셋째, 학대 경험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고 객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기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중년여성들의 삶에서, 학대 재현의 고통을 건디고 살아낼 수 있도록 상담 장면에서 관점의 변화와 재해석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나아가 아동기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중년여성들이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는 중년기의 여성에게 정체성의 통합과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주요어 : 아동 학대, 부모의 학대, 중년여성, 삶, 내러티브 탐구

* 주 저 자 : 임선정,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E-mail : yim122900@naver.com

† 교신저자 : 정문경, 한세대학교 대학원 조교수. E-mail : jmoonk509@hansei.ac.kr

I. 서 론

실존의 중요한 과제들은 한 개인 안에서 개별적으로 직면 되기보다 커다란 두 가지 측면에 의해 직면 된다(Corey, 2004). 두 가지 측면이란 출생 후 부모와의 관계와 결혼 후 배우자와의 관계로, 이러한 관계에서의 방식으로 상호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호성장을 촉진하기도 한다(진명자, 2005). 위에 언급한 두 개의 측면은 개인의 관계성을 예측하게 하고, 개인의 역사를 창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아동기에 부모와 자녀 관계의 가장 근본은 애정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안정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Brooks & Duncan, 1997). 그러나 아동이 가장 친근하고 신뢰해야 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대일 경우 기본적인 신뢰감 형성이 어려워지며 추후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아동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Allen, 2005).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은 신체적 손상은 물론이고 자아기능의 손실, 중추신경계 장애, 급성 불안 반응, 자학적·과격적 행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김락경, 2017), 우울, 불안, 공포, 무기력, 낮은 자존감, 학교 규범 준수, 또래 관계 형성 등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chneider et al., 2005). 또한,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으며, 학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용하던 방어기제가 왜곡된 성격을 형성하게 되고, 치유되지 못한 학대는 발달 트라우마와 두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성인이 되어 결혼한 새로운 가정 안에서 재현되어 가족관계 안에서 부정적으로 작동한다.

우리나라는 아동 학대를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하고자 아동 학대의 예방과 필요성에 따라 아동복지법을 2014년 1월에 개정하였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 학대의 정의

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 학대’의 주요 증상이 타 학대와 다르게 나타나기에 제외하였고, 부모 간의 폭력 노출과 학대 간의 상관이 높다는 연구 결과(Caetano & Nelson, 2003)를 바탕으로 부부폭력 노출을 학대의 종류에 포함하였다.

아동 학대는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전 성장 과정에 걸쳐 심리적, 사회적 발달 및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Cicchetti & Carlson, 1989),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자녀가 말대꾸하는 등의 상황들이,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형성되어 무시당했다는 왜곡된 생각이 타인과의 갈등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며(최우리, 2016), 결혼 이후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연결되어 부부갈등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며(Brown, 2009), 부모의 갈등과 불행한 결혼생활 목적은 성장 후 부모 역할에 전이되어 수행되며(Kerig, Cowan & Cowan 1993), 성인기의 경험 및 부부관계를 예견해주고 부모 역할에 있어서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성장하며 발달과정을 경험하는데, Erikson(1963)은 중년기의 발달과제를 ‘생산성 대 침체성’이라고 하였는데, 생산성은 다음 세대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가치를 두는 신념으로 자존감 및 이상적인 자기실현과 관련이 있으며, 생산성을 성취하지 못할 때 침체감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삶의 공허, 무의미, 절망과 무기력 등과 같은 정서적 혼란 상태로 이어진다고 하였다(조진희, 2019). 이에 생애 전환점을 맞고 있는 중년여성의 삶에서 아동 학대 경험을 회고하고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중년기를 보내고 있는 여성이 신체적, 심리적, 가족에서의 역할의 변화로 인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먼저 생물학적 노화를 마주하게 됨으로써 실존의 의미를 성찰하고,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찾고자 노력하며,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나 기대감 등의 혼란 속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Jung, 1972). 중요한 생의 전환기를 맞은 중년 여성에게 지금까지의 삶의 결실을 회고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였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삶의 방향을 파악하는데 중년여성의 삶 안에서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과정으로, 내러티브 탐구 관점에서 삶을 살아내고(living), 이야기하고(telling), 다시 살아내고(reliving), 또다시 삶을 이야기함으로써(retelling)(Clandinin & Connelly, 1998)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탐색 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라는 관계적 맥락에서 아동기 부모의 학대 이야기에서 중년여성의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여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재구성해가는 과정 안에서 생성되는 고유하고 독특한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한발 더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과 만나고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 안에서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을 함께 이루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동일한 학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참여자와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적 공간 안에서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이 연구 참여자의 삶의 시간성, 사회성, 장소의 맥락 안에서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탐색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 퍼즐을 설정하였다.

1. 참여자들의 아동기 부모 학대 경험은 어떠한가?
2.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 이후 참여자들의 결혼 이전 삶의 이야기는 어떠한가?
3.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 이후 참여자들은 결혼 이후 삶의 이야기는 어떠한가?
4. 참여자들은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의 힘들어 어떻게 견디고 살아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49세~50세의 결혼을 유지 중이거나 결혼 경험이 있는 중년여성으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대받은 경험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주제와 관련된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상담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모집 안내 포스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하여 적합한 연구대상자를 소개받으려 하였으나 이 역시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지인 중에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밝힌 사람 안에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부모의 학대 경험에서 중년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학대가 재현되는 그때의 시간과 장소, 상황으로 끌고 가게 되어 심리적 고통이 수반되었다. 연구 대상자 중에는 면담 일이 다가온다는 사실만으로 학대 경험에 함몰되어 건강이 악화되어, 연구 참여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결국, 연구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 중에 평소에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을 나누었던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내러티브 탐구에서 친밀한 관계성의 특성을 가진 가장 적절한 대상자였다. 이는 내러티브 탐구는 관계적 탐구로서, 탐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에 친밀한 관계성을 수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Clandinin 과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하는 데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한 공식적인 대화 인터뷰는 4회~5회 실시하였으며, 1회당 2시간~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비공식적인 대화 인터뷰에서 연구주제와 관련이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기록으로 남겼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과 이메일, 전화, 문자로 상시 교류하였으며,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참여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이메일, 전화, 문자를 보내 확인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삶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이야기해야 하므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친밀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대화 인터뷰 장소가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상담자이기도 하므로, 대화 인터뷰가 마치 상담처럼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가 심리적 부담을 갖지 않는지 주의를 기울이며, 연구자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반추하며, 통찰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반성하는 태도에서, 나아가 연구 참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그들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표현되는데 연구자의 질문이 방해되지 않았는지, 질문의 내용이 너무 넘치거나, 부족한 면이 없었는지 확인하려고 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수집과 동시에 Clandinin 과 Connelly(2000)가 제안한 내러티브 탐구의 수행 과정 중 3단계를 선택하였으며, 현장에 들어가기(Being in the field),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From field text to research text),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Composing research text) 순으로 진행하였다. 위의 3단계는 순환적이고 반복적으로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수행과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현장과 연구 텍스트 사이를 왕복하는 반복적 순환이 이루어졌다. 분석을 위해 연구 참여자와 대화 인터뷰한 텍스트와 분석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며 분석하였고, 상담자이기도 한 연구자가 지나친 심리분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며, 서술이 너무 은유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아동기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중년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적, 공간적 흐름과 관계적 맥락을 중심으로 내러티브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단어나 주제어에 초점을 두기보다 아동기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중년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주제들을 찾고자 하였다.



<그림 1> 출처 : 내러티브 수행과정(Clandinin & Connelly, 2000).

III. 연구결과

아동기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 최인애 이야기에서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 이야기>는 ‘경찰이 출동해야 끝나는 부모의 다툼’, ‘돈 때문에 가족을 착취한 엄마’, ‘부모에 대한 두 마음, 애증’이며, <학대 경험 이후 결혼 이전 이야기>는 ‘갈등에 대한 두려움’, ‘불안과 우울, 무기력이 반복되는 일상’, ‘아버지 외도 목격 후에 하게 된 고아 경험’, <학대 경험 이후 결혼 이후 이야기>는 ‘평범한 가정에 대한 열망’, ‘온전한 가정을 위해 권위적인 남편에게 복종’, ‘처음으로 사랑받는 느낌을 알게 해준 남편’, ‘학대의 재현과 시집살이로 재발된 우울증’, ‘산소호흡기가 되어준 상담과 신앙’, ‘열심히 키운 딸의 도움으로 태도가 바뀐 남편’,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에서 살아낸 이야기>는 ‘보호받지 못한 아이’, ‘혼자 터득한 생존방식’, ‘고통에 머물며 살아낼 수 있게 된 삶’으로 탐구되었다.

(2) 박남희 이야기에서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 이야기>는 ‘부모의 다툼과 가정에 무관심한 아버지’, ‘우리는 한 팀, 아버지는 공공의 적’, ‘어머니의 가출이 준 불안과 공포’, <학대 경험 이후 결혼 이전 이야기>는 ‘타인에 대한 불신’, ‘미워하는 아버지를 닮은 나’, ‘공허함을 채우려고 서두른 결혼’, <결혼 이후 이야기>는 ‘믿었던 남편의 외도’, ‘딸을 두고 나오게 된 이혼소송’, ‘여자는 엄마 팔자를 닮는다’, ‘홀로 남겨질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딸 케어를 잘못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딸과 함께 살 새로운 가정에 대한 희망’,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에서 삶을 살아낸 이야기>는 ‘가족에게 의지하는 힘든 마음’, ‘자꾸만 어긋나는 대인관계’, ‘이혼의 상처를 극복한 경험으로 다시 살아내기’로 탐구되었다.

(3) 이현미 이야기에서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 이야기>는 ‘아버지의 화풀이 대상인 가족’, ‘아버지의 무능력과 외도’, ‘엄마를 지키느라 나를 돌보지 못한 아이’, <학대 경험 이후 결혼 이전 이야기>는 ‘세상을 저버린 아버지’, ‘엄마의 남편으로 삶’, ‘무난할 것 같아 선택한 결혼’, <결혼 이후 이야기>는 ‘남편의 엄마 역할’, ‘인간에 대한 실망에서 온 우울증’, ‘아버지에 대한 회상’, ‘지친 일상의 휴식’, ‘시아주버니의 뒷바라지까지 요구하는 시어머니’, ‘가장 역할에 지쳐 흔들리는 신앙’,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에서 삶을 살아낸 이야기>는 ‘가혹했던 아버지의 폭력에서 가정 지키내기’, ‘아버지를 죽음에서 지키지 못한 죄책감’, ‘가정의 수호자로 최선을 다했지만...’으로 탐구되었다.

IV. 논 의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아동기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중년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방법으로 Clandinin(2013)은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된 삶의 경험을 최종 연구 텍스트로 구성할 때 개인적, 실제적,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내러티브 탐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각각의 개인으로서, 실천적 함의로서, 이론적으로서 연구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개인적 정당성

내러티브 탐구를 하는 동안 연구자는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Clandinin et al., 2018).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에

게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경험으로 다가왔다. 연구자는 아동기에 부모의 학대를 경험하였고, 그 학대 경험에서 자유롭기 위해 상담을 공부하였고 상담가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학대의 상처가 치유되어 가는 것 같았으나 삶의 현장과 상담 장면에서 학대의 재현이 엄습하여 개인의 삶과 상담자의 삶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지점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점이 학대의 경험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불안정한 정서의 경험들로 삶을 살아내고(living), 이야기하고(telling), 다시 이야기하고(retelling), 다시 삶을 살아내며(reliving), ‘삶은 버티고 견디며 살아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연구자가 자연스럽게 아동 학대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의 서막을 연구자 내러티브로 여는 것을 제안하는데, 연구자에게 이 작업은 아동기의 학대 경험으로 회귀하게 되어 불안정한 정서를 수반하였다. 연구자는 마치 아동기 학대의 현장에 와있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론 두려움, 불안, 우울증, 무기력이 와서 연구를 6개월 미루었다. 그러나 6개월 후 내러티브 탐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So what?’, ‘Who cares?’라는 질문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연구를 진행하여, 어느새 내러티브 탐구를 배워나감과 동시에 연구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내러티브 탐구의 수행과정은 단계가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었는데, 연구를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 내러티브 탐구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고, 차츰 내러티브 탐구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내러티브 탐구자가 되어갔다.

연구자는 내러티브 탐구가 연구 참여자들과 협력하는 공동의 연구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들

과 함께 아동기 부모의 학대 범주 안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고, 어떠한 삶을 살아냈으며,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에 부모에 대한 원망과 삶에 힘듦, 그리고 미래의 희망과 기대가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같은 경험을 한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으며 그들의 삶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과 연구자는 인생의 도입부인 아동기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경험한 중년여성으로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동기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중년여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삶의 경험을 재구성하였고 의미를 다시 부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갈수록 자신의 학대 경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객관화되면서 보다 편안해졌으며, 수치심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의 시작에서 정체성에 대한 딜레마를 토로하였는데,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가운데, 연구 참여자들과 연구자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었다. 개인적 차원의 학대 경험을 하였던 중년여성들이 삶을 견디고 살아냄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었다. 학대의 고통에서 성장으로 가는 요인이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것이기에, 내가 중심이 되어야만 통합할 수 있다.

2. 실제적 정당성

연구자는 본 연구를 시작하고 수행하는 과정 내 중년여성의 개인적인 학대 경험이 실제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자의 삶에서 시작된 개인적 관심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동기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중년여성의 삶에 대해 그들이 살아내는 방식을 통해 다

음과 같은 실제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은 학대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고군분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신뢰의 대상이어야 하는 부모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 노출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 지각이 손상되어 부정적 자기 개념을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어 학대 원인과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거나 과도한 자기 비난을 통하여, 학대 사건에 대한 정당화 및 애착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다(김정준, 1986; Allen, 2001; Briere, 1992; Gilbert et al., 1996; Harter, 1999; Herman, 1997; Wilson & Silvana, 2006). 수치심과 죄책감은 우울과 불안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정서로, 연구 참여자들의 부정적 자기 개념으로 인한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우울과 불안의 정서는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자기 침묵이나 자기회생적 전략은 대인관계 문제 및 우울을 초래하는데(성정아, 홍혜영, 2014; 윤희경, 윤형식, 2014), 최인애는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이 자기 침묵으로 나타났고, 거절당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박부형, 이영호, 2004).

박남희가 아동기부터 보인 공허감은, 부모와의 미해결 과제를 대인관계를 통해 채우려고 하였으나, 실패 단서에 쉽게 좌절되기 때문에 공허감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되었다. Straus(2004)는 세익스피어의 햄릿을 인용하여, 공허감은 세상의 어떤 것도 침투되지 않는 것이며, 무(無)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며(이재순, 2015),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현미는 아동기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확고한 신념이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아버지와 사별한 딸은 어머니에게 남편 역할을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 역할을 하게 된다(김현진, 장영집, 2013)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 이후 결혼 이전은 부모 학대의 영향에서 벗어난 시기이나, 연구 참여자들의 정서는 학대의 현장에 머물러 있었다. 최인애는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으로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어(Fonagy, 2000; Nickell, et al., 2002), 불안과 우울, 무기력의 불안정한 정서가 재현되는 힘든 나날을 보냈다.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 타인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과도한 걱정과 염려로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우울증이 지속하였다(Hermen, 1992). 어머니보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컸으나, 자신의 결혼식 전날 아버지의 외도를 목격한 이후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고아가 된 것 같은 공허한 마음이 들었다.

박남희는 아동기 내내 다투는 부모의 영향으로 타인을 불신하는 대인관계를 보였다. 그녀는 아동기부터 지속적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였으나 채워지지 않았고, 오빠의 부재로 인한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결혼을 서둘렀다. 그녀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면을 가진 외도하는 남자를 배우자로 선택하였다(Brown, 2009). 선행연구에서 이성을 선택할 때 여성은 아버지의 부정적인 면을 가진 남자를 선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원인은 구 뇌에 의한 것으로, 어린 시절 해결되지 않았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과거와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Handrix, 2004; 오제은, 2009). 또한, 아동기 아버지의 부재나 역할 혼돈을 경험한 여성은, 남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남성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부족하였다(Stoop, 2004)는 것을 보여준다.

이현미는 아동기 내내 술을 먹고 가족을 괴롭히는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나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이러한 무(無)감정은 선행연구에서 멍한 상태가 되며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하였다(Fulcomer, 1942). 또한, 아버지의 죽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이직하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남편 역할과

가장 역할을 하며 가정의 수호자로 살게 되었다 (Fish, 1969; 김현진, 장현집, 2013). 연구 참여자들이 학대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성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학대의 정서가 저장된 상태로 ‘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셋째, 결혼 이후의 의미로 최인애는 평범한 가정에 대한 열망이 컸기에 온전한 가정을 위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자기 침묵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결혼 후 남편에게 거절과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를 억압하고 희생하는 자기 침묵을 선택하였다(Austin, 2001). 자기 침묵은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에 효과적이었으나, 대인관계에서 무조건 복종하는 자기 침묵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기에 여러 번의 우울증이 발생하였다(Dill & Jack, 1992). 온전한 가정을 물려주기 위해 애쓰며 키운 딸이 잘 성장하여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에 지속적인 지적을 하면서 남편이 수용하고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그녀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딸을 모델링하여 남편에게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최인애와 남편은 신혼부부처럼 싸우면서 자신을 맞춰나가는 시간을 2년 정도 경험한 후에 비로소 평등한 부부가 되었다.

박남희는 아버지의 부재를 채워주던 오빠의 결혼으로 인하여 상실감과 공허감이 컸기에 결혼을 서둘렀으나, 남편은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을 닮은 외도하는 남자였다(Brown, 2009). 외도를 부정하는 남편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딸을 두고 나오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혼 후 여자는 ‘엄마 팔자를 닮는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공허감을 채워주길 기대한 결혼이 깊은 상처만 남기고 끝이 났다.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공허감(May, 1997)은 그녀가 제일 두려워하는 정서로, 아버지의 역할 부재를 타인을 통해 채우려 하였으나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박남희는

이혼 후 전 시댁에 두고 나온 딸을 13년 만에 재회하게 되었는데, 딸이 자해하는 등 힘든 사춘기를 보내는 것을 보면서 전 시어머니와 전남편을 원망하였다. 운동 중 다리를 다친 그녀는 연로하신 부모의 부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로운 배우자를 찾는 중이다.

이현미의 가정의 수호자 역할은 결혼 후 남편의 엄마 역할, 시어머니와 시아주머니의 뒷바라지와 직원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 직원들은 그녀의 돌봄에 배신감과 실망감을 주었기에 우울증을 앓았다. 그녀는 계속되는 가정의 수호자를 하느라 많이 지쳐있는 상태로, 6살 때부터 그녀의 중심이었던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 중 최인애는 17년 동안 자기희생 개념인 자기 침묵과 딸의 지원으로 그녀가 바라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었다. 박남희는 아버지같이 외도하는 남자를 만나 이혼하게 되었고, 13년 만에 재회한 딸이 자해하는 등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춘기를 보내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또한, 연로하신 부모의 부재에 대한 예기불안으로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 이현미는 원 가족, 현 가족, 그리고 시댁까지 책임지는 가정의 수호자 역할이 확장되어 번 아웃이 되어 그녀의 중심이었던 신앙이 흔들리는 상태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을 통해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에서 자유롭기를 소망하였으나 자유로울 수 없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결혼생활의 어려움이 혼합되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 깨어진 가정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견디며 살아내었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최인애]는 원 가족의 불행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결혼생활에서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였다. 그녀의 희생은 자녀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그녀는 힘들에서 견디고 버티며 살아내고 있었다. 지금도 학대가 재현되

어 불안정한 정서에 함몰되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아내고 있다. [박남희]는 결혼 실패경험에서 좌절하지 않고 일에 몰입함으로써 이혼의 상처를 견디어내었고, 승진하는 기쁨과 함께 성취감을 얻었기에 살아낼 수 있었다. 또한, 공허감을 채워줄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안정된 가정 안에서 딸과 함께 사는 날을 기대하며 견디고 버티며 살아내고 있었다. [이현미]는 엄마의 남편, 남편의 엄마 역할이 그녀가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이유가 되었으나, 결혼 후 시어머니와 시아주머니까지 지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정의 수호자 역할이 확장되고 장기간이 되면서 신을 원망하게 되었다. 아동기부터 해왔던 가정의 수호자 역할이 이제는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수영으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일상의 힘듦을 견디고 버티며 살아내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삶의 한가운데에서 견디고 버티며 살아내는 것이 이들에게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삶의 이야기에서 견디고 살아내는 방식의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학대 경험의 이해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찰함으로써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살아내는 방식이 다르므로 통찰과 성장 속도 또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 정당성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여전히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의 영향 안에 머물러 있으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인 세 명의 중년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기 부모의 학대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

이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 참여자는 학대의 가해자인 부모가 내 존재의 일부이며, 학대 경험 또한 삶의 일부임을 통찰하게 되었다. 이는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중년여성의 정체성 통합과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에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 기여된다. 이에 아동 학대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여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관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중년의 시기로, 부모의 아동 학대로 인한 고통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적 접근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재해석하거나 실존적 의미를 부여하여 경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돕는 일이 요구된다. 중년여성이 **지금** 시기의 아동 학대 경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중년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기 성장과 자기실현의 기회로 이끌 수 있다(김옥희, 김연경, 2016). 따라서 상담자는 아동 학대 경험으로 인하여 내담자 스스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수정할 수 있도록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중년기 여성 내담자가 자기 성장 및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한다.

셋째, 아동 학대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외상 당시의 충격으로부터 이를 극복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박선정, 2015; Astin, Lawrence & Foy, 1993).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적응력이 강화되는 반면,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응력이 손상되어 우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Aneshensel & Stone, 1982).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받을 때 성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때 성장과 적응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Prati & Pietrantoni, 2009). 아동기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내담자의 성장은 상담자의 지지적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 장면 이외에 내담자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또한 중요함을 시사한다. 상담 장면 이외의 실생활에서 내담자가 지속적인 지지를 경험한다면 안정감과 통제감의 회복을 통해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

V. 의의와 제언

아동기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중년여성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발견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중년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내러티브 탐구를 하였다는 점이다.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내러티브 탐구는 단순한 기술에 머물지 않고, 존재의 가능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 연구로서 관점을 강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과정 안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됨에 따라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었다.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한 개인의 고유한 삶 가운데 일어난 아동기 부모의 학대 의미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생생한 삶의 경험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모두 변화가 일어나는 연구가 되었다.

둘째, 학대의 경험 이야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중년여성의 관점에서 살아온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삶을 살아내고(living), 이야기하고(telling), 다시 이야기하고(retelling), 다시 삶을 살아내는(reliving) 내러티브 탐구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형성해가며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며 매일 매일의 삶을 만든다. 세상에 대한 그들의 경험이 해석되고 개인적으로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삶의 경험 속에서 발견한 의미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원 가족’, ‘나 없는 삶’, ‘불행은 불행으로 되풀이’, ‘학대의 재현 속에서 견디고 버티며 살아내기’이었다. 또한, 삶의 한가운데에서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상담과 신앙으로 치유되고, 딸의 지원을 받으며’, ‘딸과 함께 하는 새로운 결혼을 꿈꾸며’, ‘지친 삶에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로, 연구 참여자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나타났다.

넷째, 생애 초기부터 지속한 부모의 학대는 재회상하고 싶지 않은 경험으로,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억압하지 않고 자신의 불안정한 정서에 접촉하여, 충분히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의 학대 충격으로 정서나 생각을 회피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방어기제가 심해지고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학대 경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인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고 객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다.

다섯째, 국내에서 아동기 부모의 학대에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된 것에 반해, 중년여성의 전반적인 삶에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된 질적 연구로, 추후 학대 경험에서 발생하는 결혼 이전, 이후와 성장 경험에 대한 삶의 지혜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상담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아동기에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중년여성의 삶을 탐구하였는데, 현상학, 근거이론, 사례연구 등 보다 다양한 질적 연구의 접근을 통해 아동기에

발생한 부모의 학대 경험에 대한 이해의 장을 확장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기 부모의 학대에서 중년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로 아동기에 발생한 학대 경험이 오랜 시간이 흐른 시점이므로, 연구 참여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대화 인터뷰하는 나이 시점과 연구 참여자의 나이 차이를 고려하여 나이의 간격을 줄여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년여성의 나이가 주는 효과에 따라 삶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연구 참여자의 삶의 범위를 축소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대를 가한 부모와 학대를 경험한 자녀의 삶이 그들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구성하는지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김락경 (2017).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우울 증상의 관계: 인지적 취약성과 경험 회피의 연속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 김병국 (2012). 내러티브 탐구의 존재론적, 방법론적, 인식론적 입장과 탐구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15(3), 1-28.
- 김현진, 장연집 (2013). 성인기에 아버지와 사별한 미혼 딸의 이미지 직업체험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5(2), 69-90.
- 박선정(2015).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 측정 도구 개발**. 삼육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성정아, 홍혜영 (2014). 대학생의 이성 관계에서 불안정 성인 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거부 민감성과 자기 노출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87-412.
- 오제은 (2009). 커플 관계 치료에 있어서 ‘어린 시절의 상처’ 치료의 중요성: 이마고 커플관계 치료와 내면 아이 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3), 1055-1070.
- 윤형식, 윤희경 (2014). 성인 애착이 대학생의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거부 민감성의 매개 효과. **승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논총**, 16, 79-100.
- 조진희 (2019). **관계상실을 경험한 중년여성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 진명자 (2005). **부부성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aba preschool forms and profiles*, 30.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Allen, J. G.(2005). *Coping with trauma-hope through understanding*, 2nd ed. District of Columbia.
- Austin, J. E. (2001). *Women's sense of self in relationship and attachment style as a function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York. New York.
- Brown, Rick. (2009).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이론과 실제**[IMAGO Relationship Therapy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Practice]. (오제은 역). 서울 : 학지사(원전은 1999년 출판).
- Bowen, M, & Kerr, M. E. (20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Family evaluation].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 역. 서울 : 학지사(원전은 1988년 출판).

- Brooks, Gunn, J. & Duncan, G. J. (1997). The effects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55-71.
- Cicchetti, D., & Carlson, V. (1989).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orey, G. (1991).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Jersey: Brooks.
- Dill, D., & Jack, D. C. (1992). The silencing the selfscale: Schemas of intimacy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6, 97-106.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Y: W. W. Norton & Company.
- Fish, K. D. (1969). *Paternal availability, family role-structure, maternal employment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late adolescent fema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Fontana, V. J., & Robison, E. (1984). Observing child abuse. *The Journal of Pediatrics*, 105(4), 655-660.
- Fulcomer, D. M. (1942). *The adjustive behavior of some recently bereaved spouses: A psychosociological study*.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
- Hendrix, Harville. (2004). **연애할 땐 Yes, 결혼하면 No가 되는 이유**[*Getting the Love You Want*]. (서민아 역). 서울 : 프리미엄북스. (원전은 1990년 출판).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 377-391.

<Abstract>

Narrative Inquiry on Middle-aged Woman who Experienced Abuse by Parents in Childhood

YIM SUN JEONG

JEONG MON KYONG

Gyeonggi-do Province children temporary protection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ories of parents' abuse experiences in childhood, stories before and after abuse, and life stories from abuse experiences, and how the life experiences of the study participants shape the story and live their lives. To this end, three middle-aged women aged 49 to 50 who experienced abuse by their parents in childhood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in the study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By applying the narrative inquiry presented by Clandinin and Connelly (2000), it was conducted in a three-dimensional narrative search space, temporality, sociality, and plac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meaning found for the study participants was interpreted as "a precarious family that is likely to collapse," "parents of love and hatred," "Life without me," "Unfortunate repeats as unhappiness," and "to endure and survive in the reproduction of abuse."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discovered through narrative exploration on the life of middle-aged women who experienced abuse by their parents in childhood is as follows. First, it has become a study in which we grow and change together as we deeply understand the story of the life of middle-aged women who experienced abuse by their parents in childhood. Second, the study participants came to accept their experiences in an integrated manner through the process of fully talking about the experiences of middle-aged women, not just focusing on the story of abuse experiences. Third, in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and objectifying the meaning of the abuse experience, he was able to find his identity. Therefore, this study raises the need for a change of perspective and reinterpretation in the counseling scene so that middle-aged women who experienced abuse by their parents in their childhood can endure and survive the pain of reproducing abuse. Furthermore, it shows that the positive changes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the meaning of middle-aged women who experienced abuse by their parents in childhood can lead to identity integration and growth for middle-aged women who reassess their lives.

Keyword : child abuse, parental abuse, middle-aged woman, Inquiry Narrative

학생생활연구

The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2023, Vol. 26, No. 2. 21-35

대학생 자살생각 연구 동향 분석

저자 : 김은영*

지도교수 : 정문경†

한세대학교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관한 문제를 예방하고 향후 연구 방향성 및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발표된 등재 학술지 선행연구 중 ‘대학생 자살생각’과 유의어 ‘대학생 자살사고’를 검색 키워드로 하여 최종적으로 총 74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논문을 발행연도, 연구학술지, 연구 전공 분야, 연구 방법, 연구 변인 별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자살 생각에 대한 연구논문은 상담·심리 분야에서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둘째, 연구 방법 및 연구분석 방법에 관한 동향 분석 결과 1편을 제외한 73편의 연구가 모두 양적연구로 98.6%가 이를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 변인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대학생 자살생각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주로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변인들로 연구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자살생각 문제 예방을 위한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대학생 자살생각, 대학생 자살사고, 연구동향

* 주 저자 : 김은영, 한세대학교 대학원, E-mail : bbiioonn@naver.com

† 교신저자 : 정문경, 한세대학교 대학원 조교수, E-mail : jmoonk509@hansei.ac.kr

I. 서 론

대한민국은 2002년 자살률 세계 1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지금까지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03년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0명을 넘어선 이후 2022년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현재까지 높은 자살률이 지속되어 유지하고 있다. 이는 OECD 38개 국가 평균 사망률인 10.6명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20대의 자살률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20대의 사망률은 10만 명당 21.4명으로 청년 사망률 중에서 자살률이 50.6%라는 통계가 보고되었다(통계청, 2023). 심각하게 자살생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연령대별 연구조사 결과,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성인 중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이 5.8%로 성인 평균 4.3%보다 높고, 이는 19세 이상 성인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질병관리청, 2021). 2021년 3분기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48%가 코로나로 인한 불안,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보고된 결과(이은환, 2020)가 있다. 비슷한 시기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54개의 자살생각, 자살행동, 자해 관련 데이터를 연구대상으로 한 메타연구에서 코로나 대유행 이후 자살생각과 자살시도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자살은 자살생각으로 시작하여 자살계획을 세우고 결국 자살 시도로 이어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행동으로서(서승경, 2023),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중단하는 것이고 자살에 실패하더라도 그로 인한 신체·정서적인 후유증을 경험하게 된다(차미영, 2010).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국가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사회와 국가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자살에 대한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경제적 손실액으로 환산했을 때 한 해 평균 3조 85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손실을 가져오게 된다(정상혁, 2005).

삶의 여정 속에 누구나 한 번쯤 죽음을 상상하기도 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안세영, 김종학, 최보영, 2015). 그러나 자살생각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자살시도를 할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여섯 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자살생각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을 시도하는 빈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게 한다(임병구, 2010). 따라서 자살로 이어지는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살생각에 대한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겠다(장은선, 김종학, 최은선, 2007).

자살생각은 자살시도 및 자살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자살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Sandin et al., 1988). 홍영수(2004)는 자살생각에 대해 죽음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에서부터 자살 수단과 관련한 생각으로 아직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광범위한 심리적 증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같이 자살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거나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자살을 계획한다거나 실행에 옮겨 자살을 시도하는 행위로는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자살생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생각은 행위로서의 자살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살생각은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는 행위에 선행되는 것으로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자살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A. T, Beck, M, Kovacs & A, Weissman, 1977).

자살생각의 유의어로는 자살사고가 있다(박세림, 양명희, 2019). 최아론과 이영순(2012)은 자살사고에 대해 자살하고자 하는 생각 또는 계획 일체라

고 정의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자살 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자살과 관련된 많은 연구는 실제 자살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수 없는 윤리적, 현실적 한계가 있기에 편의성에 의한 자료수집의 이유로 자살생각이나 자살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오고 있다(Waldrop et al., 2007).

우리나라 대학생은 청소년기 시험에 얽매인 입시 위주의 생활에서 벗어나 20대로 향하는 성인으로서의 발달단계에 있는 시작점으로 인지적, 정서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시기이다. 70% 이상의 높은 대학진학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발달단계에 이르는 것 외에 대학 학비 등의 문제로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없고 부모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대학생 자녀에게 졸업 후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경제활동을 기대한다. 그리고 자녀가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부모·자녀 간 여러 가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유계숙, 손현경, 2015). 대학 생활을 하며 새롭게 경험하는 인간관계와 학업 스트레스, 진로 문제, 취업 등 다양하고 복잡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추종필, 민병일, 박성균, 2001). 청소년기와는 달리 자신의 선택에 대한 더 많은 책임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성공을 기대하는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로 인해 불안이 증폭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면서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요받는 심리적 부담감과 갈등으로 인해 그들의 정신건강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거나 더 나아가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이르기도 한다(이정숙, 조인주, 2020).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약물중독 역시 자살에 이르는 원인으로 제공된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약물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심하면 중독에 빠지거나 자살에 이른다(신현주, 2015).

대학생활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기르는 시기(이지예, 서예진, 박정민, 이서정, 조은희, 2023)에 있는 대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유계숙, 손현경, 2015). 대학생의 자살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 경기도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에서는 2023년 9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오산 대학교에서 ‘청년 자살 예방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는,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청년들의 자살과 관련한 생각을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여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조현철, 2023). 이처럼 대학생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은, 대학생이 모인 대학으로 직접 찾아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자살생각에 대한 논의의 기회를 만들어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시도의 한 예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대한 선행연구는 2004년도 박은영의 기독교 대학생 대상 연구이다. 이후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으며, 대학생 자살생각에는 어떤 변인들이 작용하는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었으나 이를 종합하여 정리한 대학생 자살생각에 관한 동향연구는 발표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 대상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살펴보고,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관한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자살생각 논문의 발행연도 및 학술지별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자살생각 논문의 전문학술지 유형과 전공 분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자살생각 논문의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의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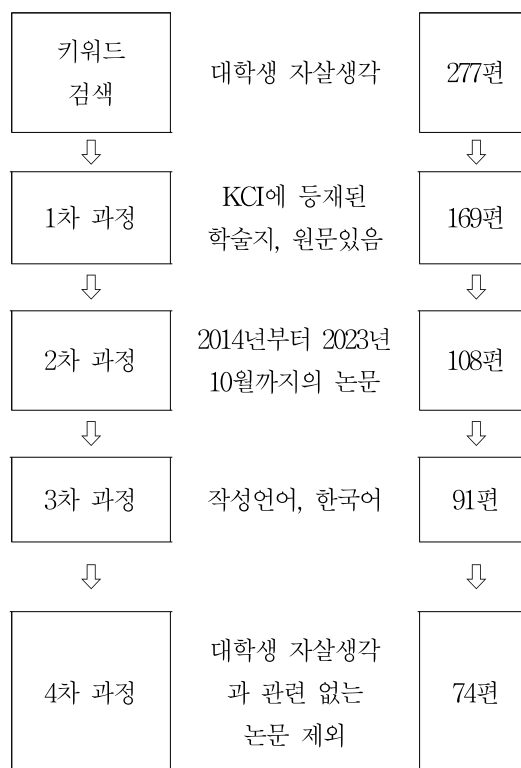
연구문제 4. 대학생의 자살생각 논문의 연구변인의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된 선행논문 중 KCI에 등재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도별 연구 동향

본 연구의 대상은 2014년에서 2023년 10월까지 최근 10년간 발표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였다. 대학생 자살생각과 관련된 문헌을 검색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KISS), 한국연구재단(KCI)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대학생 자살생각’, ‘대학생 자살사고’를 키워드로 검색한 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랐다. 첫 번째, KCI 등재 학술지 논문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는 원문이 있는 2014년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논문을 선별하였으며, 다음으로 작성언어를 한국어로 하여 검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자살생각’, ‘대학생 자살사고’와 관련 없는 논문을 제외하여 총 74편의 논문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1> 자료수집 절차

2. 분석기준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연구동향 분석이다. 기존의 선행된 동향 연구의 분석틀(김수임, 김창대, 2009; 박새림, 양명희, 2019; 정문경, 2023)을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을 범주로 하여 연구분석을 재구성하였다. 먼저, 대학생 자살생각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발행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발행연도를 분석하였다. 전문학술지 유형별, 연구 전공 분야별, 연구방법 및 통계방법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학생 자살생각’, ‘대학생 자살사고’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변수와 매개 및 조절변수의 속성과 관련 변수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최종분류 범주는 <표 1>에

서와 같다.

<표 1> 최종 분류범주

분류범주	세부사항
기초사항	학술지 현황, 발행연도
연구대상	자살생각 관련 대학생
연구전공 분야	전문학술지 유형
연구방법 및 연구분석 방법	양적연구, 질적연구, 통계분석분류
연구변인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변수의 유형

연도	편수(%)
2014	8(10.8%)
2015	9(12.2%)
2016	18(24.3%)
2017	9(12.2%)
2018	7(9.5%)
2019	8(10.8%)
2020	4(5.4%)
2021	3(4.0%)
2022	6(8.1%)
2023	2(2.7%)
합계	74(100%)

III. 연구결과

1. 발행 연도별 연구동향 분석

대학생 자살생각과 관련된 발행 연도별 연구동향은 <표 2>에서 제시하였다. 2014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등재 학술지에 기재된 74편의 연도별 논문 수를 보면, 2014년에 8편(10.8%), 2015년 9편(12.2%)이었고 2016년에 들어서 18편(24.3%)으로 2014년, 2015년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에는 9편(12.2%)으로 다시 한 자리로 내려가 2018년 7편(9.5%), 2019년 8편(10.8%), 2019년 7편(%)이 발표되었다.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소 부진하여 2020년, 4편(5.4%), 2021년 6편(8.1%), 2023년 10월 현재 2편(2.7%)으로 연구실적이 다소 줄었음이 보여졌다.

<표 2> 발행 연도별 연구동향

2. 전공별 연구동향 분석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분석한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논문의 연구 전공별 동향은 <표 3>에서 제시하였다. 논문의 전공별 연구 동향은, 간호학이 19편(25.9%), 경찰행정학 1편(1.4%), 교육학 12편(16.1%), 보건 사회학 1편(1.4%), 사회복지학 10편(13.5%), 상담심리학 8편(10.8%), 상담학 5편(6.7%), 심리학 10편(13.5%), 스포츠 건강학 1편(1.4%), 아동가족학 2편(2.7%), 아동교육 상담학 1편(1.4%), 아동학 1편(1.4%), 정신건강의학 1편(1.4%), 특수치료학 1편(1.4%), 기타 1편(%)이 게재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생각은 간호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학에서 12편의 연구와 아동교육 상담학에서 1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상담심리학 분야로는, 상담심리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교육 가족학, 아동가족학에서 대학생 자살생각과 관련된 많은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의 경우, 아동 가족학과 아동교육 상담학이 상담심리 분야와 중복되는 전공

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건강 스포츠, 사회복지, 특수치료학, 경찰행정학, 그리고 전공 분야를 밝히지 않은 기타 전공에서 각 1편의 연구가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표 3> 전공별 연구동향 분석

전공별	편수	비율(%)
간호학	19	25.9%
경찰행정학	1	1.4%
교육학	12	16.1%
보건사회학	1	1.4%
사회복지학	10	13.5%
상담심리학	8	10.8%
상담학	5	6.7%
심리학	10	13.5%
스포츠건강학	1	1.4%
아동가족학	2	2.7%
아동교육상담학	1	1.4%
아동학	1	1.4%
정신건강의학	1	1.4%
특수치료학	1	1.4%
기타	1	1.4%
합계	74	100%

3. 학술지 유형별 동향 분석

학술지에 따른 유형별 동향은 <표 4>에서 제시하였다. 학술지의 유형별 동향 분석은, 사회과학 분야, 교육학 분야, 의학 분야, 공학 분야, 자연과학 분야, 예술체육 분야, 복합학 분야까지 크게 7개의 학술지 분야로 나누어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학술지 발표논문은, 한

국심리학회지 7편(65.8%), 청소년 상담 연구 6편(48.6%), 상담학 연구 5편(33.5%), 사회과학연구 3편(42%), 한국 임상심리학회지 3편(42%)이며 가족과 가족치료, 보건과사회과학,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인지행동치료, 재활심리연구, 청소년복지연구, 학교 사회복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한국가족복지학, 한국발달자원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에서 각 1편(1.4%)씩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학 분야에서의 발표논문은, 교육문화연구 1편(1.4%), 교육치료연구 1편(1.4%), 학습자중심 교과교육 3편(4%)이 발표되었다. 의학 분야에서는, 정신건강 간호학회지 2편(4.4%),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편(4.4%)이며 경북간호학회지, 기본간호학회지, 대한질적연구학회지, 수면·정신생리, 스트레스 연구, 아동건강 간호연구에서 각각 1편씩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학 분야에서는, 디지털융합연구에서 4편(5.4%)이,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에서 3편(4%)이며 차세대융합기술학회 논문에서 1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한국데이터정보과학지에서 1편(1.4%)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한국여가레크레이션 학술지에서 1편(1.4%)의 논문이 발표되어 나왔으며 복합학 분야에서는,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에서 3편(12%), 한국웰니스학회지 2편(5.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편(5.4%)을 비롯하여 교정복지연구, 문화기술융합저널, 청소년시설환경에서 각 1편(2.7%)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종합해보면, 사회과학 분야에서 37편의 논문이, 교육학 분야에서 5편이, 의학 분야에서 12편, 공학 분야의 학술지에서 8편과 복합학 분야에서 10편과 자연과학 분야와 예술 체육 분야에서 각 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와같이, 대학생 자살사고와 관련한 논문들은 심리상담이 관련되어있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왔으며 다음으로 의학 분야에서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졌으며 그 중 수면·정신 생리와 스트레스 연구 각 2편의 논문

을 제외한 8편이 간호학과와 관련된 학술지 논문이다. 이로써 대학생 자살생각 연구논문은 40여 종류의 다양한 학술지를 통하여 대학생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학술지 유형별 동향 분석

분야	학술지명	논문수	비율(%)
사회과학	가족과 가족치료	1	1.4%
	보건과 사회과학	1	1.4%
	사회과학연구	3	4.0%
	상담학연구	5	6.7%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1	1.4%
	인지행동치료	1	1.4%
	인문사회과학 연구지	2	2.7%
	재활심리연구	1	1.4%
	청소년복지연구	1	1.4%
	청소년상담연구	6	8.1%
	학교사회복지	1	1.4%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	1.4%
	한국가족복지학	1	1.4%
	한국발달자원연구	1	1.4%
	한국심리학회지	7	9.4%
교육학	한국임상심리학회지	3	4.0%
	한국치안행정논집	1	1.4%
	교육문화연구	1	1.4%
	교육치료연구	1	1.4%

의학	학습자중심교과교육	3	4.0%
	경북간호학회지	1	1.4%
	기본간호학회지	1	1.4%
	대한간호학회지	1	1.4%
	대한질적연구학회지	1	1.4%
	수면·정신생리	1	1.4%
	스트레스연구	1	1.4%
	아동건강간호연구	1	1.4%
	정신간호학회지	2	2.7%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	2.7%
공학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	1.4%
	디지털융복합연구	4	5.4%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	1	1.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	3	4.0%
자연과학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1	1.4%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1	1.4%
복합학	교정복지연구	1	1.4%
	문화기술융합저널	1	1.4%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3	4.0%
	청소년시설환경	1	1.4%
	한국웰니스학회지	2	2.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	2.7%
합계		74	100%

4. 연구방법 동향 분석

연구 방법에서의 연구동향 분석은 <표 5>에서 연구 방법 동향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크게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대학생 자살생각(대학생 자살사고)과 관련한 총 74편의 연구방법 동향은, 질적연구 1편이며 그 외의 연구논문 73편은 모두 양적연구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양적연구에서 나타난 통계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회귀분석이 43편(58.1%)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이다. 뒤를 이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26편(35.1%), 상관분석 1편(1.4%), 메타분석 1편(1.4%), 마지막으로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 2편(2.6%)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동향의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이 69편으로 93.2%의 높은 통계분석 방법 사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질적연구는 1편이 발표되었는데 이정빈(2022)의 ‘대학생 내담자의 자살생각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살 생각을 반복하는 대학생 내담자들의 자살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상담 전공 분야에서 이루어진 이 논문은 특정 현상을 경험한 개개인의 경험을 그들을 관점에서 그대로 이해하고 기술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찾아 밝혀내는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다.

<표 5> 연구방법 동향 분석

구분	분석방법	논문 수	비율 (%)
양적 연구	회귀분석	43	58.1%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26	35.1%
	상관분석	1	1.4%
	메타분석	1	1.4%
	집단 간 차이 검증	2	2.6%
질적 연구	현상학 연구	1	1.4%
합계		74	100%

5.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변수의 동향 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살생각과 관련된 변수의 속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대학생 자살생각이 종속변인 일 때 영향을 받는 독립변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를 크게 심리 및 자아, 가정환경, 학교 및 사회환경, 직업, 신체 및 운동, 기타 등 6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변인들은 많은 논문들에서 중복되어 나타났다. 먼저, 심리 및 자아 영역에 속하는 변인들로는 불안, 분노, 우울, 외로움, 우울 취약성, 분노 표현, 수치심, 좌절감, 패배감, 자기 비난, 충동성, 짐 된 느낌 부정적 정서, 정서적 외상 경험, 단절 및 거절 도식, 생활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 위험회피, 분노 표현, 이상화된 자기 체계,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생각, 자기 존중감, 자기 자비, 자기 통제력, 심리적 탄력성, 정신장애, 정신건강으로 44편의 논문에서 중복으로 사용되었다. 가정환경 영역에서는 가족의 의사소통, 아동기 학대, 부모의 과잉간섭, 부모의 음주 문제, 부모의 알코올 중

독 등으로 7편의 논문에 게재되었다. 학교 및 사회 환경으로는 학교 환경, 학교생활 흥미, 학교생활 스트레스, 대학생활 만족감, 사회적지지, 사회 부가적 완벽주의로 16편의 논문에 실렸다. 진로 영역은, 대학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반영해 주는 취업 스트레스라는 단일 변인으로 12편의 논문에서 다른 변인과 중복되거나 단일 변인으로 사용되었

다. 신체 및 운동영역의 변인으로는 수면의 질, 음주, 신체 증상, 체력단련형 여가 스포츠 활동이며 6편의 논문에서 분석되었다. 기타 영역으로는 자살 보도 메시지와 자살 태도, 자살위험요인 경험, 경제적 스트레스, 삶의 이유, 성별 등 5편의 논문에 실렸다.

<표 6> 자살생각이 종속변인일 때 독립변인

독립변인 명		논문수 (중복허용)
심리 및 자아	우울, 불안, 분노, 외로움, 수치심, 좌절감, 패배감, 위험회피기질, 자기 통제력, 충동성, 정서적 외상 경험, 우울 취약성, 이상화된 자기 체계, 짐 된 느낌, 단절 및 거절 도식, 문제대처방식, 자기 존중감, 심리적 탄력성,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생각, 정신건강, 정신장애 좌절된 소속감 생활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42
가정환경	가족 의사소통, 아동기 학대, 부모의 과잉간섭, 부모의 음주 문제, 부모의 알코올 중독	7
학교 및 사회환경	학교생활 흥미, 학교 환경, 대학 생활 만족감, 학교생활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사회 부가적 완벽주의	16
진로	취업 스트레스	12
신체 및 운동	수면의 질, 음주, 음주 문제, 신체 증상 체력단련형 여가 스포츠 활동	6
기타	자살 보도와 자살 태도, 지식위험요인, 경제적 스트레스, 삶의 이유	5

대학생 자살 생각이 종속변인일 때 매개 및 조절 변인으로서의 중재 변인은 <표 7>에서 보이는 것

처럼 심리 및 자아의 변인이 전체논문 중 63편에서 분석되었다.

<표 7> 자살생각이 증속변인일 때 중재변인

	중재 변인	논문 수 (중복허용)
정서 및 자아	우울, 불안, 분노, 분노 억제, 무만감, 패배감, 내적 속박 감, 외적 속박 감, 역기능적 충동성, 반추, 강박증 상, 신경증, 폭발적 행동, 내면화된 수치심, 경험 회피, 심리적 극통, 실수염려 완벽주의, 감정 지능, 문제대처방식, 정서 조절, 안녕감, 희망 성향, 행복감, 용서, 자아 탄력성, 회복탄력성, 자아 정체감, 자기 효능감, 자기 인식, 자기 자비, 정서 도식, 인지적 유연성, 삶의 의미, 외향성, Resilience	63
가정환경	가족 의사소통, 아동기 트라우마	2
학교 및 사회환경	대학 생활 만족도, 대학 생활 적응, 사회적 지지, 좌절된 소속감, 대인관계 유능성,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	11
진로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진로 소명	2
신체 및 운동	수면의 질, 운동 여부, 일 주기 리듬	1
기타	성별, 인구학적 특징, 부적응적 정서 조절 전략, 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	3

I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최근 10년 동안 국내 학술지 논문에 수록된 대학생 자살 생각에 관한 연구를 수집하여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대학생의 자살 생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KCI에 등재된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하여 총 74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연구자 전공별, 학술지 유형별, 연구 방법과 통계분석별, 연구 변인별로 나누어 대학생 자살 생각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된 최초의 논문은 박은영(2004)의 ‘청년기의 자살생각에 대한 성경적 상담의 접근’이며 기독교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석사학위 논문이다. 최근 10년 동안 학술지를 중심으로 발표된 연도별 논문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2014년에 8편이었고, 2015년 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016년에 대학생 자살생각과 관련한 18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학술논문이 쏟아져 나온 시기는 2016년도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2017년 9편, 2018년 7편, 2019년 8편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어 2020년과 2021년에는 4편, 3편으로 연구의 관심이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COVID-19

의 대유행 시기에 자살 생각이 증가(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한 것과는 달리 국내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연구논문은 오히려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예기치 못한 새로운 질병의 출현 및 장기화는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쳐 한창 진로를 고민하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대학생들에게 취업 스트레스와 더불어 우울감,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켜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이지혜, 서예진, 박정빈, 이서정, 조은희, 2023).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내고 현재 대학에 진학하여 친밀감 대 고립감이라는 심리발달단계에 놓여있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낮추고(김광진, 정남운, 2010)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자살생각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겠다.

둘째, 대학생 자살생각과 관련한 전공 분야별 연구를 분석한 결과, 간호학 분야에서의 연구 동향이 25.9%로 대학생 자살생각에서 가장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교육학이 12편으로 16.1%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사회복지학과 심리학에서 각 13.5%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편, 심리학, 상담심리학, 상담학, 아동교육 상담학 등 심리·상담 관련 유사한 분야의 전공을 분석했을 때 32.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10건의 의학 전문학술지에서 12편(16.6%)의 연구논문을 제시하였고 17건의 사회과학 전문학술지에서 37편(50%)의 연구논문이, 이밖에 3건의 교육학 전문학술지에서 5편 등이 발표되는 등 다양한 학술지를 통하여 대학생 자살생각과 관련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논문은 상담·심리 분야의 학술지에서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다음으로 간호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학생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방법 및 연

구분석 방법에 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편을 제외한 나머지 73편의 연구가 모두 양적연구로 98.6%가 이를 채택하였다. 이는 자기 보고식 측정용 도구를 사용하여 자살생각에 대한 통계적 자료로서의 연구라는 것을 의미한다(박세힘, 양명화, 2019). 양적연구의 통계분석을 확인한 결과, 회귀분석을 사용한 논문(59.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구조방식 모형분석(35.1%), 집단 간 차이검증(2.7%), 메타분석(1.4%)이 뒤를 이었다. 분석결과 중 회귀분석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자살생각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 간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선혜연, 정솔피, 송효경, 오정희, 2016). 한편, 1편의 질적연구에서 보여지듯 양적연구로의 편중은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될 수도 있다(박세힘, 양명화, 2019). 그렇기에 양적연구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더 많은 질적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넷째, 대학생의 자살생각의 연구 변인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자살생각을 변인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독립변인과 매개 및 조절변인을 크게 심리 및 자아, 가정환경, 학교 및 사회환경, 진로, 신체 및 건강, 기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 및 자아 영역에서의 독립변인은 우울, 불안, 분노, 외로움, 수치심, 좌절감, 패배감, 위험회피기질, 충동성, 정서적 외상 경험, 우울 취약성, 이상화된 자기 체계, 짐된 느낌, 단절 및 거절 도식, 문제대처방식, 생활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변인들과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 자기 자비 자기 통제력 등 심리적 긍정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이 사용되었다. 많은 독립변인들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몇 가지를 정리하자면, 대학생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생활스트레스가 있다(Hen din, 1987).

생활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경험되어지는 혼란이 개인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적절한 대처를 받지 못할 때 경험하는(전경구, 김교현, 1991) 스트레스로 동성, 이성 친구, 가족, 교수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스트레스와 학업, 경제, 장래,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스트레스를 지칭하는 것으로(이은희, 2004, 최우경, 김진숙, 2012),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 자살을 생각하거나 충동적인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이지영, 2007). 가정환경 영역에서의 변인 연구는 가족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 간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살생각과 부적 관계로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자살생각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손인봉, 최정아, 2016). 이 밖에 대학생이 지니는 특성으로 학교 및 사회환경의 영역에서 소속감의 좌절은 사회적 지지층이 결핍(Stellrecht et al., 2006)이자 사회적 통합의 실패(Durkheim, 1997)로서 강렬한 외로움을 느끼며 자살생각과 관련이 높다(Van Orden et al., 2008)고 보았다. 진로 영역에서 취업 스트레스만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연구논문은 12편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이 취업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이 증가하고 자살 수준도 따라 올라간다(서인균, 이연실, 2014)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대학생 자살생각의 변인은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여러 선행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선행 연구 중 학위논문을 제외하고 학술지 중심으로만 74편을 선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생 자살생각에 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이해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심어린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이정빈, 2022) 바란다. 마지막으로, 2020년 이후 침체된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연구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져 추후 대학생의 자살생각 문제 예방을 위한 연구의 토대

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수임·김창대 (2009).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연구의 동향. **상담학연구**, 10(3), 1573-1591.
- 박새림·양명화 (2019). 청소년 자살생각 동향 연구. **상담교육연구**, 2(1), 101-116
- 박은영 (2004). **청년기의 자살생각에 대한 성격적 상담의 접근 : 기독교대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서승경·장우심 (2023). 경북지역의 A 대학교 대학생의 불안, 스트레스,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7(5), 832-840
- 서인균·이연실 (201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 남·여 대학생 비교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6(3), 25-53.
- 선헤연·정솔피·송효경·오정희 (2016). 진로상담에서 정서·성격적 진로문제에 대한 연구동향. **인간이해**, 37(2), 5-27.
- 손인봉·최정아 (2016). 대학생의 자살사고에 대한 가족의사소통과 대학환경의 영향 검증. **가족과가족치료**, 24(4), p.553-571
- 신현주·박성수 (2015). 대학생의 약물남용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7(6), 183-206.
- 안세영·김종학·최보영 (2015).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13), 385-405.
- 유계숙·손현검 (2015).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

- 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대인 관계 욕구와 삶의 이유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2), 75-100.
- 이은희 (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25-48.
- 이은환 (2020). 코로나 19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이슈와 진단**, 1(414), 1-25.
- 이정숙·조인주 (2018). 대학생 자살생각 영향요인 : 자아 정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 연구**, 58(2), 45-76.
- 이정빈 (2022). 대학생 내담자의 자살생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질적연구학회지**, 7(2), 163-176.
- 이지영 (2007). **대학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이지예·서예진·박정빈·이서정·조은희(2023). COVID-19를 경험한 대학생의 우울 및 대인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4(4), 401-412.
- 임병구 (2010).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장은선·김광웅·조유진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비합리적 신념 및 자살생각의 관계 : 고등학교 재학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학회**, 14(5), 119-148.
- 전점구·김교현 (1991).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 제어 이론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137.
- 정문경 (2023).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문화와 융합** 45(4), 419-432.
- 정상혁 (2005).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국립서울병원 국립 정신 보건교육 연구센터**, 11, 1-128.
- 조현철 (2023). **오산시자살예방센터 대학생 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NSP통신
- 주종필·민병일·박성균 (2001). 일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그 해소 방법. **스트레스 연구**, 9(2), 41-50.
- 질병관리청 (2021). **국민건강영양조사통계자료**. 충북: 질병관리청
- 차미영 (2010).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최아론, 이영순(2012). 고등학생의 인지적 몰락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용서, 삶의 의미, 감사, 희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4), 1937-1953.
- 통계청 (2023). **사망원인통계자료**. 대전: 통계청
- 홍영수 (2004).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원의 완충 효과. **임상 사회사업 연구**, 2(1), 249-272.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Durkheim, E. (1997).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John A. Spaulding & George Simpson, Trans.). New York: Free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897)
- Hendin, H. (1987). Youth suicide: A

- psychosocial perspectiv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7, p.151-65.
- Hoyert, D. L., Heron, M. P., Murphy, S. L., & Kung, H. C. (2006). Deaths: Final data for 2003.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 54(13), 1-48.
- Hendin, H. (1987). Youth suicide: A psychosocial perspectiv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7, 151.
- Suicidal desire and the capability for suicide: Tests of the interpersonal 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1), 72-83.
- Waldrop, T. A., Brudnak, L., & Rideout-Hanzak, S. (2007). Fires on disturbed and undisturbed sites in the southern Appalachian Mountains, USA. *Canadian Journal of Forest Research*, 37(6), 1134-1141.
- World Health Organization, Mental Health Considerations during COVID-19 Outbreak.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health report, World Health Organization, U.S.A, pp.1-6

<Abstract>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Suicidal Thoughts.

Kim, Eun-Young

Jeong, Moon-Kyeun

Hanse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trends in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suicidal thoughts over the past ten years by consolidating previous studies in order to prevent suicide issues among college students and provide a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To achieve this, the study collected and examined a total of 74 papers published from 2014 to October 2023 in academic journals, using the keywords "college students' suicidal thoughts" and synonyms such as "college students' suicidal ideation."

The collected papers were analyzed based on publication year, academic journal, research field,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variables, and the results were presented. First, most of the research papers on suicidal thoughts of college students were published in the fields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Second, as a result of trend analysis on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analysis methods, it was found that 98.6% of all 73 studies except one were adopted as quantitative studies. Third, as a result of trend analysis by research variable, it was found that most suicide thoughts were used as variables. The findings showed that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suicidal thoughts has been consistently conducted, with a focus on quantitative research exploring various research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future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suicidal thoughts and suicide preven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suicidal thoughts and suicide prevention were provided..

Keyword : *college students, suicidal thoughts, analyze of trends*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대상관계 미술치료 사례연구

저자 : 이진옥*

한세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는 대상관계 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Y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연구 참여 공고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학령기 발달장애아 어머니 3명으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주 2회, 90분씩, 12회기로 실시하였다. 대상관계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전, 사후, 추수의 총점과 하위영역별로 분석하였다. KHTP 그림 검사의 사전, 사후, 추수를 질적 분석하였으며 Winnicott(1963) 정서발달 단계에 따른 회기별 변화를 관찰지를 통하여 질적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참여자 A, B, C는 심리적 안녕감의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KHTP 그림 검사의 긍정적인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단계에 따른 회기별 변화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대상 관계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주요어 : 대상관계 미술치료, 심리적 안녕감, 발달장애아 어머니

1) 주저자 : 이진옥, 한세대학교 대학원, E-mail : ljo28888@naver.com

I. 서 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호 관계의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며,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자기를 형성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다. 생애 초기에 어머니의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 자신을 괜찮은 나로 여기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따뜻하고 배려할 줄 아는 품성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나 어머니에게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대상관계가 결핍된 사람은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격 형성과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Honer, 1984).

Stren(1995)은 부모와 자녀는 하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부모가 과거에 경험한 다양한 역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계라고 하였다(장미자, 1998). 전경희(2004)는 어머니가 자신의 주 양육자와 대상관계가 결핍이 되면 안정적인 정서 발달이 어렵고 이후 인간관계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주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관계는 자신의 자녀와 관계를 맺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생애 초기 어머니와의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아 어머니들이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인 고통의 원인으로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주 양육자와의 초기 대상관계의 결핍으로 보았다. 이것은 발달장애아 어머니가 장애 자녀를 양육할 때 받는 심리적인 고통이 단지 장애의 특성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생애 초기에 자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좋지 못한 양육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김유미, 2012). 또한 부모가 초기에 자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경험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장미자, 1998).

자녀의 장애를 알게 됨으로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발달장애아 어머니에게 심리적 안녕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심리적 안녕감은 주관적인 행복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심리적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발달적으로 얼마나 성숙하며 하나의 개체로서 잘 기능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삶 속에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 부정적인 경험을 생각할 때 행복하고 편안한 정서만이 아닌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잘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박예라, 2015). 삶에서 뜻하지 않은 자녀의 장애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발달장애아 부모가 좌절하고 낙담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녕감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집단미술치료에 대한 선행 논문을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 감소, 자녀수용 개선, 자아 성장, 비합리적 신념, 우울 감소,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가 있다(곽경화, 정현희;2010, 이은진, 이상복; 2006, 제갈선아, 이근매;2014, 정미영, 최은영;2006, 이근매, 서화자;2002). 이러한 집단미술치료는 장애아 어머니라는 공통점을 지닌 집단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위로받으며 미술 활동을 통해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는 치료의 장이 될 것이다. 이근매와 서화자(2002)는 발달장애아 어머니들이 집단미술치료를 통하여 집단원 간의 지지와 피드백을 통해 양육 태도와 정서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고 곽경화와 정현희(2010)는 양육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자녀와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에 따른 양육 태도를 연구한 김유미(2012)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는 양육 태도 및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장애아동 어머니

는 자신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을 알고 어려서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을 토대로 현재 자신의 양육 태도 및 양육효능감을 재검토한다면, 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장애아동의 양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고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집단미술치료 선행연구들은 발달장애아 어머니들의 부적응적 외현된 부분에 초점을 맞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 어머니와 자녀의 부적응적 관계에 대해서 발달장애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를 대상관계 집단미술치료를 통하여 관계 어려움의 원인을 알아보고 자기를 이해하는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대상관계이론은 사람들이 생애 초기에 가졌던 관계 경험, 특히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며 이런 내면화된 표상들이 개인의 성격 형성과 이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집중으로 조명하는 이론이다. 부모와 자녀 관계, 교사와 학생 관계, 부부 관계 등에서 불화와 갈등이 커지고 있고 여기서 파생되는 대인관계 문제는 내담자들의 주요 호소 문제이다(김진숙, 2001).

발달장애아 어머니들의 결핍된 대상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수준의 대상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대처 방법으로 대상관계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고자 한다. 대상관계 미술치료는 생애 초기 대상관계가 결핍된 발달장애아 어머니들에게 대상관계 집단미술치료를 통하여 어머니와 같은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여 자신의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여 건강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기능을 잘 수행하여 그로 인해 발달장애 아동 역시 건강한 심리상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미술치료이다. Malchiodi(1999)는 미술치료는 미술작품을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치료의 효과가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이라고 하였다. 발달장애아 어머니들은 집단미술치료를 통하여 안전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같은 아픔을 가진 어머니의 공통점으로 서로에게 공감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상관계 집단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 어머니들이 초기 대상에 대한 상실을 회복하여 새로운 대상관계 수준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통합하며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미술치료 과정을 대상관계이론 관점에서 질적분석 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관계 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떻게 경험되는가?

둘째, 대상관계 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동적 집나무사람(KHTP) 검사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셋째, 대상관계 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Winnicott(1963)의 정서 발달단계의 각 단계 및 회기별 변화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사례연구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사례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무의식적인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의 변형 과정을 다루기 위해, 생생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사례연구는 구체적인 사례를 선정

하여 주제나 문제를 탐구하거나 이해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사례를 탐색하여 다양한 정보원들을 포함한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 방법이다(Creswell, 2013/2015).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선정한 사례에 대해 이해를 가지고 현상의 역동성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얻고자 할 때 적합하고, 현상에서의 경험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유용하다(Merriam, 1988/1994).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를 채택한 이유는 연구의 주제인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대상관계 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 어머니들에게 미치는 변화의 과정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 분석 방법으로는 대상관계 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 분석 하였다. 단계별 변화를 연구자와 미술치료 전문가 1인이 함께 관찰하고 기록한 다음 합의한 부분으로 질적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관계 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떻게 경험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사전과 사후, 추수의 하위영역과 총점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관계 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떻게 경험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동적 집-나무-사람 검사의 사전과 사후, 추수를 질적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관계 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떻게 경험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에 따른 회기별 변화를 관찰지를 통해 질적 분석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로, 연구자는 Y시에 위치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 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첫째, 발달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어머니인 자, 총 12회기에 걸친 주 1회~2회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 참여 의지가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기관 관계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하여 연구에 대한 안내 모집공고를 내었다. 프로그램 시작 전 면담을 통해 개인적인 특성 정보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자 A

참여자 A는 뇌 병변장애 3급을 진단받은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40세 어머니이다. 참여자 A는 아들을 원하는 가정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다.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젖도 주지 않고 아랫목에 놔둘 정도로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사소한 일에도 매를 드셨던 무서운 아버지와 자녀들을 귀찮아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서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성장하였다. 참여자 A는 지금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섭고 두려우며 심리적으로 불편해 하고 있다.

2) 참여자 B

참여자 B는 지적장애 1급을 진단받은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43세 어머니이다. 참여자 B는 동생이 태어나면서 몸이 약한 엄마가 자녀 둘을 양육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2살 때부터 외갓집에 맡겨져 자랐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 어린 시절 부모와 따뜻한 사랑과 관심,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참여자는 유기 불안과 심리적인 위축, 불안을 경험하였다. 현재도 부모님과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3) 참여자 C

참여자 C는 지적장애 2급을 진단받은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이다. 참여자 C는 어린 시절 아들을 우선시하는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을 하였으며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늘 눈치를 보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엄마에게 맞추며 살아왔다. 엄마와 오빠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부러운 듯 바라보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지 않는 어머니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다. 현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부모와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할 수 없음에 힘들어 하고 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Y시 소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학령기 발달 장애아를 둔 어머니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관계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주 2회, 회기당 90분씩 실시하고 총 12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대상관계 미술치료 과정의 모든 회기에서 치료사로 직접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미술치료 전 과정을 녹음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미술작품 사진, 축어록, 연구자의 상담일지와 기록 등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4. 연구도구

1) 심리적 안녕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Ryff(1988)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한국판으로 변안한 것을 다시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 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개 하위척도로,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46점에서 230점으로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동적 집 - 나무 - 사람 검사(Kinetic House - Tree - Person: KHTP)

그림 검사로는 KHTP (Kinetic House - Tree - Person)는 Burns(1987)가 개발한 심리진단검사로써 내담자의 정서와 자아에 대한 느낌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내담자의 삶 속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집(House)는 가정에 대한 심상이고 나와 가족의 관계를 의미하며, 나무(Tree)는 자아이며 나와 환경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사람(Person)은 사람에 대한 비극적 이미지와 타인과의 관계 방식을 의미하는데 종래의 HTP에 역동성을 가미함으로써 정서와 자아에 대한 느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경화, 2007).

3) 단계에 따른 회기별 관찰지

본 연구는 대상관계 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떻게 경험되는지 단계에 따라 회기별 관찰하고자 한다. 회기별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하위영역인 자아 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에 대해 관찰하여 질적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5. 대상관계 미술치료 프로그램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한 대상관계 미술치료는 주 1회 60분씩 총 12회기로 진행되었다. 이는 발달 장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시간적인 제약을 고려한 것이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실을 미술치료실로 사용하였으며 참여자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다.

대상관계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아 어머니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자신을 인식하며 치료사와 새로운 대상관계를 경험하여 긍정적 내적 대상을 내면화하며 자아의 재구조화를 통하여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세부적인 목표는 전체 회기 구성을 초기, 중기, 종결의 3단계로

하였으며 회기 구성을 위해 대상관계이론의 집단 미술치료(김순복, 2007; 신아름, 2011; 이미선, 2016; 한성심, 2011)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 및 재구성 하였다. Winnicott(1963)의 정서 발달단계인 절대적 의존기, 상대적 의존기, 독립을 향한 단계로 구성하였다. 대상관계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표 1>과 같다.

<표 1> 대상관계 미술치료프로그램

단계	회기	주제	활동	목표
사전 검사 - KHTP 검사, 심리적 안녕감 척도				
절대적 의존기	1	나의 별명	나의 별명 표현하기	-내면화된 나와 타인의 생각 분리하기
	2	내편은 누구인가?	생태도 그리기	-나의 관계 알아보기
	3	잘지내고 싶은 사람은?	클레이로 표현하기	-과거의 상처받은 나를 이해하기
	4	장애아 가족의 힘든점 표현하기	장애아 가족 상징으 로 표현하기	-장애아 가족의 고통을 이해와 수용하 기
상대적 의존기	5	내 마음을 그대에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	-긍정적 내적표상을 내면화하기
	6	우리 소통해요	가족과의 소통 관계	-나와 타인을 분리하여 인식하기
	7	친구와 나	친구관계 상징 표현	-친구 관계속에서 분리하여 인식하기
	8	믿는다는 것	내가 믿는것의 의미	-타인 이해와 수용하기
	9	좋은 친구가 되려면	친구관계 탐색하기	-친구관계를 탐색, 자율성을 인식하기
독립을 향하여	10	나의 목표는?	현재 내모습, 원하 는 모습 그림카드 찾기	-자아 인식을 통하여 진정한 독립하기
	11	나의 인생그래프	인생그래프 그리기	-과거 현재 미래의 자신을 통합하기
	12	감사장 쓰기	자신에게 상장주기	-독립적인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기
- 사후검사 KHTP 검사, 심리적 안녕감 척도				
- 추수검사 KHTP 검사, 심리적 안녕감 척도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대상관계 미술치료가 발달장애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 척도, 동적 집-나무-사람 검사, 단계에 따른 회기별 변화를 사전 사후 추수로 비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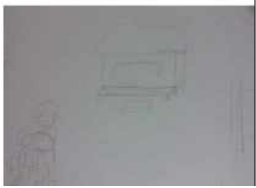
1.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변화

참여자 A, B, C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 사전, 사후, 추수의 결과를 보면 A는 환경에 의한 통제력, 긍정적인 대인관계 영역에서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다른 영역에서는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으며 추수검사에서는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다. 참가자 A의 감소의 원인으로 최근 발달장애 자녀에게 힘든 일이 생겨 참가자 A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감정의 기록이 심하여 안정된 심리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 어머니는 비

장애부모보다 이러한 감정의 기록을 경험할 일이 많으며 급격하게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되고 심리적인 상실함, 허탈감,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고자 자신의 마음을 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B와 C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영역에서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다. 발달장애 어머니로 억압되고 우울한 감정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며 생활하였으나 대상관계 미술치료를 하면서 미술작품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정서가 해소되고 동료 어머니들과 서로 피드백을 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만나고 타인을 분리하며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심리적 안녕감의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다.

2. 동적 집-나무-사람 검사(KHTP)의 변화

<표2> 참여자 A의 KHTP 사전 사후 추수 비교

관찰항목		사전	사후	추수
그림				
그림 설명		가족이 여행을 갔는데 남편은 다시 회사로 출근하였고 딸은 학교에 등교를 하여 자신은 혼자 집에 있음.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서 평상에 누워 함께 웃고 있는 행복하고 편안한 모습이라고 함.	봄날에 꽃이 피어 있고 가족이 함께 꽃밭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 가족이 따뜻한 대화하고 있다고 함.
그림	집	필압이 약하고 집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음.	집을 크기가 크며 필압은 강하여 형태를 명확하게 그림	집의 형태가 안정적인.

	나무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나무의 기둥이 가늘고 수관은 희미하게 그림	절절한 크기로 안정적인 모습임.	선이 조금 흐릿한 모습을 보이고 나무의 수가 증가함
	사람	왼쪽에 치우쳐 있고 희미하며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림.	가족이 모두 함께 있고 모두 누워서 쉬고 있음	가족이 모두 활동을 하고 있고 대화를 하며 사랑을 나누고 행복한 모습을 그림
전체적 분석		필압이 약하고 나무는 형체가 희미하며 생명력이 없어 보임. 혼자 있으며 불안정하고 불만이 있으며 가족과 자신에 대한 존재의 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냄.	필압이 강해졌고 집, 나무, 사람의 형체가 분명함. 집의 크기가 커짐. 가족은 모두 누워서 쉬는 모습으로 심리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모습을 보임.	전체적으로 구조가 안정적임. 가족이 모두 함께 있고 생산적인 일을 하며 행복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임.

<표3> 참여자 B의 KHTP 사전 사후 추수 비교

관찰항목		사전	사후	추수
그림				
그림 설명		10년 후의 자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함. 잔디에 물을 주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기대한다고 함. 가족은 모두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함.	의자에 누워 편안히 책을 보고 있는 모습. 힘들었던 일과를 마치고 쉬고 있는 모습이며 장애아 육아로 지친 자신에게 쉼을 주고 싶다고 표현함.	사람들이 모여 공부하고 토론하며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표현함. 자기실현의 욕구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며 자신이 목적인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임.
그림	집	현대적인 높은 건물의 집, 높고 큰 모습이며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창문이 작은 크기로 그림.	집의 크기는 보통이며 지면선이 강조되었고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음. 작은 창문들이 여러 개 있음.	집의 크기는 안정적이며 지면선이 낮아지고 창문과 출입문이 안정적임.
	나무	가느다랗고 왼쪽으로 휘어져 있는 나무를 그림	오른쪽에 약간 휘뒤틀린 모습이고 열매가 있으며 나무의 크기가 커 종이 밖으로 나감.	나무의 기둥이 안정적으로 쪽 뺏어있고 수관이 적절함.

	사람	사람의 크기가 작고 옆모습이며 혼자 있는 그림을 그림.	누워서 쉬고 있는 그림	활동적으로 지인들과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전체적 분석		크고 높은 집, 휘어진 나무, 지면선 강조, 사람의 옆모습은 불만이 있고 불안하며 현재 불안정한 내담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음.	기울어진 집, 작은 창문, 지면선 강조,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모습이 보임.	집, 나무, 사람의 구조가 안정적임. 사람들이 토론을 하며 자기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임.

<표4> 참여자 C의 KHTP 사전 사후 추수 비교

관찰항목		사전	사후	추수
그림				
그림 설명		부모님은 일하러 나가셨고 오빠는 학교에 감. 집에서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을 그림. 외롭고 쓸쓸해 보임.	미래에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에서 전문가가 되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	가족이 모두 모여 푸른 들판에서 놀고 있는 모습.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
그림	집	그림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이나 벽이 길고 불안정한 모습임	집의 크기가 매우 크고 집안에 사람을 그려 넣은 모습임	왼쪽에 위치해 있고 크기, 창문, 현관문 안정적임.
	나무	왼쪽에 치우쳐 있고 크기가 큼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크기가 매우 큼	기둥이 굵고 곧은 모습
	사람	혼자 있고 외롭고 쓸쓸해 보임	자신의 직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	가족이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냄
전체적 분석		어린 시절부터 가족 안에서 따뜻한 정서적 경험이 없고 긍정적 상호작용이 없는 참여자의 욕구가 반영됨.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하면서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자기실현의 욕구를 반영함.	장애아 가족을 수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 가족 안에서 인정받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욕구를 반영함.

3. 회기 및 단계별 질적 변화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변화를 중심으로 Winnicott(1963)의 정서 발달단계를 근거로 회기와 단계별 질적 분석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참여자 A.

(1) 절대적 의존기 (1~4회기)

1회기 ‘나의 별명은’이라는 주제로 자아수용의 영역에서는 어머니와 주위 사람들이 심어준 부정적인 별명과 이미지를 내면화하여 나와 타인을 분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 3회기 ‘나와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은’ 주제로 긍정적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어린 시절 엄마에게 많이 맞았던 경험, 타인과 늘 비교를 하던 경험으로 현재도 엄마와의 관계가 불편함을 호소하며 현재의 대인관계에서도 타인의 시선을 살피고 맞추는 자신이 싫다고 하며 사랑 받고 싶은 마음을 하트로 표현함.

(2) 상대적 의존기 (5~9회기)

5회기 ‘내 마음을 그대에게’ 주제로 자아수용의 영역은 부모와 자신을 분리하면서 부모님은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았지만, 자신은 자신을 사랑해 주어야겠다고 함. 부모님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함. 8회기 늘 타인의 눈치와 시선보다는 자기 삶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며 타인을 분리된 대상으로 인식함.

(3) 독립을 향하여(10~12회기)

11회기 ‘나의 인생 그래프’ 주제로 자아수용의 영역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인생을 잘 살아서 죽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하며 참자기의 모습을 표현함.

2) 참여자 B.

(1) 절대적 의존기 (1~4회기)

1회기 ‘나의 별명은’ 주제로 자아 영역과 삶의 목적 영역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고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자신에 대한 감각이 없음. 2회기 ‘나의 편은 누구인가’에서 장애아 엄마가 된 자신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잘나가던 회사원 시절의 나와 장애아 엄마가 된 내가 혼란스럽고 복잡하다고 함. 3회기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은’ 주제로 자아 수용 영역은 어린 시절 유기불안을 경험했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표현하며 혼란스러워하고 4회기 ‘사회가 보는 장애가 가족’ 주제로 사회가 보는 장애인에 대한 시선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함.

(2) 상대적 의존기 (5~9회기)

6회기 ‘우리 소통해요’ 주제로 남편에 대한 자신의 내적인 통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나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함. 7회기 삶의 목적 주제로 긍정적 대인관계 영역에서 또래 친구들이 즐겁게 놀면서 협동하는 모습을 표현하며 타인에 대해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이며 어린 시절의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던 모습에서 나와 타인을 분리된 대상으로 인식함.

(3) 독립을 향하여 (10~12회기)

10회기 ‘나의 인생 목표’ 주제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구체적으로 불의한 일을 참지 않으며 옳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였고 11회기 ‘나의 인생 그래프’ 주제로 환경에 대한 통제력 영역에서 자녀의 장애로 인해 좌절과 극복, 내려놓음, 회복, 발전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함. 12회기 ‘감사장 쓰기’ 주제로 환경에 대한 통제력 영역에서 장애아 어머니라는 것에 개의치

않고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음.

3) 참여자 C.

(1) 절대적 의존기 (1~4회기)

1회기 ‘나의 별명은’ 주제로 자기수용 영역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별명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타인의 말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 4회기 ‘사회가 보는 장애인 가족’ 주제로 환경에 대한 통제력 영역에서 갑자기 장애아의 부모가 되고 장애아를 둔 가족이 되면서 혼란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워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임.

(2) 상대적 의존기 (5~9회기)

6회기 ‘우리 소통해요’ 주제로 자아수용 영역에서 딸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하면서 딸의 모습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딸을 미워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 자신과 딸을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됨. 9회기 ‘좋은 친구가 되려면’ 주제로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먼저 말해주고 자신을 이끌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함. 자율성 영역에서 친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결정하지 못하는 나를 인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함.

(3) 독립을 향하여 (10~12회기)

11회기 ‘나의 인생 그래프’ 주제로 장애인 부모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과 같은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에 대해 새롭게 경험하고 인식하며 자기가 강화된 모습을 보임. 12회기 ‘감사장 쓰기’에서 장애인 부모로 살아온 자신을 격려하고 수용하며 장애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고 함.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상관계 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떻게 경험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자녀와의 관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신의 초기 대상관계와 자녀와의 대상관계를 이해하여 발달장애아의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대상관계 미술치료는 학령기 발달장애아를 둔 어머니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주 2회, 90분씩 총 12회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발달장애아 어머니가 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고통의 원인으로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대상관계 결핍으로 보고 대상관계 미술치료를 적용하여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떻게 경험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관계 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떻게 경험되는지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관계 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경험을 심리적 안녕감 척도로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아 어머니들은 자신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부분에서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장애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된 (김보라, 2015)의 연구와 일치한다. 참여자 B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때 ‘머리 아프다’,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없다’, ‘작품 활동을 못하겠다’ 등의 말을 했는데 대상관계 집단미술치료를 진행하면서 ‘나는 이성적이어서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불편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벽을 만들고 있었다’, ‘나

는 외롭고 버려진 것 같은 나를 알아가는게 무서웠고 보기 힘든 부분이었다' 라고 말을 하였다. 대상관계 집단미술치료를 진행하면서 부모와의 초기 대상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을 이해하며 수용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참여자 C는 자율성 11점 상승, 개인적 성장 6점 상승하였다. 이것은 부모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이 자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유미(2012)의 연구와 일치한다. 참여자 A는 심리적 안녕감 척도 하위영역중 환경에 의한 통제력과 긍정적 대인관계에서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었고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참여자 A는 자녀의 장애 특성으로 불특정의 사건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학교에서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하루에도 여러번 일어나면서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통제하는게 힘들다고 이야기 하며 대상관계 미술치료 사전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회복이 어려웠으나 집단미술치료 사후에는 회복하는 기간이 빨라졌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기제로 마음을 열고 변화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 어머니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이 미술치료 활동을 하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던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아를 양육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경험하던 장애아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관계가 자신의 초기 대상관계의 결핍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고 자신과 장애아 어머니라는 존재 속에서 분별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움 속에 있던 발달장애아 어머니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의 개체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대상관계 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변화를 동적 집-나무-사

람 그림 검사를 통해 질적 분석한 결과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그림에서 필압이 강해지고 그림의 형태가 명확해졌으며 휘어지고 구부러지며 불안정한 그림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혼자 외롭게 있던 그림에서 가족과 지인이 함께 생산적인 일을 하는 모습과 자아실현을 이루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림의 변화는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못하던 절대적 의존기에서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고 통합하는 상대적 의존기, 독립을 향해 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KHTP 그림이 에너지가 상승하고 환경을 통제하는 부분이 향상되었다고 한 이연미(2013)의 연구와 나무 그림의 안정된 변화는 창조적인 양육을 상징한다는 김동연(1994)의 연구와 일치한다.

셋째, 대상관계 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변화를 단계에 따른 회기별 관찰지의 분석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대상관계 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회기 '나의 별명은'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2회기 '내편은 누구인가', 3회기 '잘 지내고 싶은 사람'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의 초기 대상관계를 생각해 보고 대상관계의 결핍에 대해 미술활동과 언어로 표현하고 집단원들의 공감과 피드백을 들으며 자신의 결핍된 대상관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6회기 '우리 소통해요', 7회기 '친구와 나', 8회기 '믿는다는 것' 프로그램에서 나와 타인의 존재를 분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결핍된 대상관계를 채운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대상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아픔을 준 미운 존재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결핍된 대상관계를 경험한 부모님의 존

재를 이해하게 되었다. 10회기 나의 목표는?, 11회기 인생 그래프를 작성해 보면서 한 존재로서 나를 인식하며 자아 성장을 하는 자기 모습을 만나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는 발달장애아 어머니가 발달장애 자녀와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자신의 대상관계를 이해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 어머니 3명을 대상으로 12회기로 진행되었다. 또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환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발달장애아 어머니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발달장애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발달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진행하였는데 장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가족들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부부상담, 가족치료, 비장애 자녀에 대한 상담도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상담이 병행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곽경화·정현희 (2010). 발달장애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수용개선을 위한 인지행동적용 집단미술치료. *美術治療研究* 17(4), 793-810.
- 김경화 (2007).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빈곤가정 아동의 정서지능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연 (1994).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국립 특수교육원
- 김명소·김혜원·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유미 (2012). **장애아동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이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 (2001).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연구** 2(2), 327-343
- 김순복 (2007). **집단미술심리치료가 정서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Winnicott 정서발달이론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예라 (2015). **지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아름 (2011).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인터넷중독 개선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 Winnicott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근매·서화자 (2002). 집단미술치료가 발달지체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정서적인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정서 행동장애 연구** 18(1).
- 이미선 (2016). **대상관계 미술치료가 발달지체아동의 인지 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사이버대학교 휴먼케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미 (2013). **집단미술치료를 경험한 유아의 정서지능 변화와 KHTP 변화의 상관성 연구**.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진 (2005). **자아성장 집단미술치료가 발달장**

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모-자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임지향·김선미 (2003). 가족미술치료가 정신지체학생 어머니와 비장애 형제의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0(2), 273-296
- 장미자 (1998). **애착의 세대 간 전이 :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애착의 세대 간 전이.**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전경희 (2004).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갈선아 (2014). 섬유염색공예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0(3), 63-86
- 최은영·정미영 (2020). 마음챙김 미술치료 관련 문헌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9(1), 359-383.
- 한성심 (2011). **대상관계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Honer. A.J., 1984, *Object Relations and the Developing Ego in Therapy*, Jason Aronson, New Jersey
- Malchiodi, C. A. (1999). *Medical art therapy with children*. London; New York: Harrington Park press. 7-14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1069-1081.

<Abstract>

Object Relation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Mother with Developmental Children art therapy Case Study

Lee, Jin Ok
Ha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bject relations art therapy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ubjects of the study consisted of three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voluntarily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after reading the notice on participation in the study from the Y City Family Support Center for the Disabled. This program was conducted in 12 sessions, 90 minutes each, twice a week.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object relations art therapy program, the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was analyzed by total score and subdomains at pre, post, and follow-up. The pre-, post-, and follow-up of the KHTP picture test were qualitatively analyzed, and changes by session according to Winnicott's (1963) emotional development stages were qualitatively analyzed through observation sheets.

As a result of the study, participants A, B, and C were able to predict an increase in psychological well-being. It was possible to predict the positive impact of the KHTP picture test. It could be predicted that changes in each session depending on the stage would also have a positive impact. Through these results, it was possible to predict that the object relations art therapy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ey Words : *Object relational group art therapy, Psychological well-being, Mother of disabled child.*

2023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오 영 금¹⁾

I. 서론

신입생들은 대학입학을 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의존적이고 통제된 환경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고 주체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지면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신입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도 생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다양한 과제로 인해 갈등과 혼란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과 세상에 대해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4년간의 대학 생활을 통해 부모로부터의 독립, 능동적인 학업 성취, 성숙한 대인관계 형성,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취업 준비 등의 과업이 따르게 된다. 과업의 달성을 위해 깊이 있는 자기 이해와 자기수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인관계 형성과 적응적 대학 생활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능력을 키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입생의 적응적인 대학생활과 학업 성취를 돕고자 대학 차원의 정책, 지원, 교육을 위해 신입생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매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개인별·가정환경 특성, 대학생활 및 학업 관련, 진로 및 직업, 정신건강 영역, 학생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 관련 사항을 알아보는 신입생 실태조사를 한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사정책 수립, 효과적인 교육과정 편성, 학생상담과 지도, 학생들의 복지, 학생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새로운 교육 환경,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학생들이 진로, 학업, 관계 문제로 심리적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해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1)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학과 석사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설문조사는 2023학년도 한세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435명의 반응이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체 신입생(03월 31일 기준) 603명의 약 72%에 해당한다. 응답자의 성별 구성 및 학부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2. 조사 도구 및 내용

본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도구는 2022년 신입생 실태조사에서 사용했던 설문지를 현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신입생의 개인별 특성, 가정환경, 대학 생활 및 학업, 진로 및 직업 관련, 정신건강 영역, 그리고 학생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 관련 문항으로 6개 영역에 걸쳐,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의 주된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특성 :

- | | | |
|---------------|----------------------|------------|
| (1) 학부 | (2) 성별 | (3) 연령 |
| (4) 출신 고교 소재지 | (5)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 | (6) 본인의 종교 |

2) 가정환경 특성 :

- | | | |
|--------------|----------------|-----------------|
| (1) 가정 경제 수준 | (2) 등록금 부담 예정자 | (3) 대학입학 후 주거형태 |
|--------------|----------------|-----------------|

3) 대학 생활 및 학업 관련 :

- | | |
|-----------------------------------|--------------------|
| (1) 대학진학의 목적 | (2) 본교 선택 이유 |
| (3) 본교를 알게 된 경로 | (4) 본교 입학에 만족 여부 |
| (5) 본교 입학에 불만족의 이유 | (6) 불만족 시 향후 계획 |
| (7) 전공학부의 교육과정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정도 | |
| (8) 전공학부 선택 시 결정적 요인 | (9) 전공학부의 지원 결정 시기 |
| (10) 전공학과 선택 시 학교에서 제공받기 원하는 지원내용 | |
| (11) 다전공의 이수용의 | (12) 교수에게서 기대하는 것 |
| (13) 대학생활에 기대하는 경험 | |

4) 진로 및 직업 관련 :

- | | |
|-------------------------|-------------------------|
| (1)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 (2) 직업 선택 시 제일 우선 고려할 것 |
| (3) 취업 관련 학교에 가장 원하는 지원 | (4) 대학 생활 중 가장 걱정되는 것 |
| (5)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 |

5) 정신건강 영역 :

- | | |
|------------------------------|---------------------|
| (1) 외로움을 경험한 정도 | (2) 불안을 경험한 정도 |
| (3) 분노를 경험한 정도 | (4) 우울, 무기력을 경험한 정도 |
| (5) 자해 충동을 경험한 정도 | (6) 자해 충동의 원인 |
| (7)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정도 | (8) 자살 생각의 이유 |
| (9) 자살 충동 시 대처방식 | (10) 자살 충동 시 진행 정도 |
| (11)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과도한지 정도 | |
| (12) 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 (13) 스마트폰 사용의 주된 용도 |
| (14) 규칙적인 운동 여부 | (15) 삶의 만족도 |
| (16) 삶에 대한 기대치 | (17) 행복한 삶의 기준 |

6) 학생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 관련:

- | | |
|--------------------------------|-----------------------------|
| (1)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 |
| (2) 학생상담센터 이용 여부 | (3) 학생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서비스 |
| (4) 상담받고 싶은 문제 | (5)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인식 정도 |
| (6)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인식 정도 | |
| (7)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의 경험 정도 | (8)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대처 방법 |
| (9) 성교육을 통해 가장 알고 싶은 것 | |

3. 조사 기간 및 절차

본 조사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정에 따라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는 2022년 2월 16일, 2차는 2022년 3월 14일 진행되었다. 설문 작성 절차는 대면 설문지 배포의 어려움으로 인해 구글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신입생에게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Raw Data)는 IBM SPSS Statistics 21을 활용하여 문항별 반응 빈도와 성별, 학부별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개인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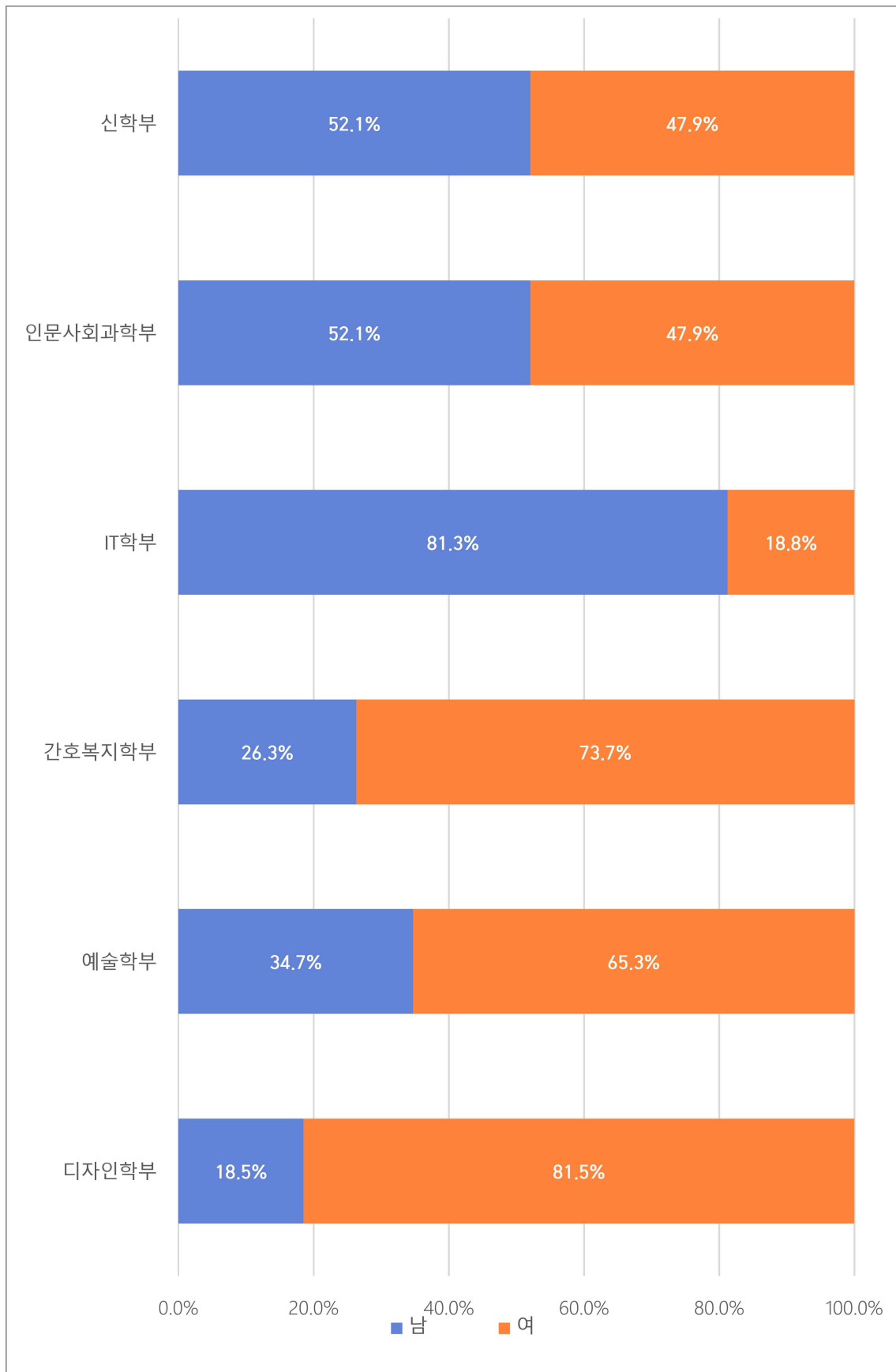
1) 성별 분포

신입생 전체 응답자 435명 중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한 학부는 인문사회과학부(1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참여율은 표와 같이 남학생 41.4%, 여학생 58.2%, 기타 0.5%의 참여율을 보였다. 전년도 비율(남녀 각각 35.4%, 66.4%)과 비교했을 때 여학생의 비율이 낮아진 반면, 남학생의 비율은 다소 높아졌다. 학부별 남녀비율을 보면, 남학생은 IT학부(81.3%)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신학부와 인문사회과학부(52.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부는 디자인학부(81.5%), 간호복지학부(73.7%), 예술학부(65.3%) 순이었다.

<표 1> 성별 분포

단위: 명, %

	남	여	제3의 성	전체
신학부	25	23	0	48
	52.1%	47.9%	0.0%	100%
인문사회과학부	58	107	2	167
	52.1%	47.9%	0.0%	100%
IT학부	52	12	0	64
	81.3%	18.8%	0.0%	100%
간호복지학부	15	42	0	57
	26.3%	73.7%	0.0%	100%
예술학부	25	47	0	72
	34.7%	65.3%	0.0%	100%
디자인학부	5	22	0	27
	18.5%	81.5%	0.0%	100%
전체	180	253	2	435
	41.4%	58.2%	0.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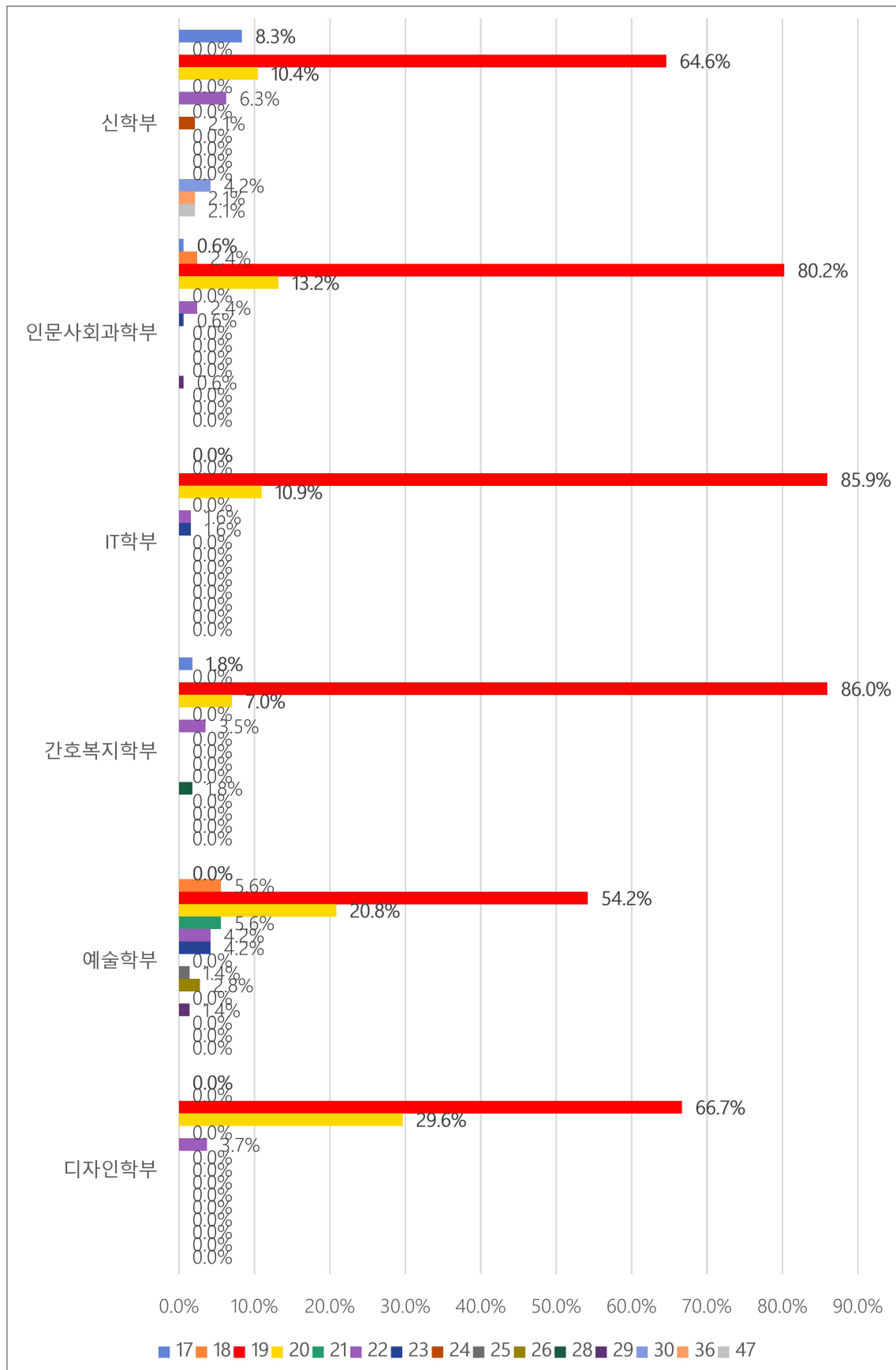
2) 연령 분포

2023학년도 신입생들의 연령 분포를 확인한 결과 만 19세(74.9%)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만 20세(14%), 22세(30.2%) 순이며, 36세와 47세의 신입생이 각각 한 명이 있는 특이점을 보였다. 만 19세인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간호복지학부(86.0%), IT학부(85.9%), 인문사회과학부(80.2%)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만 18세에 해당하는 남학생(77.2%)이 여학생(73.5%)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연령 분포

단위: 명,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6	47	전체
남	2	1	139	22	1	6	3	1	1	2	1	1	0	0	0	134
	1.1%	0.6%	77.2%	12.2%	0.6%	3.3%	1.7%	0.6%	0.6%	1.1%	0.6%	0.6%	0.0%	0.0%	0.0%	100%
여	4	6	186	39	3	8	2	0	0	0	0	1	2	1	1	244
	1.6%	2.4%	73.5%	15.4%	1.2%	3.2%	0.8%	0.0%	0.0%	0.0%	0.0%	0.4%	0.8%	0.4%	0.4%	100%
제3의 성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1
	0.0%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신학부	4	0	31	5	0	3	0	1	0	0	0	0	2	1	1	43
	8.3%	0.0%	64.6%	10.4%	0.0%	6.3%	0.0%	2.1%	0.0%	0.0%	0.0%	0.0%	4.2%	2.1%	2.1%	100%
인문 사회 과학부	1	4	134	22	0	4	1	0	0	0	0	1	0	0	0	92
	0.6%	2.4%	80.2%	13.2%	0.0%	2.4%	0.6%	0.0%	0.0%	0.0%	0.0%	0.6%	0.0%	0.0%	0.0%	100%
IT학부	0	0	55	7	0	1	1	0	0	0	0	0	0	0	0	55
	0.0%	0.0%	85.9%	10.9%	0.0%	1.6%	1.6%	0.0%	0.0%	0.0%	0.0%	0.0%	0.0%	0.0%	0.0%	100%
간호 복지 학부	1	0	49	4	0	2	0	0	0	0	1	0	0	0	0	67
	1.8%	0.0%	86.0%	7.0%	0.0%	3.5%	0.0%	0.0%	0.0%	0.0%	1.8%	0.0%	0.0%	0.0%	0.0%	100%
예술 학부	0	4	39	15	4	3	3	0	1	2	0	1	0	0	0	37
	0.0%	5.6%	54.2%	20.8%	5.6%	4.2%	4.2%	0.0%	1.4%	2.8%	0.0%	1.4%	0.0%	0.0%	0.0%	100%
디자인 학부	0	0	18	8	0	1	0	0	0	0	0	0	0	0	0	85
	0.0%	0.0%	66.7%	29.6%	0.0%	3.7%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전체	6	8	326	61	4	14	5	1	1	2	1	2	2	1	1	379
	1.4%	1.8%	74.9%	14.0%	0.9%	3.2%	1.1%	0.2%	0.2%	0.5%	0.2%	0.5%	0.5%	0.2%	0.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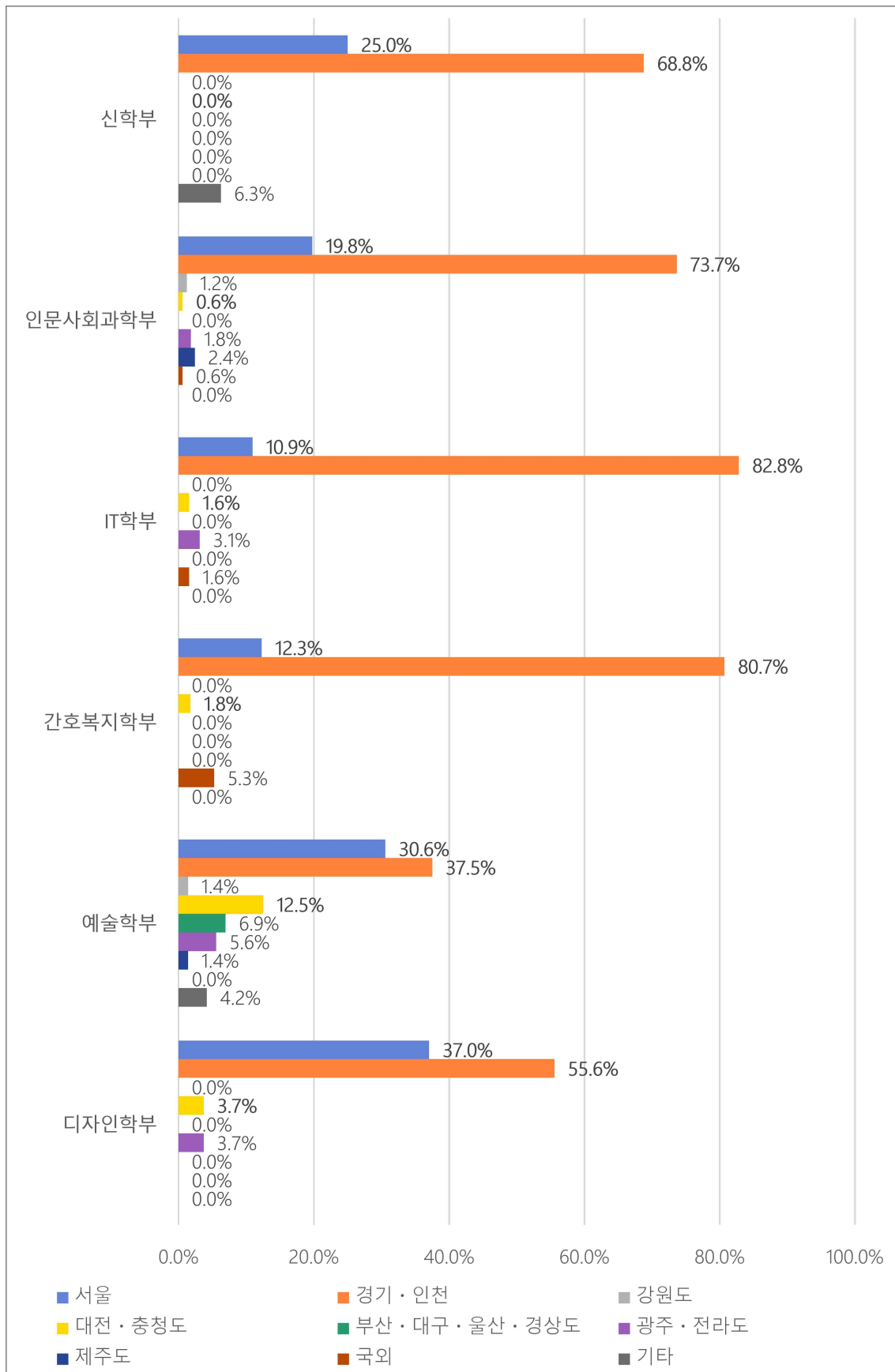
3) 출신고교 소재지

신입생들의 출신고교 지역은 경기, 인천지역이 6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서울(20.9%), 대전·충청도(3.0%)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지역 출신은 IT학부(82.8%), 간호복지학부가(80.7%), 인문사회과학부(73.7%)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 서울 출신은 디자인학부(37.0%), 예술학부(30.6%), 신학부(25.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68.4%, 남학생의 67.8%가 경기·인천지역 고교출신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 출신고교 소재지

단위: 명, %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대전, 충청도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	광주, 전라도	제주도	국외	기타	전체
남	32	122	3	6	3	6	3	2	3	180
	17.8%	67.8%	1.7%	3.3%	1.7%	3.3%	1.7%	1.1%	1.7%	100.0%
여	59	173	0	7	2	4	2	3	3	253
	23.3%	68.4%	0.0%	2.8%	0.8%	1.6%	0.8%	1.2%	1.2%	100.0%
제3의 성	0	2	0	0	0	0	0	0	0	2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12	33	0	0	0	0	0	0	3	48
	25.0%	68.8%	0.0%	0.0%	0.0%	0.0%	0.0%	0.0%	6.3%	100.0%
인문사회 과학부	33	123	2	1	0	3	4	1	0	167
	19.8%	73.7%	1.2%	0.6%	0.0%	1.8%	2.4%	0.6%	0.0%	100.0%
IT학부	7	53	0	1	0	2	0	1	0	64
	10.9%	82.8%	0.0%	1.6%	0.0%	3.1%	0.0%	1.6%	0.0%	100.0%
간호복지 학부	7	46	0	1	0	0	0	3	0	57
	12.3%	80.7%	0.0%	1.8%	0.0%	0.0%	0.0%	5.3%	0.0%	100.0%
예술학부	22	27	1	9	5	4	1	0	3	72
	30.6%	37.5%	1.4%	12.5%	6.9%	5.6%	1.4%	0.0%	4.2%	100.0%
디자인학부	10	15	0	1	0	1	0	0	0	27
	37.0%	55.6%	0.0%	3.7%	0.0%	3.7%	0.0%	0.0%	0.0%	100.0%
전체	91	297	3	13	5	10	5	5	6	435
	20.9%	68.3%	0.7%	3.0%	1.1%	2.3%	1.1%	1.1%	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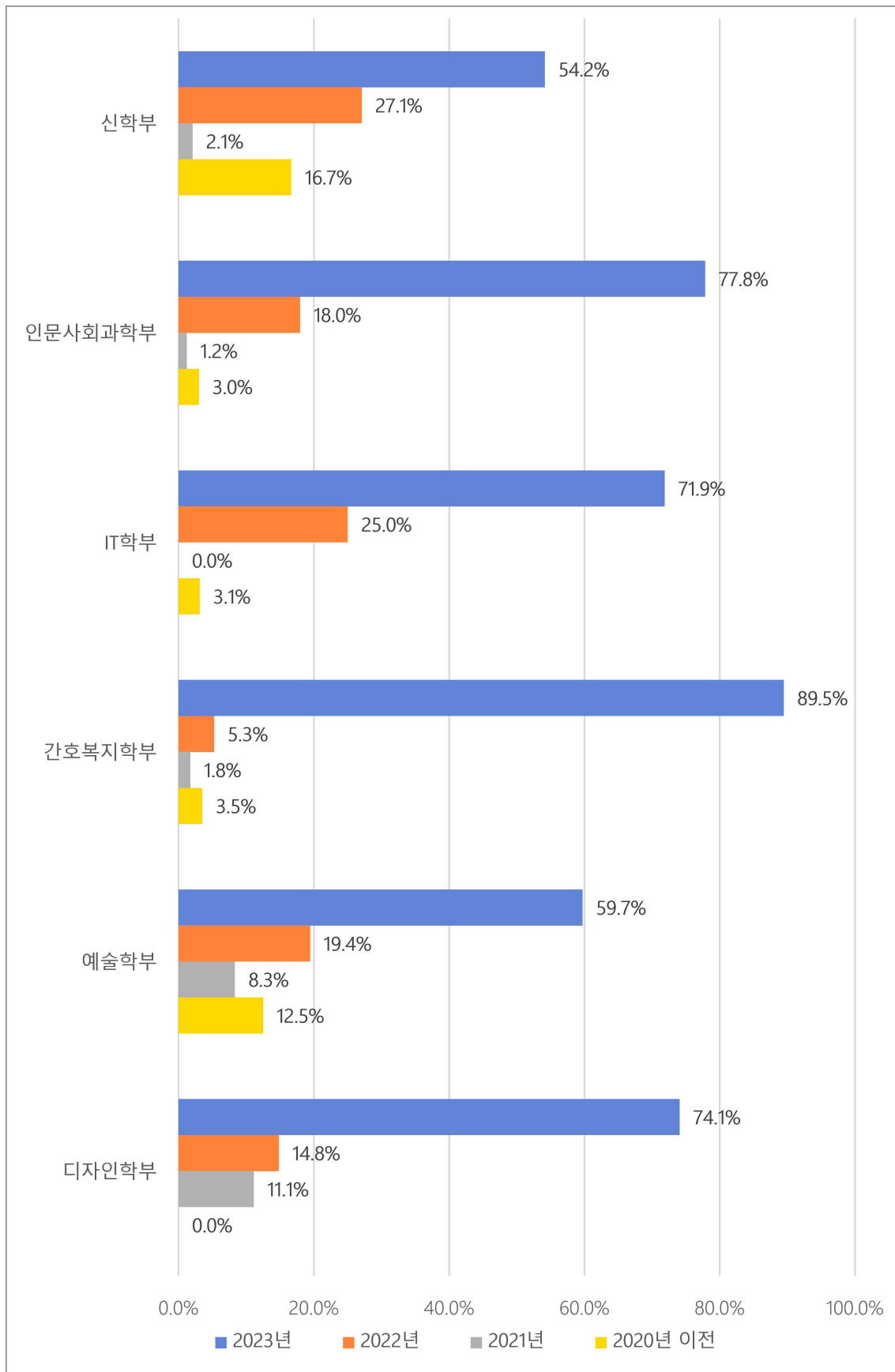
4)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

신입생들의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는 2023년도가 72.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22년(18.4%), 2020년 이전(6.0%) 순이다. 2023년도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간호복지학부(89.5%), 인문사회과학부(77.8%), 디자인학부(74.1%) 순이며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 75.1%, 남학생 68.9%로 나타났다.

<표 4>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

단위: 명, %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이전	전체
남	124	40	1	15	180
	68.9%	22.2%	0.6%	8.3%	100.0%
여	190	40	12	11	253
	75.1%	15.8%	4.7%	4.3%	100.0%
제3의 성	2	0	0	0	2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26	13	1	8	48
	54.2%	27.1%	2.1%	16.7%	100.0%
인문사회과학부	130	30	2	5	167
	77.8%	18.0%	1.2%	3.0%	100.0%
IT학부	46	16	0	2	64
	71.9%	25.0%	0.0%	3.1%	100.0%
간호복지학부	51	3	1	2	57
	89.5%	5.3%	1.8%	3.5%	100.0%
예술학부	43	14	6	9	72
	59.7%	19.4%	8.3%	12.5%	100.0%
디자인학부	20	4	3	0	27
	74.1%	14.8%	11.1%	0.0%	100.0%
전체	316	80	13	26	435
	72.6%	18.4%	3.0%	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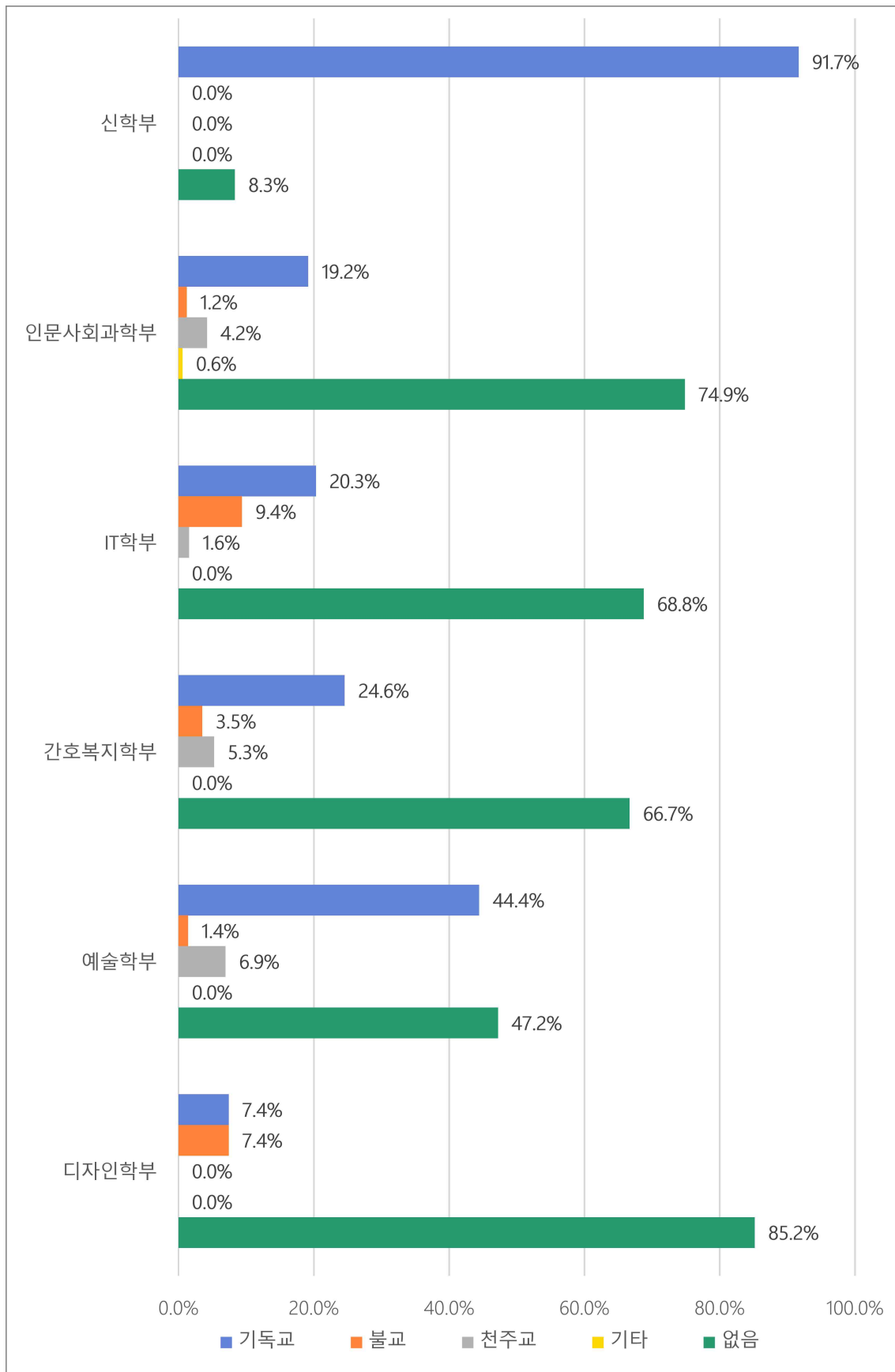
5) 본인의 종교

신입생들의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없음의 응답 비율이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독교(31.5%), 천주교(3.7%)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의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학부(85.2%)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인문사회과학부(74.9%), IT학부(68.8%) 순이고 신학부생의 91.7%, 예술학부생의 44.4%는 기독교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63.3%, 여학생 60.5%가 무교라고 응답하였다.

<표 12> 본인의 종교

단위: 명, %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없음	전체
남	53	8	4	1	114	180
	29.4%	4.4%	2.2%	0.6%	63.3%	100.0%
여	84	5	11	0	153	253
	33.2%	2.0%	4.3%	0.0%	60.5%	100.0%
제3의 성	0	0	1	0	1	2
	0.0%	0.0%	50.0%	0.0%	50.0%	100.0%
신학부	44	0	0	0	4	48
	91.7%	0.0%	0.0%	0.0%	8.3%	100.0%
인문사회과학부	32	2	7	1	125	167
	19.2%	1.2%	4.2%	0.6%	74.9%	100.0%
IT학부	13	6	1	0	44	64
	20.3%	9.4%	1.6%	0.0%	68.8%	100.0%
간호복지학부	14	2	3	0	38	57
	24.6%	3.5%	5.3%	0.0%	66.7%	100.0%
예술학부	32	1	5	0	34	72
	44.4%	1.4%	6.9%	0.0%	47.2%	100.0%
디자인학부	2	2	0	0	23	27
	7.4%	7.4%	0.0%	0.0%	85.2%	100.0%
전체	137	13	16	1	268	435
	31.5%	3.0%	3.7%	0.2%	61.6%	100.0%



2. 가정환경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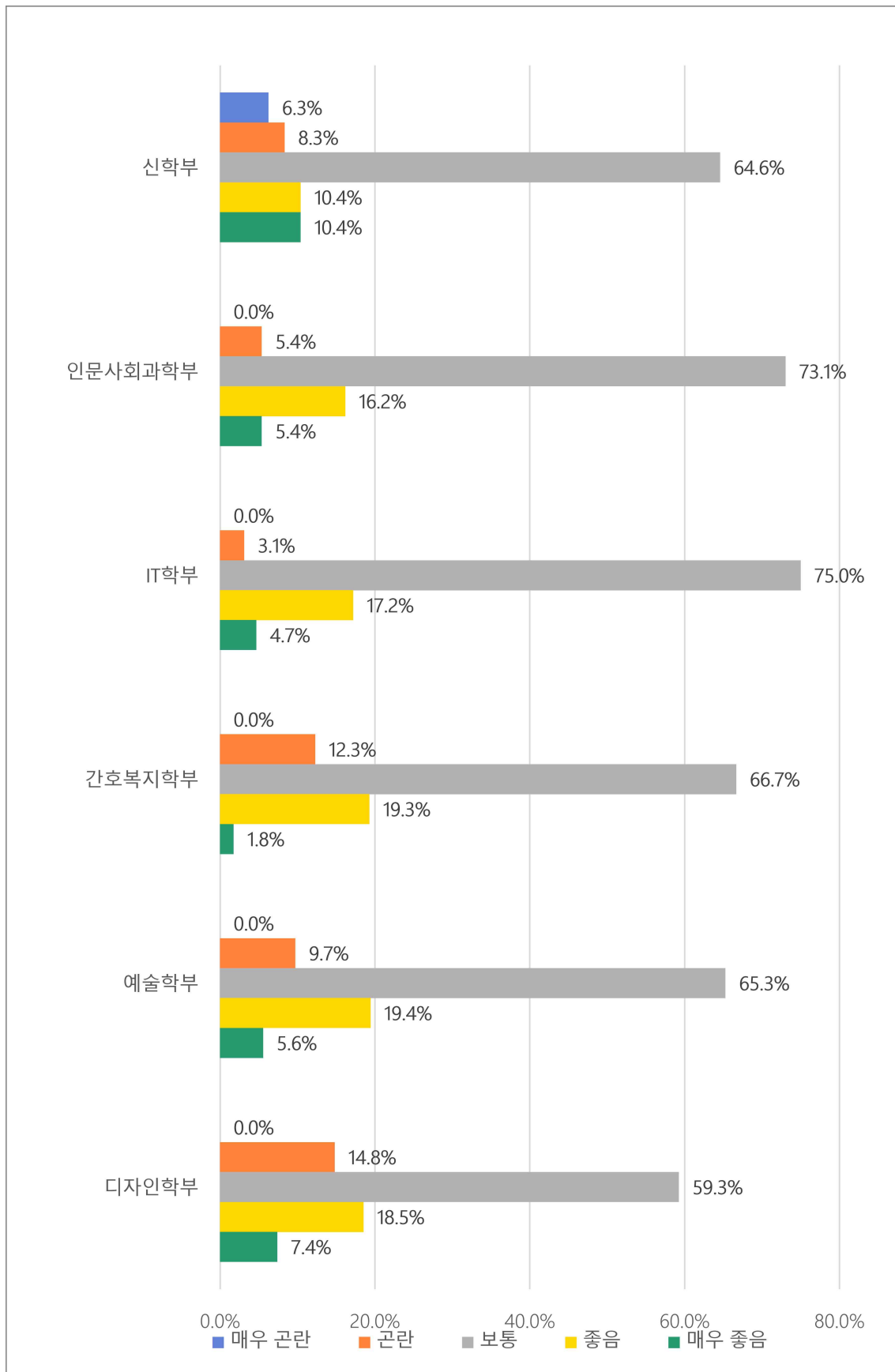
1) 가정 경제 수준

신입생들은 본인의 가정 경제 수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9.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좋음(16.8%), 곤란(7.6%) 순이었다.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75.0%), 인문사회과학부(73.1%), 간호복지학부(66.7%)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72.8%, 여학생 66.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6> 가정 경제 수준

단위: 명, %

	매우 곤란	곤란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전체
남	1	12	131	25	11	180
	0.6%	6.7%	72.8%	13.9%	6.1%	100.0%
여	2	21	169	48	13	253
	0.8%	8.3%	66.8%	19.0%	5.1%	100.0%
제3의 성	0	0	2	0	0	2
	0.0%	0.0%	100.0%	0.0%	0.0%	100.0%
신학부	3	4	31	5	5	48
	6.3%	8.3%	64.6%	10.4%	10.4%	100.0%
인문사회과학부	0	9	122	27	9	167
	0.0%	5.4%	73.1%	16.2%	5.4%	100.0%
IT학부	0	2	48	11	3	64
	0.0%	3.1%	75.0%	17.2%	4.7%	100.0%
간호복지학부	0	7	38	11	1	57
	0.0%	12.3%	66.7%	19.3%	1.8%	100.0%
예술학부	0	7	47	14	4	72
	0.0%	9.7%	65.3%	19.4%	5.6%	100.0%
디자인학부	0	4	16	5	2	27
	0.0%	14.8%	59.3%	18.5%	7.4%	100.0%
전체	3	33	302	73	24	435
	0.7%	7.6%	69.4%	16.8%	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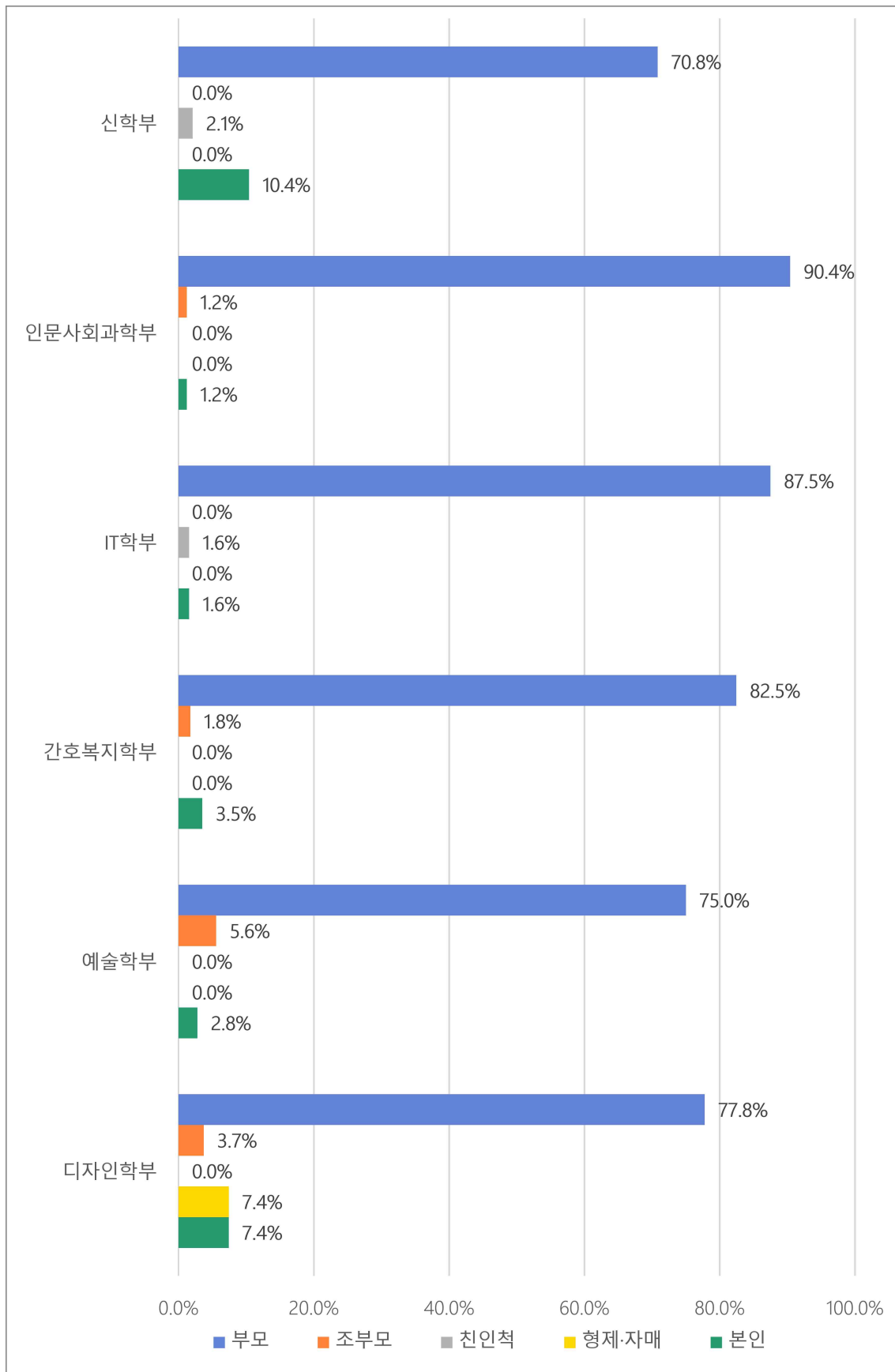
2) 등록금 부담 예정자

신입생의 등록금 부담 예정자를 알아보면, 전체 응답자의 83.4%가 부모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은 장학금(7.1%), 본인(3.2%)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부모라는 응답비율을 보면 인문사회과학부(90.4%), IT학부(87.5%), 간호복지학부(82.5%) 순으로 확인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85.6%, 여학생 81.8%로가 부모님이 등록금을 부담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등록금 부담 예정자

단위: 명, %

	부모	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본인	대출	장학금	기타	전체
남	154	0	2	0	4	8	11	1	180
	85.6%	0.0%	1.1%	0.0%	2.2%	4.4%	6.1%	.6%	100.0%
여	207	8	0	2	10	5	20	1	253
	81.8%	3.2%	0.0%	0.8%	4.0%	2.0%	7.9%	0.4%	100.0%
제3의 성	2	0	0	0	0	0	0	0	2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34	0	1	0	5	1	7	0	48
	70.8%	0.0%	2.1%	0.0%	10.4%	2.1%	14.6%	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51	2	0	0	2	4	8	0	167
	90.4%	1.2%	0.0%	0.0%	1.2%	2.4%	4.8%	0.0%	100.0%
IT학부	56	0	1	0	1	2	3	1	64
	87.5%	0.0%	1.6%	0.0%	1.6%	3.1%	4.7%	1.6%	100.0%
간호복지 학부	47	1	0	0	2	1	5	1	57
	82.5%	1.8%	0.0%	0.0%	3.5%	1.8%	8.8%	1.8%	100.0%
예술학부	54	4	0	0	2	5	7	0	72
	75.0%	5.6%	0.0%	0.0%	2.8%	6.9%	9.7%	0.0%	100.0%
디자인학부	21	1	0	2	2	0	1	0	27
	77.8%	3.7%	0.0%	7.4%	7.4%	0.0%	3.7%	0.0%	100.0%
전체	363	8	2	2	14	13	31	2	435
	83.4%	1.8%	0.5%	0.5%	3.2%	3.0%	7.1%	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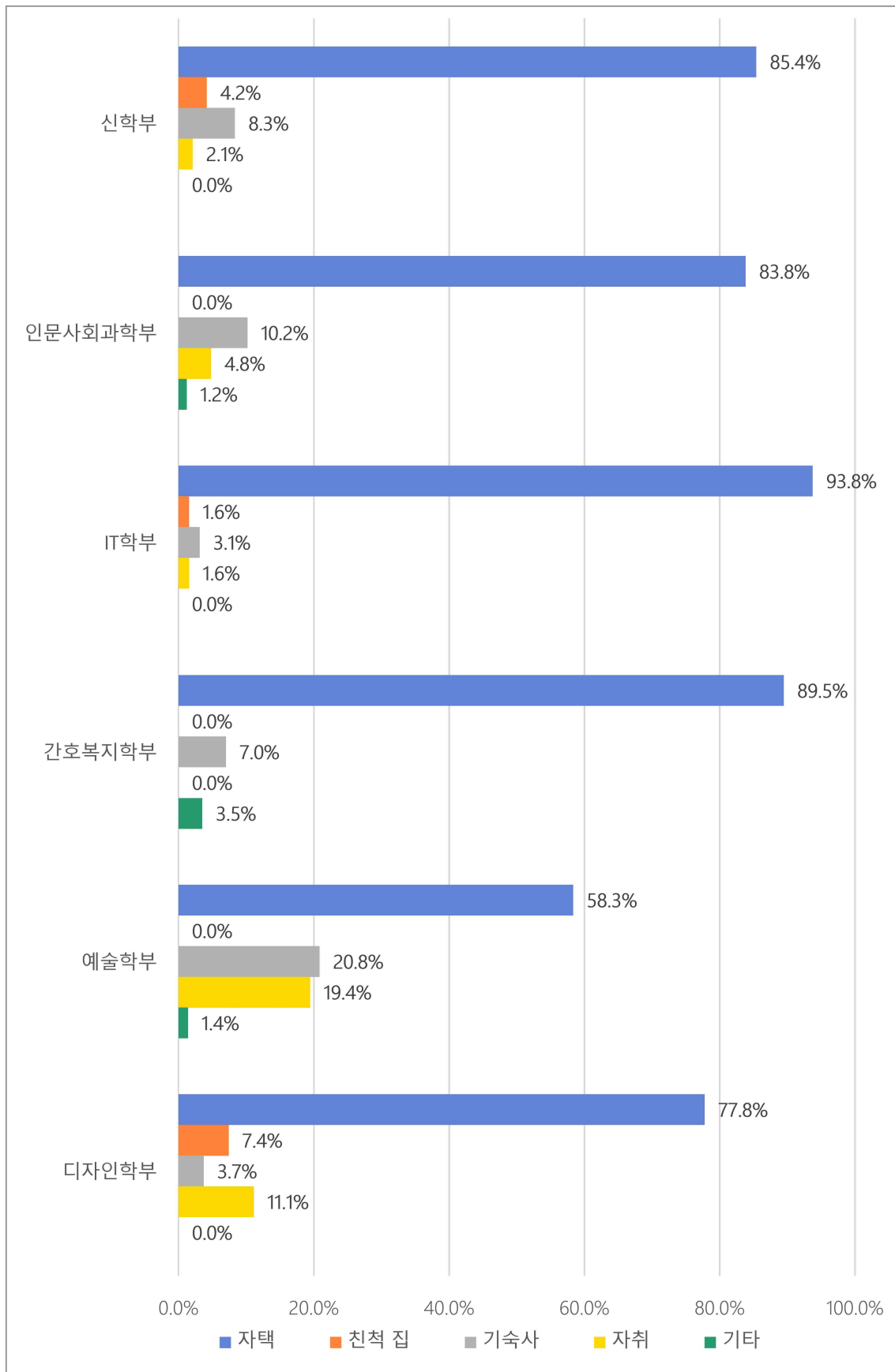
3) 대학입학 후 주거 형태

신입생들의 주거 형태를 알아보면, 자택이 전체의 81.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기숙사(9.9%), 자취(6.2%)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택의 응답 비율을 학부별 보면 IT학부(93.8%), 간호복지학부가(89.5%) 신학부(85.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숙사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예술학부(20.8%), 인문사회과학부(10.2%), 신학부(8.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 83.0%, 남학생 79.4%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대학입학 후 주거 형태

단위: 명, %

	자택	친척 집	기숙사	자취	기타	전체
남	143	0	20	14	3	180
	79.4%	0.0%	11.1%	7.8%	1.7%	100.0%
여	210	5	23	13	2	253
	83.0%	2.0%	9.1%	5.1%	0.8%	100.0%
기타	2	0	0	0	0	2
	10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41	2	4	1	0	48
	85.4%	4.2%	8.3%	2.1%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140	0	17	8	2	167
	83.8%	0.0%	10.2%	4.8%	1.2%	100.0%
IT학부	60	1	2	1	0	64
	93.8%	1.6%	3.1%	1.6%	0.0%	100.0%
간호복지학부	51	0	4	0	2	57
	89.5%	0.0%	7.0%	0.0%	3.5%	100.0%
예술학부	42	0	15	14	1	72
	58.3%	0.0%	20.8%	19.4%	1.4%	100.0%
디자인학부	21	2	1	3	0	27
	77.8%	7.4%	3.7%	11.1%	0.0%	100.0%
전체	355	5	43	27	5	435
	81.6%	1.1%	9.9%	6.2%	1.1%	100.0%



3. 대학생활 및 학업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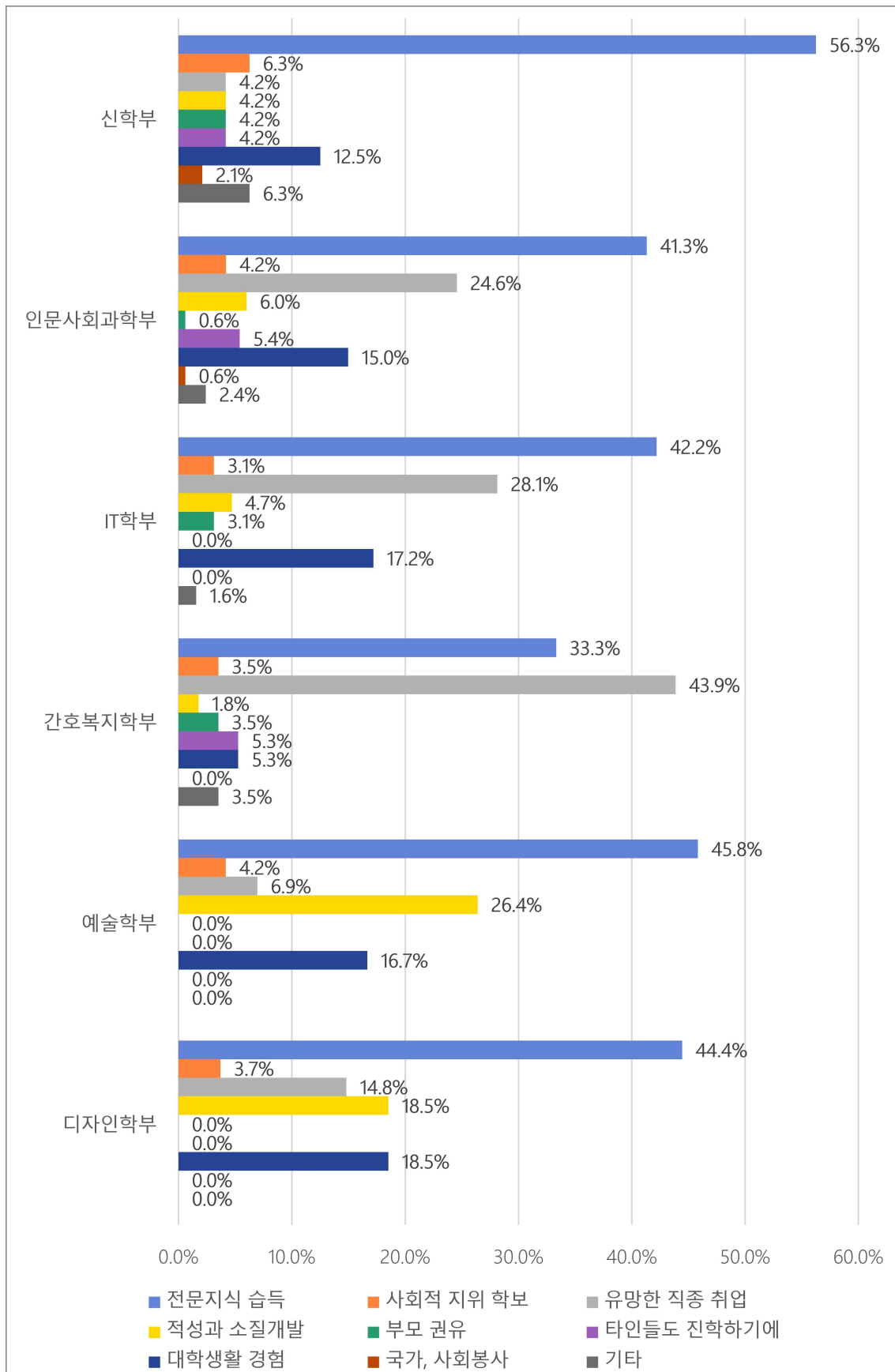
1) 대학진학의 목적

신입생들의 대학진학의 목적을 살펴보면, 전문지식 습득이 43.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유망한 직종 취업(21.8%), 대학생활 경험(14.3%)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신학부(56.3%), 예술학부(45.8%), 디자인학부(44.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학생 45.0%, 여학생 41.5%로 남학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 9> 대학진학의 목적

단위: 명, %

	전문지식 습득	사회적 지위 학보	유망한 직종 취업	적성과 소질 개발	부모 권유	타인들도 진학하기 에	대학생활 경험	국가, 사회봉사	기타	전체
남	81	7	36	13	6	3	28	1	5	180
	45.0%	3.9%	20.0%	7.2%	3.3%	1.7%	15.6%	0.6%	2.8%	100.0%
여	105	11	58	27	1	11	34	1	5	253
	41.5%	4.3%	22.9%	10.7%	0.4%	4.3%	13.4%	0.4%	2.0%	100.0%
제3의 성	1	0	1	0	0	0	0	0	0	2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27	3	2	2	2	2	6	1	3	48
	56.3%	6.3%	4.2%	4.2%	4.2%	4.2%	12.5%	2.1%	6.3%	100.0%
인문사회 과학부	69	7	41	10	1	9	25	1	4	167
	41.3%	4.2%	24.6%	6.0%	0.6%	5.4%	15.0%	0.6%	2.4%	100.0%
IT학부	27	2	18	3	2	0	11	0	1	64
	42.2%	3.1%	28.1%	4.7%	3.1%	0.0%	17.2%	0.0%	1.6%	100.0%
간호복지 학부	19	2	25	1	2	3	3	0	2	57
	33.3%	3.5%	43.9%	1.8%	3.5%	5.3%	5.3%	0.0%	3.5%	100.0%
예술학부	33	3	5	19	0	0	12	0	0	72
	45.8%	4.2%	6.9%	26.4%	0.0%	0.0%	16.7%	0.0%	0.0%	100.0%
디자인학부	12	1	4	5	0	0	5	0	0	27
	44.4%	3.7%	14.8%	18.5%	0.0%	0.0%	18.5%	0.0%	0.0%	100.0%
전체	187	18	95	40	7	14	62	2	10	435
	43.0%	4.1%	21.8%	9.2%	1.6%	3.2%	14.3%	0.5%	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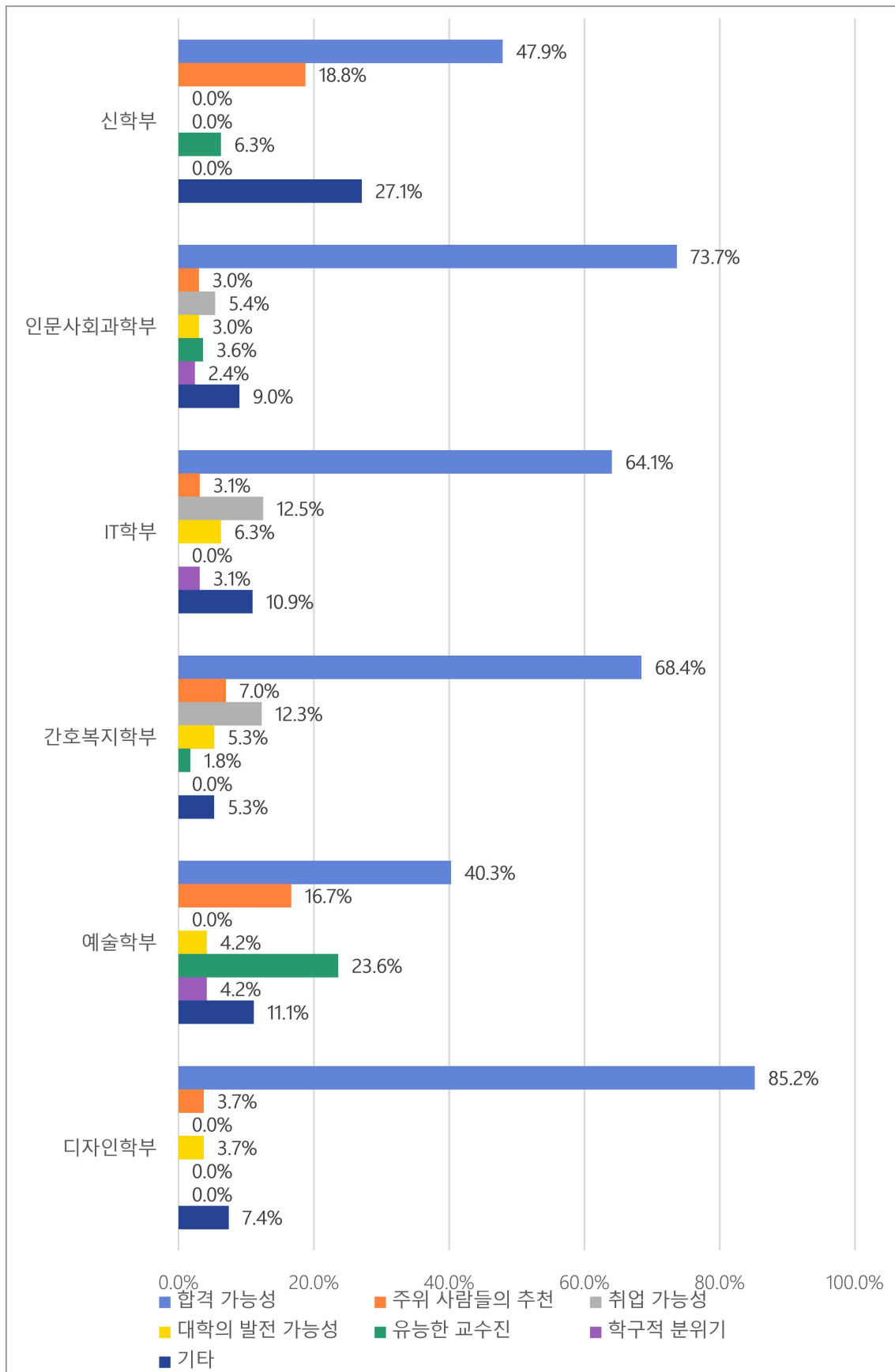
2) 본교 선택 이유

신입생들이 본교 선택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합격 가능성이 6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기타(11.0%), 주위 사람들의 추천(7.6%) 순으로 나타났다. 합격 가능성이란 응답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85.2%), 인문사회과학부(73.7%), 간호복지학부가 (68.4%),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64.0%, 남학생의 63.9% 모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표 10> 본교 선택 이유

단위: 명, %

	합격 가능성	주위 사람들의 추천	취업 가능성	대학의 발전 가능성	유능한 교수진	학구적 분위기	기타	전체
남	115	11	14	10	10	2	18	180
	63.9%	6.1%	7.8%	5.6%	5.6%	1.1%	10.0%	100.0%
여	162	22	9	6	17	7	30	253
	64.0%	8.7%	3.6%	2.4%	6.7%	2.8%	11.9%	100.0%
제3의 성	1	0	1	0	0	0	0	2
	50.0%	0.0%	5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23	9	0	0	3	0	13	48
	47.9%	18.8%	0.0%	0.0%	6.3%	0.0%	27.1%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23	5	9	5	6	4	15	167
	73.7%	3.0%	5.4%	3.0%	3.6%	2.4%	9.0%	100.0%
IT학부	41	2	8	4	0	2	7	64
	64.1%	3.1%	12.5%	6.3%	0.0%	3.1%	10.9%	100.0%
간호복지학부	39	4	7	3	1	0	3	57
	68.4%	7.0%	12.3%	5.3%	1.8%	0.0%	5.3%	100.0%
예술학부	29	12	0	3	17	3	8	72
	40.3%	16.7%	0.0%	4.2%	23.6%	4.2%	11.1%	100.0%
디자인학부	23	1	0	1	0	0	2	27
	85.2%	3.7%	0.0%	3.7%	0.0%	0.0%	7.4%	100.0%
전체	278	33	24	16	27	9	48	435
	63.9%	7.6%	5.5%	3.7%	6.2%	2.1%	1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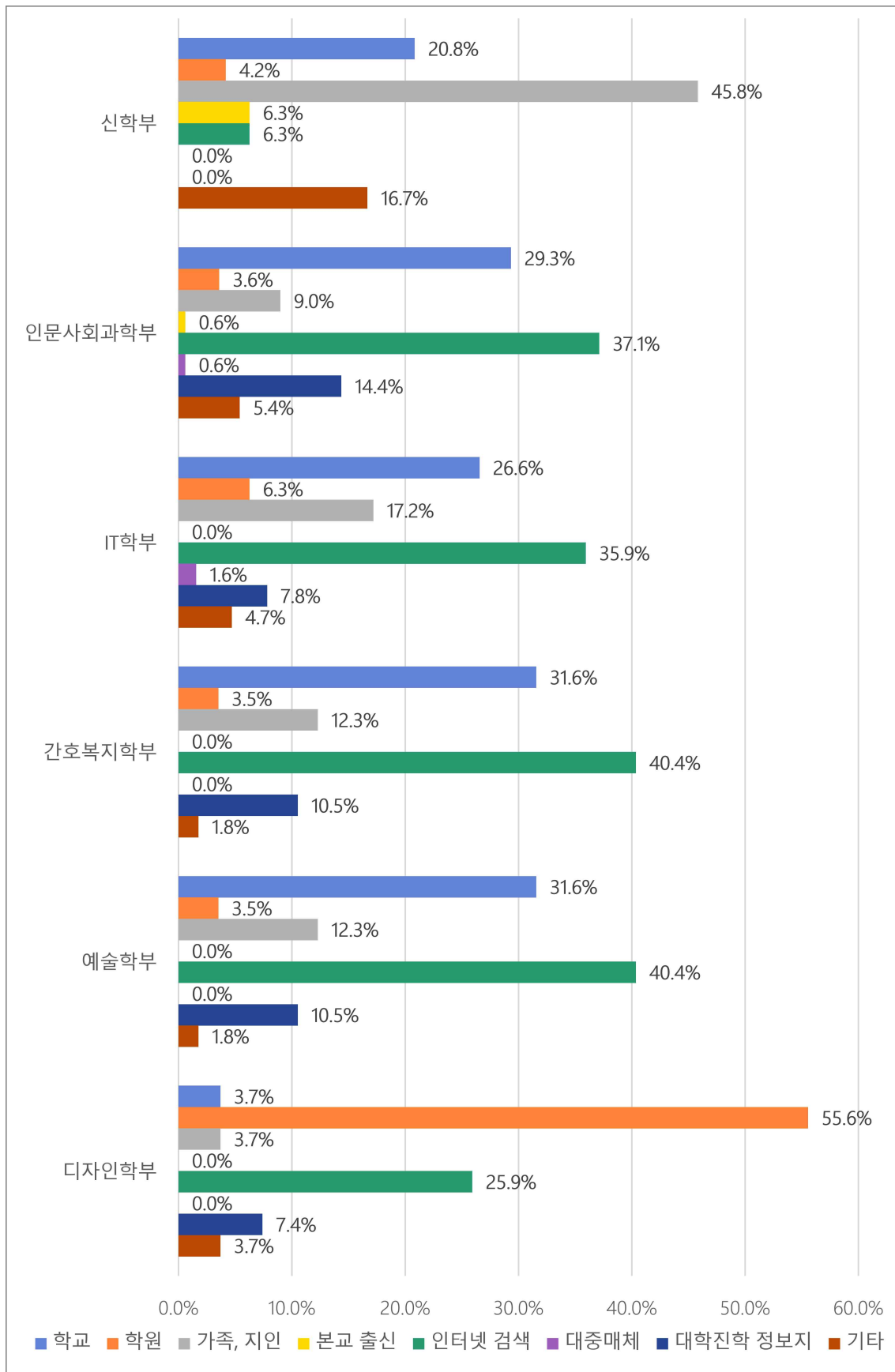
3)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

신입생이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검색(28.7%), 학교(23.7%), 가족·지인(17.5%)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검색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간호복지 학부와 예술학부(40.4%), 인문사회과학부(37.1%) 순이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33.3%, 여학생 25.3%로 나타났다.

<표 11>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

	학교	학원	가족, 지인	본교 출신	인터넷 검색	대중매체	대학진학 정보지	기타	전체
남	44	26	29	2	60	2	10	7	180
	24.4%	14.4%	16.1%	1.1%	33.3%	1.1%	5.6%	3.9%	100.0%
여	59	29	47	2	64	5	29	18	253
	23.3%	11.5%	18.6%	0.8%	25.3%	2.0%	11.5%	7.1%	100.0%
제3의 성	0	0	0	0	1	0	1	0	2
	0.0%	0.0%	0.0%	0.0%	50.0%	0.0%	50.0%	0.0%	100.0%
신학부	10	2	22	3	3	0	0	8	48
	20.8%	4.2%	45.8%	6.3%	6.3%	0.0%	0.0%	16.7%	100.0%
인문사회 과학부	49	6	15	1	62	1	24	9	167
	29.3%	3.6%	9.0%	0.6%	37.1%	0.6%	14.4%	5.4%	100.0%
IT학부	17	4	11	0	23	1	5	3	64
	26.6%	6.3%	17.2%	0.0%	35.9%	1.6%	7.8%	4.7%	100.0%
간호복지 학부	18	2	7	0	23	0	6	1	57
	31.6%	3.5%	12.3%	0.0%	40.4%	0.0%	10.5%	1.8%	100.0%
예술학부	8	26	20	0	7	5	3	3	72
	31.6%	3.5%	12.3%	0.0%	40.4%	0.0%	10.5%	1.8%	100.0%
디자인학부	1	15	1	0	7	0	2	1	27
	3.7%	55.6%	3.7%	0.0%	25.9%	0.0%	7.4%	3.7%	100.0%
전체	103	55	76	4	125	7	40	25	435
	23.7%	12.6%	17.5%	0.9%	28.7%	1.6%	9.2%	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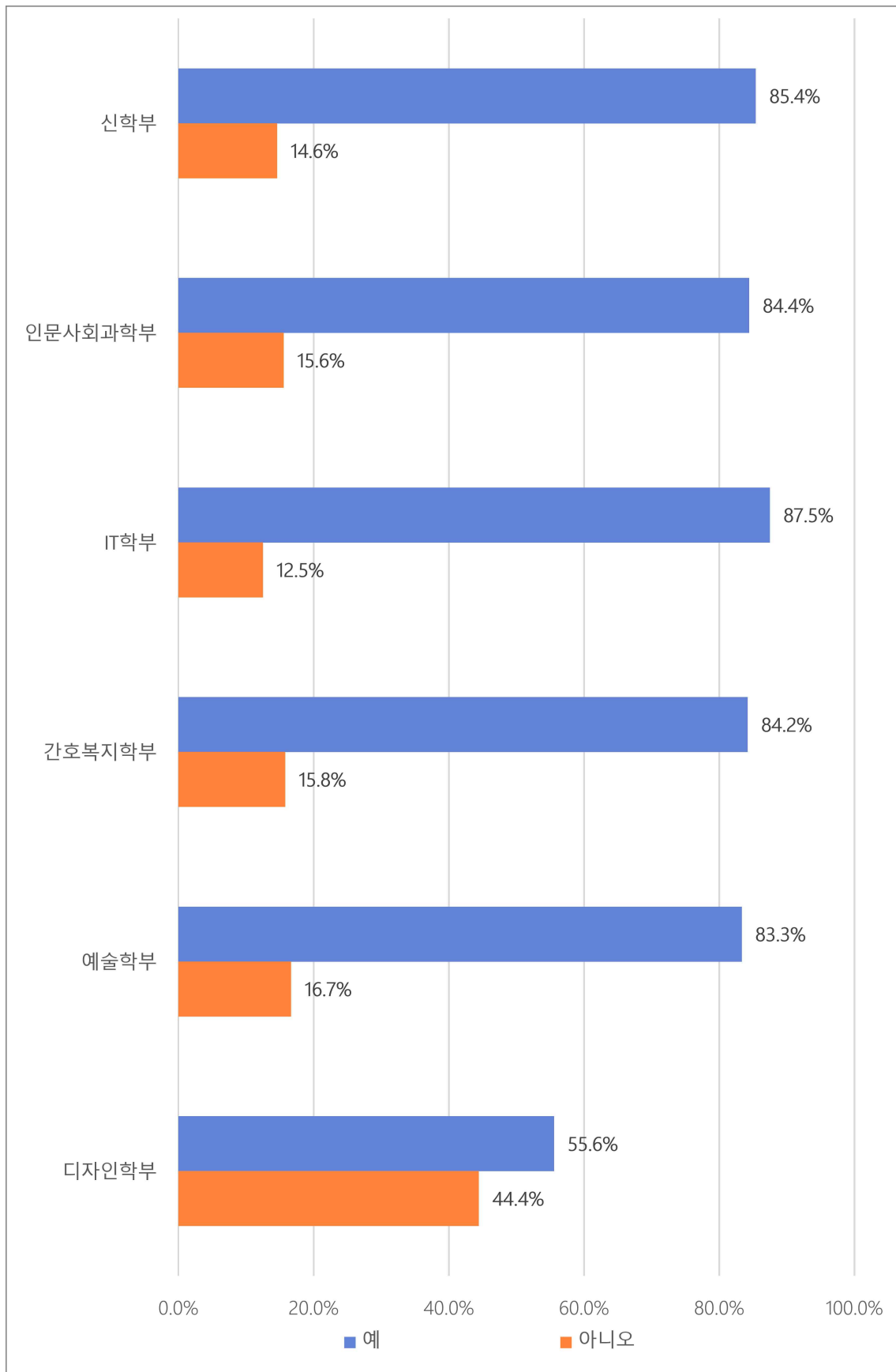
4) 본교 입학의 만족도

본교 입학을 만족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신입생 83.0%가 '예'라고 답변하여 전년도 72.3%보다 높은 폭으로 상승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IT학부(87.5%), 신학부(85.4%), 인문사회과학부(84.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는 디자인학부(44.4%)가 타학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86.7%, 여학생 80.6%가 본교 입학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본교 입학의 만족도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남	156	24	180
	86.7%	13.3%	100.0%
여	204	49	253
	80.6%	19.4%	100.0%
제3의 성	1	1	2
	50.0%	50.0%	100.0%
신학부	41	7	48
	85.4%	14.6%	100.0%
인문사회과학부	141	26	167
	84.4%	15.6%	100.0%
IT학부	56	8	64
	87.5%	12.5%	100.0%
간호복지학부	48	9	57
	84.2%	15.8%	100.0%
예술학부	60	12	72
	83.3%	16.7%	100.0%
디자인학부	15	12	27
	55.6%	44.4%	100.0%
전체	361	74	435
	83.0%	1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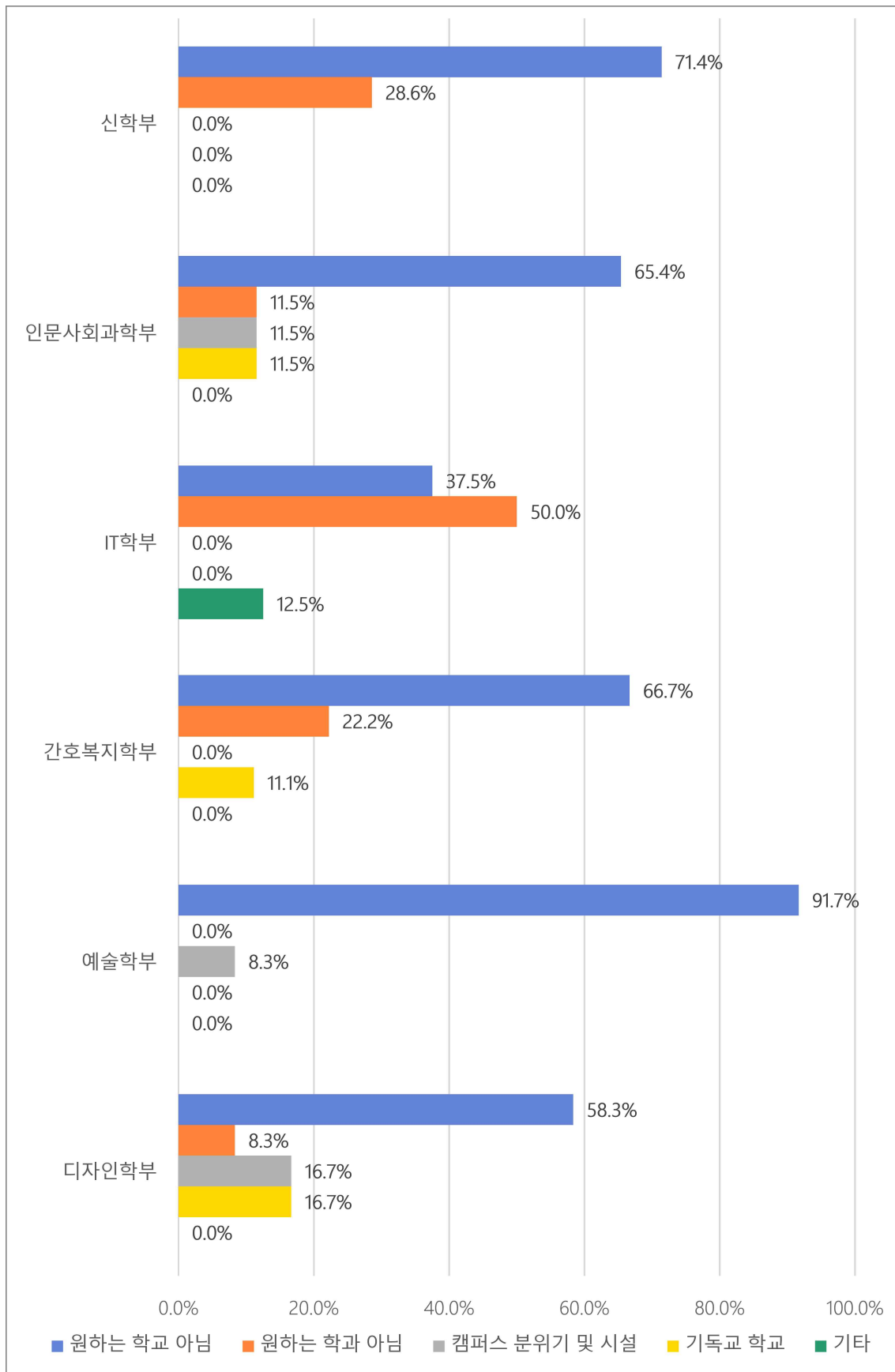
5) 본교 입학의 불만족한 이유

본교 입학에 불만족으로 응답한 74명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66.2%가 원하는 학교 아님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원하는 학과 아님(16.2%)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예술학부(91.7%), 신학부(71.4%), 간호복지학부(66.7%) 순이고 성별로는 여학생이(71.4%)이 남학생(54.2%)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표 13> 본교 입학의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

	원하는 학교 아님	원하는 학과 아님	캠퍼스 분위기 및 시설	기독교 학교	기타	전체
남	13	5	1	4	1	24
	54.2%	20.8%	4.2%	16.7%	4.2%	100.0%
여	35	7	5	2	0	49
	71.4%	14.3%	10.2%	4.1%	0.0%	100.0%
제3의 성	1	0	0	0	0	1
	10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5	2	0	0	0	7
	71.4%	28.6%	0.0%	0.0%	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7	3	3	3	0	26
	65.4%	11.5%	11.5%	11.5%	0.0%	100.0%
IT학부	3	4	0	0	1	8
	37.5%	50.0%	0.0%	0.0%	12.5%	100.0%
간호복지학부	6	2	0	1	0	9
	66.7%	22.2%	0.0%	11.1%	0.0%	100.0%
예술학부	11	0	1	0	0	12
	91.7%	0.0%	8.3%	0.0%	0.0%	100.0%
디자인학부	7	1	2	2	0	12
	58.3%	8.3%	16.7%	16.7%	0.0%	100.0%
전체	49	12	6	6	1	74
	66.2%	16.2%	8.1%	8.1%	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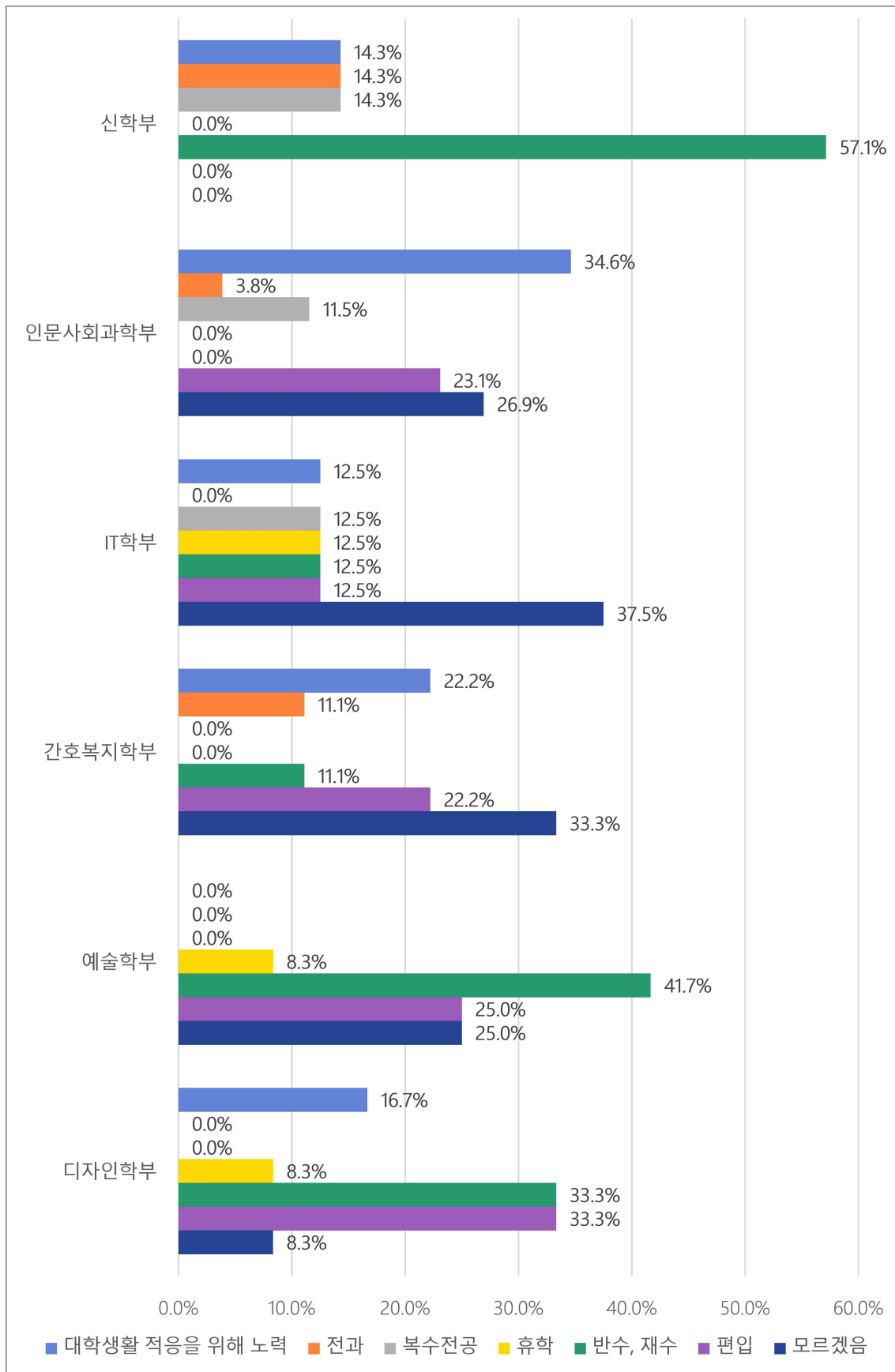
6) 불만족 시 앞으로 계획

본교 입학에 불만족으로 응답한 74명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질문한 결과, 모르겠음(23.0%)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편입(21.6%),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노력과 반수·재수(20.3%) 순으로 나타났다. 모르겠음이란 응답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37.5%), 간호복지학부(33.3%), 인문사회과학부(26.9%)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남학생은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노력과 모르겠음(25.0%)이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편입(26.5%)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표 14> 불만족 시 앞으로 계획

단위: 명, %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노력	전과	복수전공	휴학	반수, 재수	편입	모르겠음	전체
남	6	2	1	1	5	3	6	24
	25.0%	8.3%	4.2%	4.2%	20.8%	12.5%	25.0%	100.0%
여	8	1	4	2	10	13	11	49
	16.3%	2.0%	8.2%	4.1%	20.4%	26.5%	22.4%	100.0%
기타	1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1	1	1	0	4	0	0	7
	14.3%	14.3%	14.3%	0.0%	57.1%	0.0%	0.0%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9	1	3	0	0	6	7	26
	34.6%	3.8%	11.5%	0.0%	0.0%	23.1%	26.9%	100.0%
IT학부	1	0	1	1	1	1	3	8
	12.5%	0.0%	12.5%	12.5%	12.5%	12.5%	37.5%	100.0%
간호 복지 학부	2	1	0	0	1	2	3	9
	22.2%	11.1%	0.0%	0.0%	11.1%	22.2%	33.3%	100.0%
예술 학부	0	0	0	1	5	3	3	12
	0.0%	0.0%	0.0%	8.3%	41.7%	25.0%	25.0%	100.0%
디자인 학부	2	0	0	1	4	4	1	12
	16.7%	0.0%	0.0%	8.3%	33.3%	33.3%	8.3%	100.0%
전체	15	3	5	3	15	16	17	74
	20.3%	4.1%	6.8%	4.1%	20.3%	21.6%	2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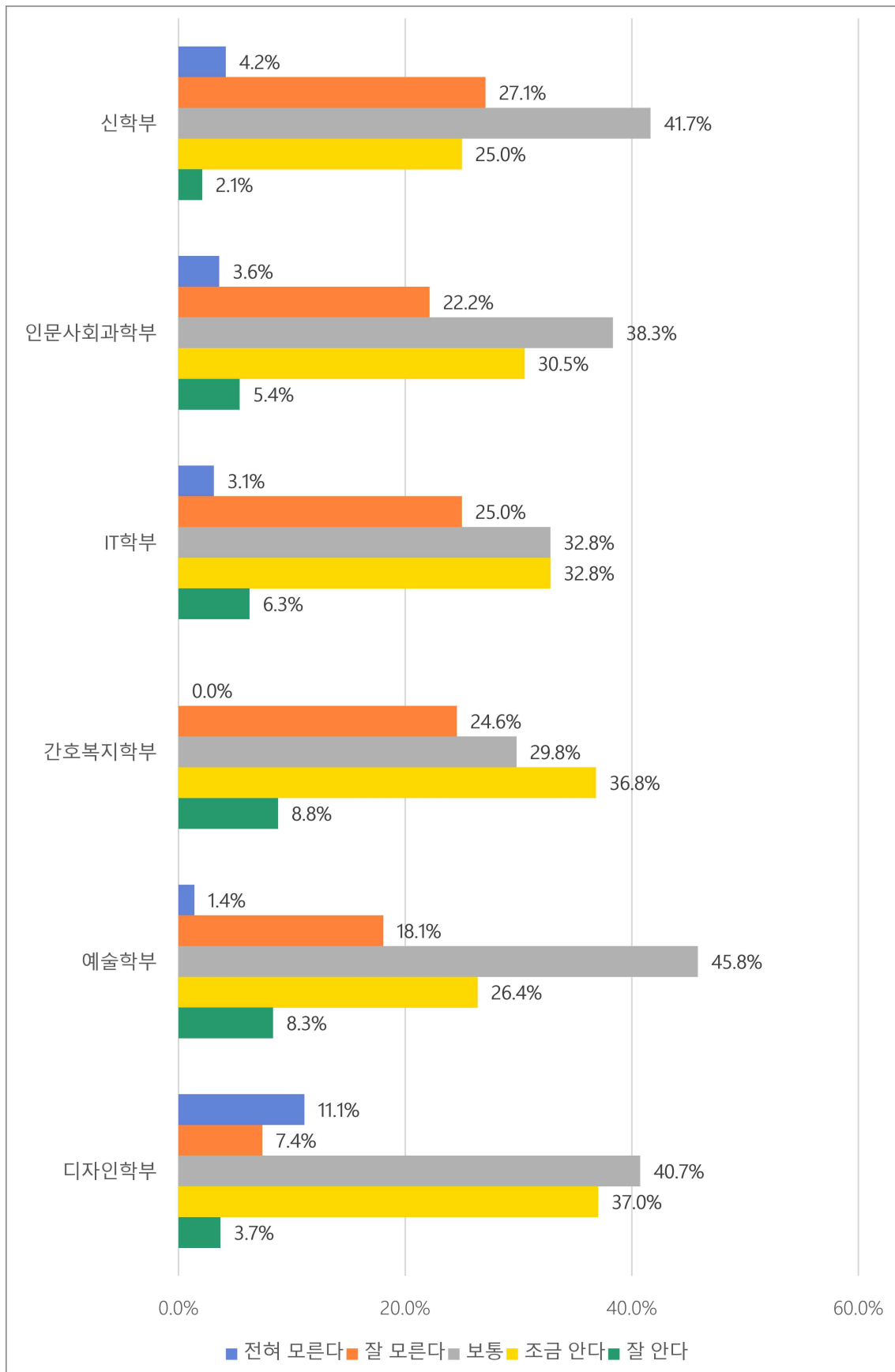
7) 전공학부(학과) 교육과정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정도

신입생들에게 전공학부(학과) 교육과정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으로 응답한 학생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예술학부(45.8%), 신학부(41.7%), 디자인학부(40.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40.0%, 여학생 36.4%가 전공학부에 대한 교육과정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정도에 관해 보통 안다고 응답하였다.

<표 15> 교육과정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명, %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	조금 안다	잘 안다	전체
남	6	39	72	52	11	180
	3.3%	21.7%	40.0%	28.9%	6.1%	100.0%
여	8	56	92	82	15	253
	3.2%	22.1%	36.4%	32.4%	5.9%	100.0%
기타	0	0	2	0	0	2
	0.0%	0.0%	100.0%	0.0%	0.0%	100.0%
신학부	2	13	20	12	1	48
	4.2%	27.1%	41.7%	25.0%	2.1%	100.0%
인문사회과학부	6	37	64	51	9	167
	3.6%	22.2%	38.3%	30.5%	5.4%	100.0%
IT학부	2	16	21	21	4	64
	3.1%	25.0%	32.8%	32.8%	6.3%	100.0%
간호복지학부	0	14	17	21	5	57
	0.0%	24.6%	29.8%	36.8%	8.8%	100.0%
예술학부	1	13	33	19	6	72
	1.4%	18.1%	45.8%	26.4%	8.3%	100.0%
디자인학부	3	2	11	10	1	27
	11.1%	7.4%	40.7%	37.0%	3.7%	100.0%
전체	14	95	166	134	26	435
	3.2%	21.8%	38.2%	30.8%	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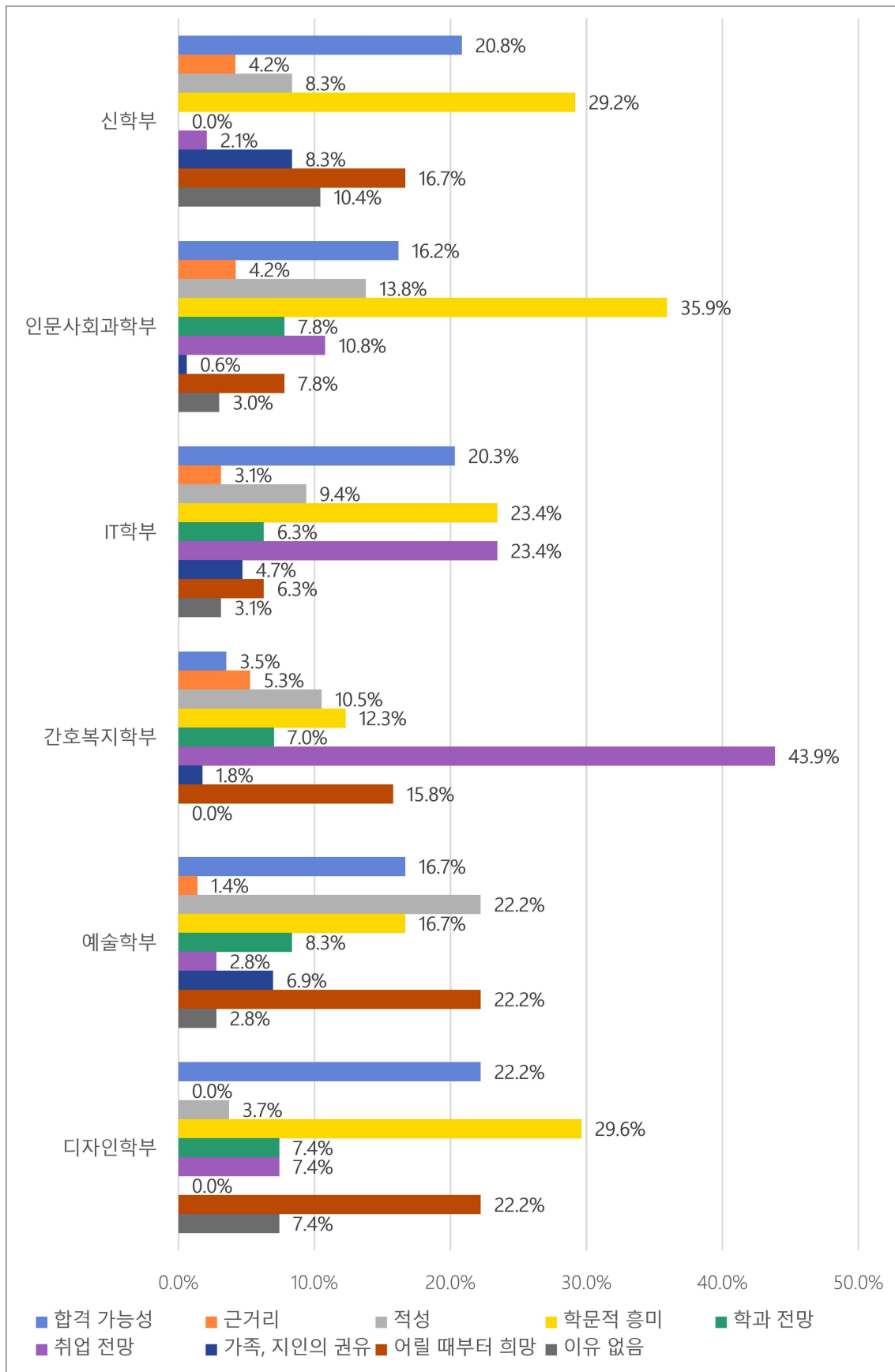
8) 전공학부(학과) 선택 시 결정적 요인

신입생들의 전공학부 선택 시 결정적 요인을 조사한 결과, 26.7%가 학문적 흥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합격 가능성(16.1%), 취업 전망(14.5%) 순으로 나타났다. 학문적 흥미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인문사회과학부(35.9%), 디자인학부(29.6%), 신학부(29.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27.3%), 남학생(25.6%) 모두 학문적 흥미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16> 전공학부 선택 시 결정적 요인

단위: 명, %

	합격 가능성	근거리	적성	학문적 흥미	학과 전망	취업 전망	가족, 지인의 권유	어릴 때부터 희망	이유 없음	전체
남	29	6	24	46	12	27	5	24	7	180
	16.1%	3.3%	13.3%	25.6%	6.7%	15.0%	2.8%	13.3%	3.9%	100.0%
여	41	9	32	69	17	36	8	32	9	253
	16.2%	3.6%	12.6%	27.3%	6.7%	14.2%	3.2%	12.6%	3.6%	100.0%
제3의 성	0	0	0	1	0	0	1	0	0	2
	0.0%	0.0%	0.0%	50.0%	0.0%	0.0%	50.0%	0.0%	0.0%	100.0%
신학부	10	2	4	14	0	1	4	8	5	48
	20.8%	4.2%	8.3%	29.2%	0.0%	2.1%	8.3%	16.7%	10.4%	100.0%
인문사회 과학부	27	7	23	60	13	18	1	13	5	167
	16.2%	4.2%	13.8%	35.9%	7.8%	10.8%	0.6%	7.8%	3.0%	100.0%
IT학부	13	2	6	15	4	15	3	4	2	64
	20.3%	3.1%	9.4%	23.4%	6.3%	23.4%	4.7%	6.3%	3.1%	100.0%
간호복지 학부	2	3	6	7	4	25	1	9	0	57
	3.5%	5.3%	10.5%	12.3%	7.0%	43.9%	1.8%	15.8%	0.0%	100.0%
예술학부	12	1	16	12	6	2	5	16	2	72
	16.7%	1.4%	22.2%	16.7%	8.3%	2.8%	6.9%	22.2%	2.8%	100.0%
디자인학부	6	0	1	8	2	2	0	6	2	27
	22.2%	0.0%	3.7%	29.6%	7.4%	7.4%	0.0%	22.2%	7.4%	100.0%
전체	70	15	56	116	29	63	14	56	16	435
	16.1%	3.4%	12.9%	26.7%	6.7%	14.5%	3.2%	12.9%	3.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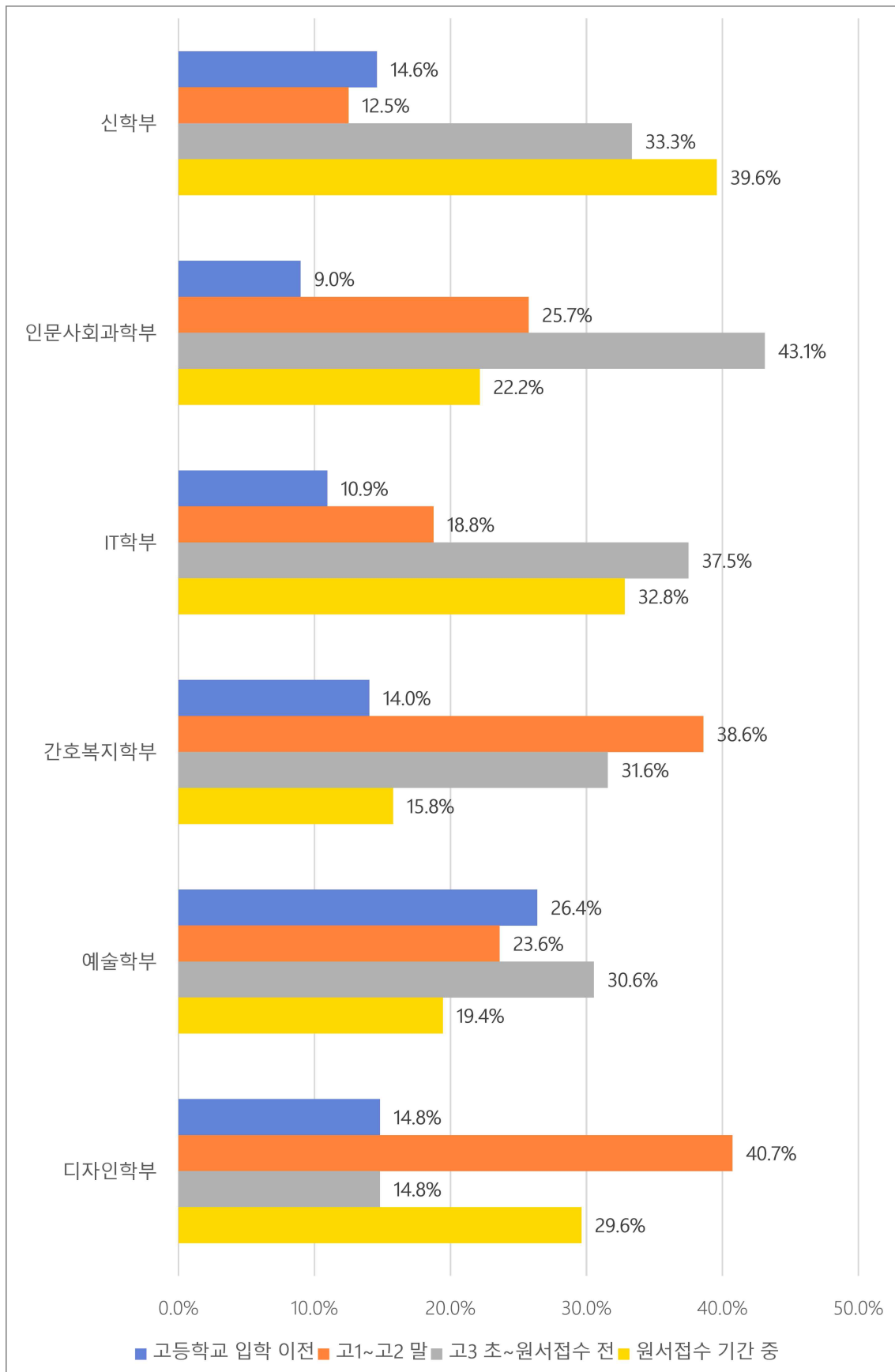
9) 전공학부(학과)의 지원 결정 시기

신입생들의 전공학부 결정 시기는 고3 초부터 원서접수 기간 중(35.9%)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고1부터 고2말(25.5%), 원서접수 기간 중(24.8%) 순으로 나타났다. 고3 초부터 원서접수 기간 중이란 응답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과학부(43.1%), IT학부(37.5%), 신학부(33.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았을 때 여학생, 남학생 모두 고3 초부터 원서접수 기간에 결정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36.8%, 34.4%로 높게 나타났다.

<표 17> 전공학부(학과)의 지원 결정 시기

단위: 명, %

	고등학교 입학 이전	고1~고2 말	고3 초~ 원서접수 전	원서접수 기간 중	전체
남	24	43	62	51	180
	13.3%	23.9%	34.4%	28.3%	100.0%
여	36	67	93	57	253
	14.2%	26.5%	36.8%	22.5%	100.0%
제3의 성	0	1	1	0	2
	0.0%	50.0%	50.0%	0.0%	100.0%
신학부	7	6	16	19	48
	14.6%	12.5%	33.3%	39.6%	100.0%
인문사회과학부	15	43	72	37	167
	9.0%	25.7%	43.1%	22.2%	100.0%
IT학부	7	12	24	21	64
	10.9%	18.8%	37.5%	32.8%	100.0%
간호복지학부	8	22	18	9	57
	14.0%	38.6%	31.6%	15.8%	100.0%
예술학부	19	17	22	14	72
	26.4%	23.6%	30.6%	19.4%	100.0%
디자인학부	4	11	4	8	27
	14.8%	40.7%	14.8%	29.6%	100.0%
전체	60	111	156	108	435
	13.8%	25.5%	35.9%	2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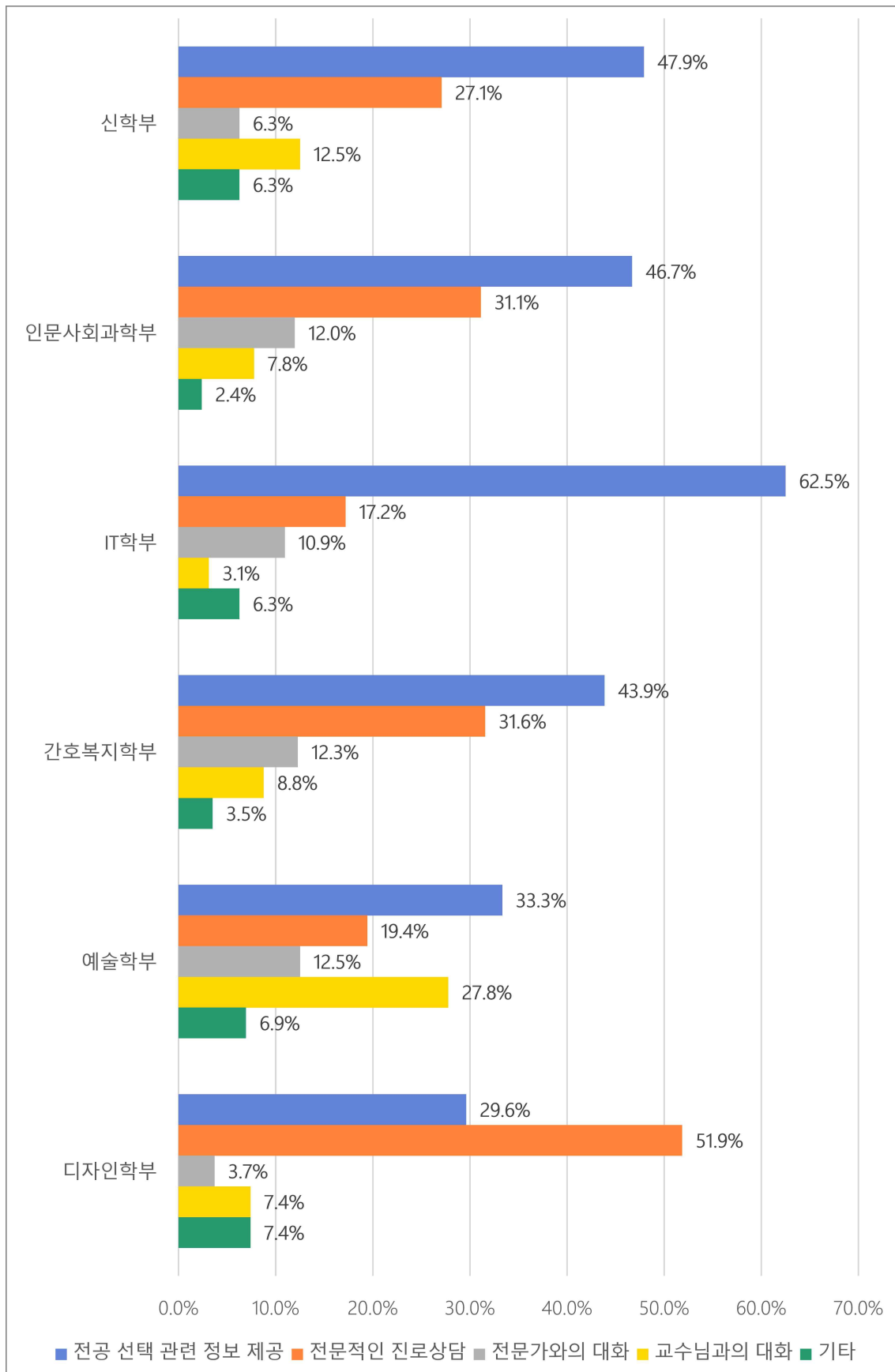
10) 전공학과 선택에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 원하는 지원내용

신입생이 전공학과 선택 시 학교에서 제공받기 원하는 지원내용을 조사한 결과, 전공선택 관련 정보 제공(45.5%)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전문적인 진로상담(28.0%), 교수님과의 대화(11.0%)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 관련 정보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62.5%), 신학부(47.9%), 인문사회과학부(4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 46.6%, 남학생 43.9%로 높게 나타났다.

<표 18> 전공학부 선택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 원하는 지원

단위: 명, %

	전공 선택 관련 정보 제공	전문적인 진로상담	전문가와 의 대화	교수님과의 대화	기타	전체
남	79	48	22	24	7	180
	43.9%	26.7%	12.2%	13.3%	3.9%	100.0%
여	118	73	25	24	13	253
	46.6%	28.9%	9.9%	9.5%	5.1%	100.0%
제3의 성	1	1	0	0	0	2
	50.0%	50.0%	0.0%	0.0%	0.0%	100.0%
신학부	23	13	3	6	3	48
	47.9%	27.1%	6.3%	12.5%	6.3%	100.0%
인문사회 과학부	78	52	20	13	4	167
	46.7%	31.1%	12.0%	7.8%	2.4%	100.0%
IT학부	40	11	7	2	4	64
	62.5%	17.2%	10.9%	3.1%	6.3%	100.0%
간호복지학부	25	18	7	5	2	57
	43.9%	31.6%	12.3%	8.8%	3.5%	100.0%
예술학부	24	14	9	20	5	72
	33.3%	19.4%	12.5%	27.8%	6.9%	100.0%
디자인학부	8	14	1	2	2	27
	29.6%	51.9%	3.7%	7.4%	7.4%	100.0%
전체	198	122	47	48	20	435
	45.5%	28.0%	10.8%	11.0%	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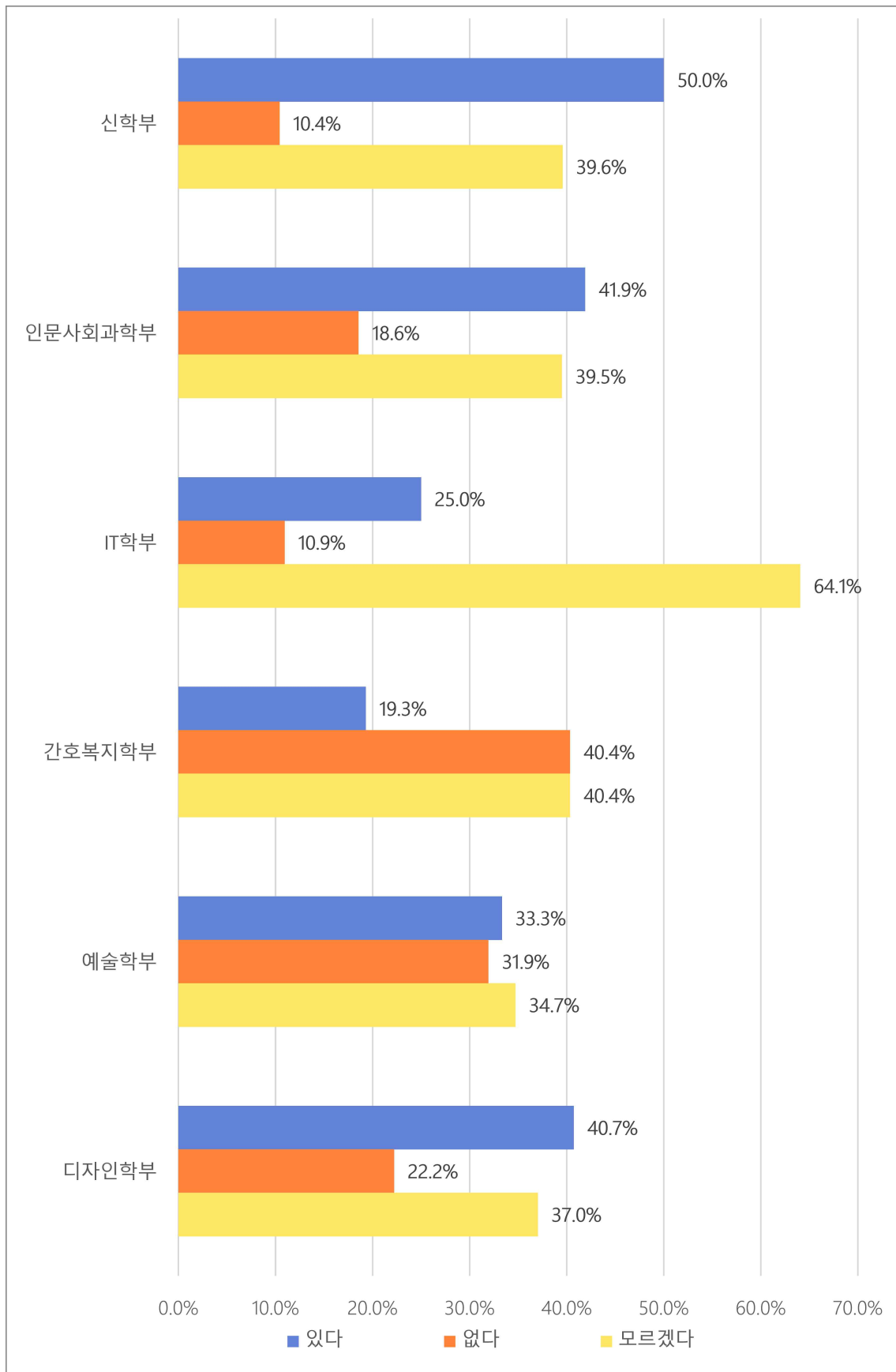
11)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복합전공) 이수용의

신입생들이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복합전공)의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2.3%가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35.9%가 이수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64.1%), 간호복지학부(40.4%), 신학부(39.6%)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보았을 때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51.7%, 여학생 35.6%로 나타났다.

<표 19> 다전공 이수용의

단위: 명, %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남	55	32	93	180
	30.6%	17.8%	51.7%	100.0%
여	100	63	90	253
	39.5%	24.9%	35.6%	100.0%
제3의 성	1	0	1	2
	50.0%	0.0%	50.0%	100.0%
신학부	24	5	19	48
	50.0%	10.4%	39.6%	100.0%
인문사회 과학부	70	31	66	167
	41.9%	18.6%	39.5%	100.0%
IT학부	16	7	41	64
	25.0%	10.9%	64.1%	100.0%
간호복지학부	11	23	23	57
	19.3%	40.4%	40.4%	100.0%
예술학부	24	23	25	72
	33.3%	31.9%	34.7%	100.0%
디자인학부	11	6	10	27
	40.7%	22.2%	37.0%	100.0%
전체	156	95	184	435
	35.9%	21.8%	4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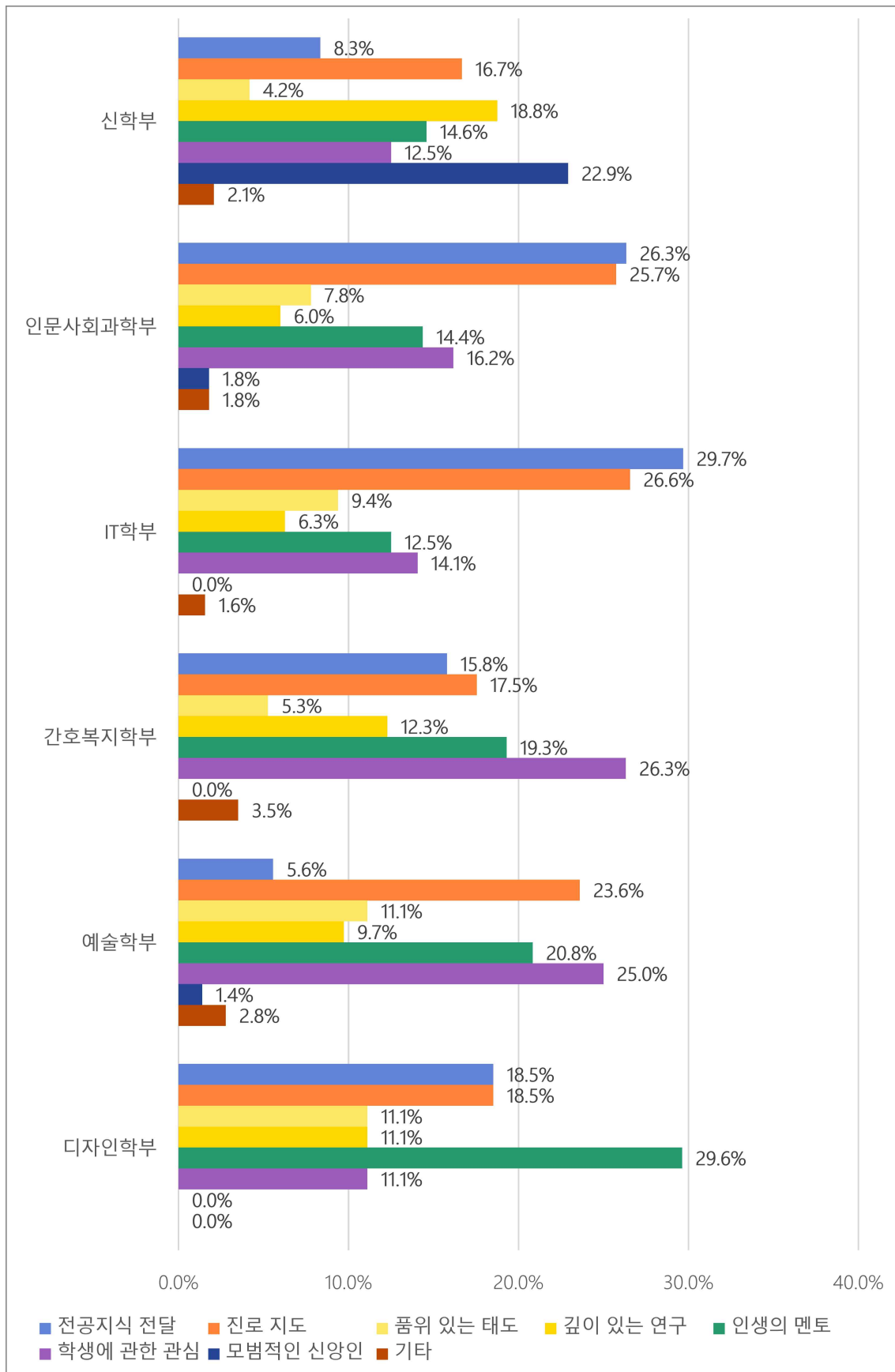
12) 교수님에게 기대하는 것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진로 지도(23.0%)를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그다음으로는 전공지식 전달(19.5%), 학생에 관한 관심(17.9%)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 지도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과학부(26.6%), 인문사회과학부(25.7%), 예술학부(23.6%)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25.0%, 여학생의 21.3%는 진로 지도 응답하였다.

<표 20> 교수에게 기대하는 것

단위: 명, %

	전공지식 전달	진로 지도	품위 있는 태도	깊이 있는 연구	인생의 멘토	학생에 관한 관심	모범적인 신앙인	기타	전체
남	38	45	19	8	32	28	6	4	180
	21.1%	25.0%	10.6%	4.4%	17.8%	15.6%	3.3%	2.2%	100.0%
여	47	54	16	32	40	50	9	5	253
	18.6%	21.3%	6.3%	12.6%	15.8%	19.8%	3.6%	2.0%	100.0%
기타	0	1	0	0	1	0	0	0	2
	0.0%	50.0%	0.0%	0.0%	50.0%	0.0%	0.0%	0.0%	100.0%
신학부	4	8	2	9	7	6	11	1	48
	8.3%	16.7%	4.2%	18.8%	14.6%	12.5%	22.9%	2.1%	100.0%
인문사회 과학부	44	43	13	10	24	27	3	3	167
	26.3%	25.7%	7.8%	6.0%	14.4%	16.2%	1.8%	1.8%	100.0%
IT학부	19	17	6	4	8	9	0	1	64
	29.7%	26.6%	9.4%	6.3%	12.5%	14.1%	0.0%	1.6%	100.0%
간호복지 학부	9	10	3	7	11	15	0	2	57
	15.8%	17.5%	5.3%	12.3%	19.3%	26.3%	0.0%	3.5%	100.0%
예술학부	4	17	8	7	15	18	1	2	72
	5.6%	23.6%	11.1%	9.7%	20.8%	25.0%	1.4%	2.8%	100.0%
디자인 학부	5	5	3	3	8	3	0	0	27
	18.5%	18.5%	11.1%	11.1%	29.6%	11.1%	0.0%	0.0%	100.0%
전체	85	100	35	40	73	78	15	9	435
	19.5%	23.0%	8.0%	9.2%	16.8%	17.9%	3.4%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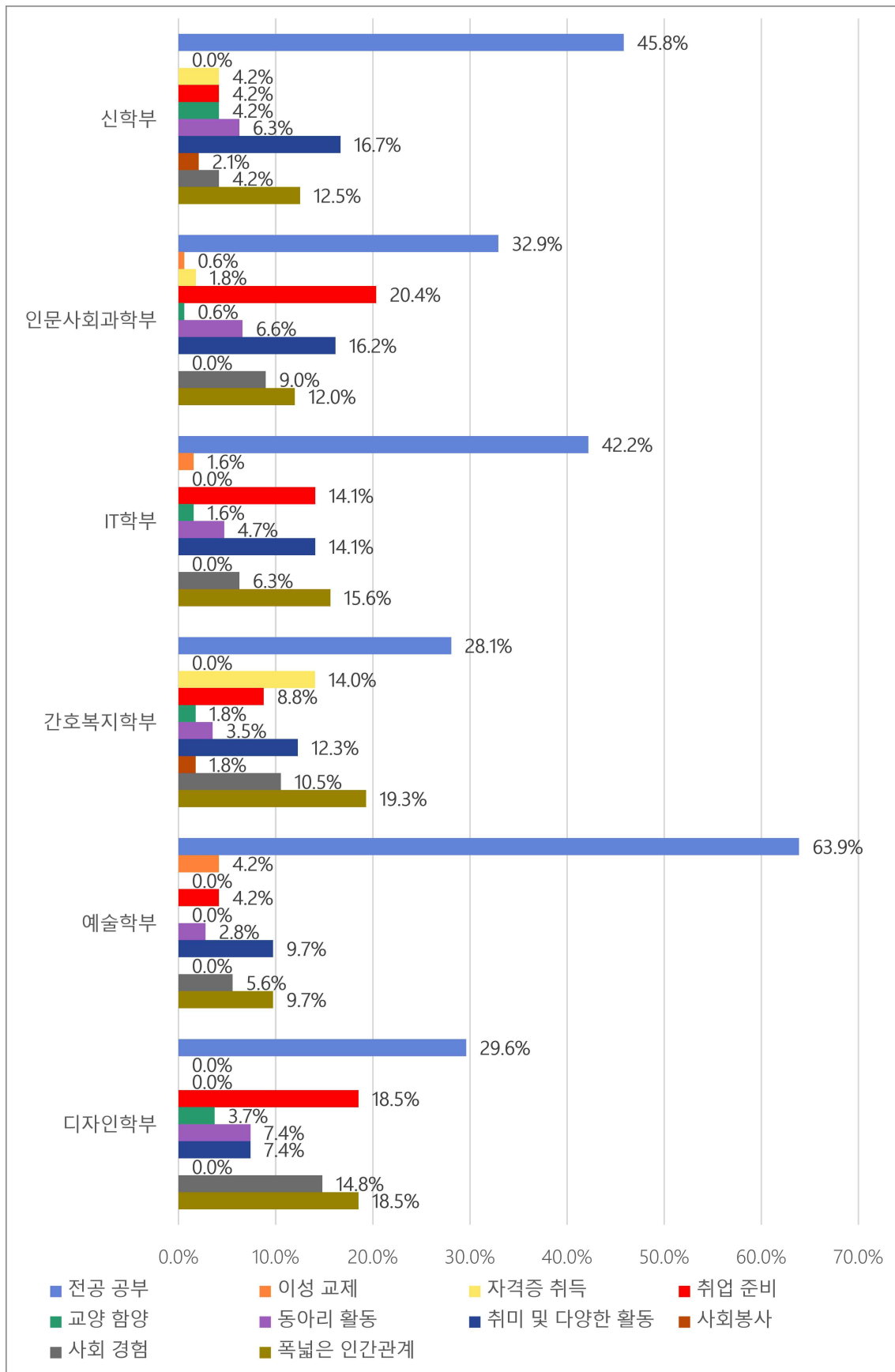
13) 대학에서 기대하는 경험

신입생들이 대학에 기대하는 경험은 전공 공부(40.0%)로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 는 취미 및 다양한 활동(13.8%), 폭넓은 인간관계(13.6%)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전공 공부라는 응답 비율을 보면 예술학부(63.9%)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신학부(45.8%), IT학부(42.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40.0%), 여학생(39.9%) 모두 대학 생활에서 전공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1> 대학에서 기대하는 경향

단위: 명, %

	전공 공부	이성 교제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교양 함양	동아리 활동	취미 및 다양한 활동	사회봉사	사회 경험	폭넓은 인간관계	전체
남	72	3	6	24	1	7	24	0	11	32	180
	40.0%	1.7%	3.3%	13.3%	0.6%	3.9%	13.3%	0.0%	6.1%	17.8%	100.0%
여	101	2	7	34	5	16	35	2	24	27	253
	39.9%	0.8%	2.8%	13.4%	2.0%	6.3%	13.8%	0.8%	9.5%	10.7%	100.0%
제3의 성	1	0	0	0	0	0	1	0	0	0	2
	50.0%	0.0%	0.0%	0.0%	0.0%	0.0%	50.0%	0.0%	0.0%	0.0%	100.0%
신학부	22	0	2	2	2	3	8	1	2	6	48
	45.8%	0.0%	4.2%	4.2%	4.2%	6.3%	16.7%	2.1%	4.2%	12.5%	100.0%
인문사회 과학부	55	1	3	34	1	11	27	0	15	20	167
	32.9%	0.6%	1.8%	20.4%	0.6%	6.6%	16.2%	0.0%	9.0%	12.0%	100.0%
IT학부	27	1	0	9	1	3	9	0	4	10	64
	42.2%	1.6%	0.0%	14.1%	1.6%	4.7%	14.1%	0.0%	6.3%	15.6%	100.0%
간호복지 학부	16	0	8	5	1	2	7	1	6	11	57
	28.1%	0.0%	14.0%	8.8%	1.8%	3.5%	12.3%	1.8%	10.5%	19.3%	100.0%
예술학부	46	3	0	3	0	2	7	0	4	7	72
	63.9%	4.2%	0.0%	4.2%	0.0%	2.8%	9.7%	0.0%	5.6%	9.7%	100.0%
디자인학부	8	0	0	5	1	2	2	0	4	5	27
	29.6%	0.0%	0.0%	18.5%	3.7%	7.4%	7.4%	0.0%	14.8%	18.5%	100.0%
전체	174	5	13	58	6	23	60	2	35	59	435
	40.0%	1.1%	3.0%	13.3%	1.4%	5.3%	13.8%	0.5%	8.0%	13.6%	100.0%



4. 진로 및 직업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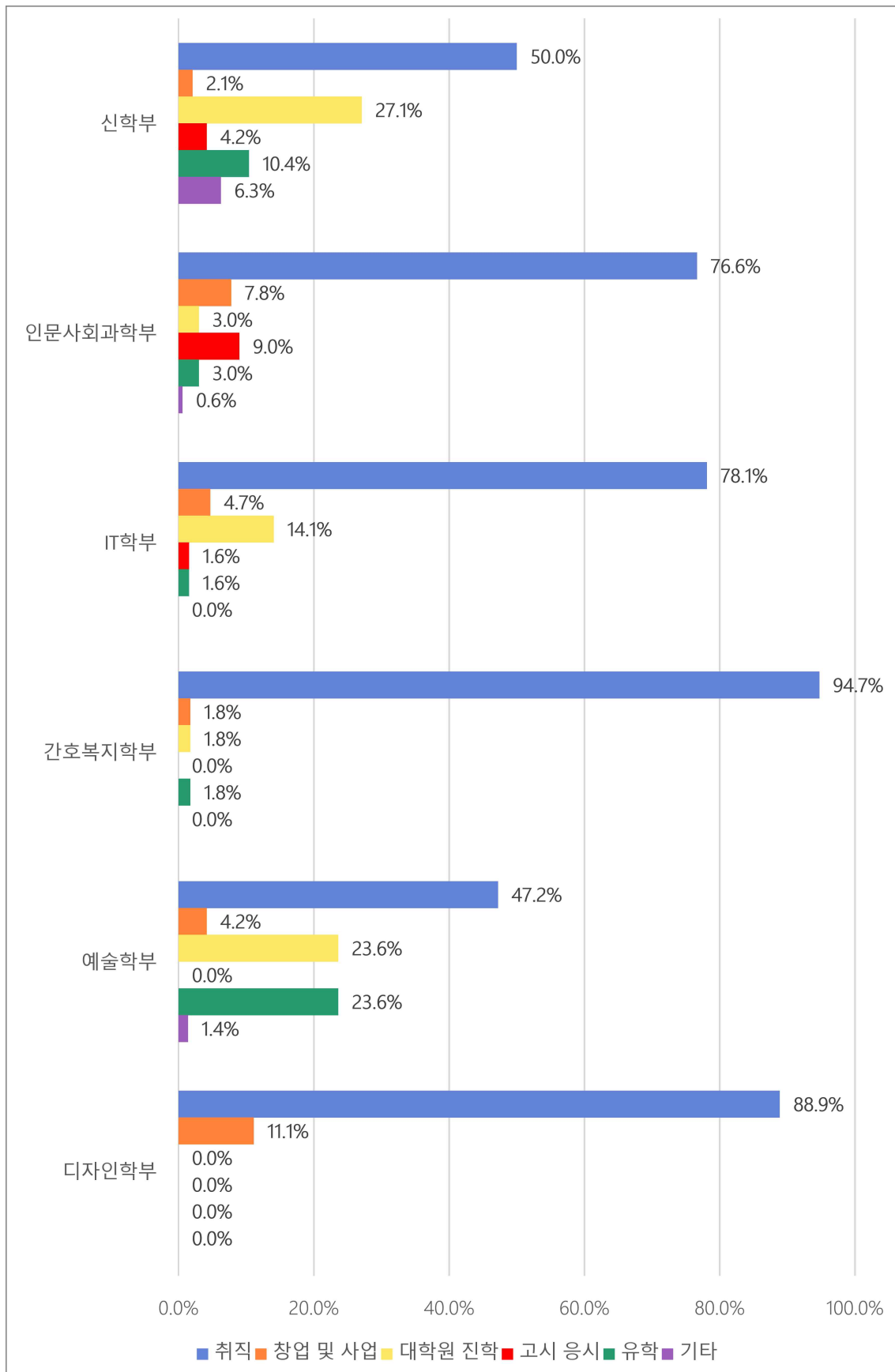
1)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72.2%가 취직이라고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는 대학원 진학(10.3%), 유학(6.7%)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간호복지학부가 취직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94.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디자인학부(88.9%), IT학부(78.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술학부는 47.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78.7%)이 남학생(62.8%)보다 취직에 대한 의사가 높았고 작년 대비 남학생(69.4%)의 취직에 대한 의사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졸업 후 진로 계획

단위: 명, %

	취직	창업 및 사업	대학원 진학	고시 응시	유학	기타	전체
남	113	19	19	11	16	2	180
	62.8%	10.6%	10.6%	6.1%	8.9%	1.1%	100.0%
여	199	5	26	7	13	3	253
	78.7%	2.0%	10.3%	2.8%	5.1%	1.2%	100.0%
기타	2	0	0	0	0	0	2
	10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24	1	13	2	5	3	48
	50.0%	2.1%	27.1%	4.2%	10.4%	6.3%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28	13	5	15	5	1	167
	76.6%	7.8%	3.0%	9.0%	3.0%	0.6%	100.0%
IT학부	50	3	9	1	1	0	64
	78.1%	4.7%	14.1%	1.6%	1.6%	0.0%	100.0%
간호복지 학부	54	1	1	0	1	0	57
	94.7%	1.8%	1.8%	0.0%	1.8%	0.0%	100.0%
예술학부	34	3	17	0	17	1	72
	47.2%	4.2%	23.6%	0.0%	23.6%	1.4%	100.0%
디자인학부	24	3	0	0	0	0	27
	88.9%	11.1%	0.0%	0.0%	0.0%	0.0%	100.0%
전체	314	24	45	18	29	5	435
	72.2%	5.5%	10.3%	4.1%	6.7%	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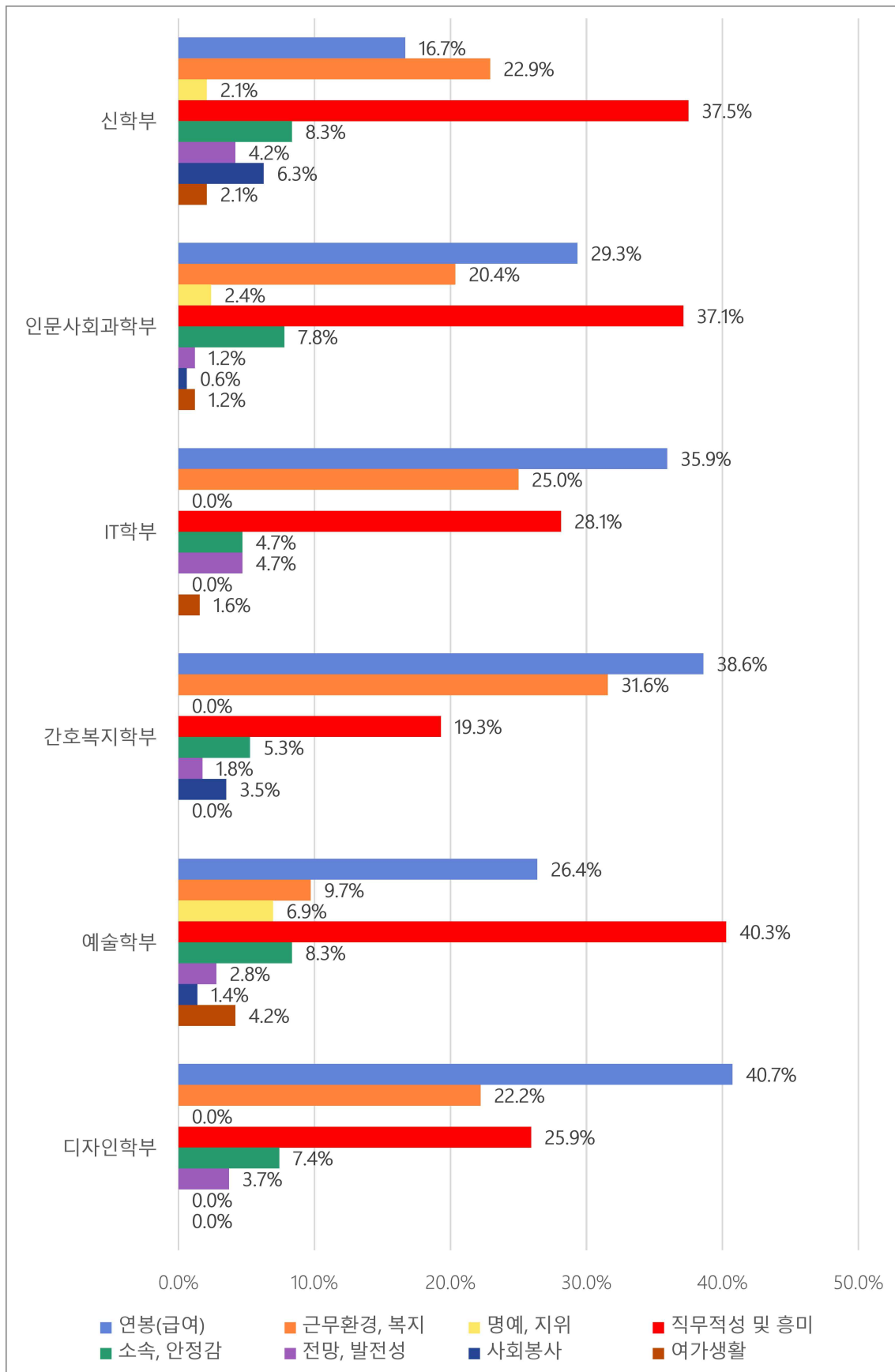
2) 직업 선택 시 우선 고려하는 것

직업 선택 시 우선 고려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은 직무적성 및 흥미(33.3%)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그다음으로는 연봉(30.3%), 근무환경·복지(21.1%) 순이다. 직무적성 및 흥미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예술학부(40.3%)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신학부(37.5%), 인문사회과학부(37.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35.0%), 여학생(32.0%) 모두 직업 선택 시 직무 적성 및 흥미를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직업 선택 시 우선 고려하는 것

단위: 명, %

	연봉(급여)	근무환경, 복지	명예, 지위	직무적성 및 흥미	소속, 안정감	전망, 발전성	사회봉사	여가생활	전체
남	53	40	6	63	9	3	2	4	180
	29.4%	22.2%	3.3%	35.0%	5.0%	1.7%	1.1%	2.2%	100.0%
여	79	52	4	81	22	7	5	3	253
	31.2%	20.6%	1.6%	32.0%	8.7%	2.8%	2.0%	1.2%	100.0%
제3의 성	0	0	0	1	0	1	0	0	2
	0.0%	0.0%	0.0%	50.0%	0.0%	50.0%	0.0%	0.0%	100.0%
신학부	8	11	1	18	4	2	3	1	48
	16.7%	22.9%	2.1%	37.5%	8.3%	4.2%	6.3%	2.1%	100.0%
인문사회 과학부	49	34	4	62	13	2	1	2	167
	29.3%	20.4%	2.4%	37.1%	7.8%	1.2%	0.6%	1.2%	100.0%
IT학부	23	16	0	18	3	3	0	1	64
	35.9%	25.0%	0.0%	28.1%	4.7%	4.7%	0.0%	1.6%	100.0%
간호복지 학부	22	18	0	11	3	1	2	0	57
	38.6%	31.6%	0.0%	19.3%	5.3%	1.8%	3.5%	0.0%	100.0%
예술 학부	19	7	5	29	6	2	1	3	72
	26.4%	9.7%	6.9%	40.3%	8.3%	2.8%	1.4%	4.2%	100.0%
디자인 학부	11	6	0	7	2	1	0	0	27
	40.7%	22.2%	0.0%	25.9%	7.4%	3.7%	0.0%	0.0%	100.0%
전체	132	92	10	145	31	11	7	7	435
	30.3%	21.1%	2.3%	33.3%	7.1%	2.5%	1.6%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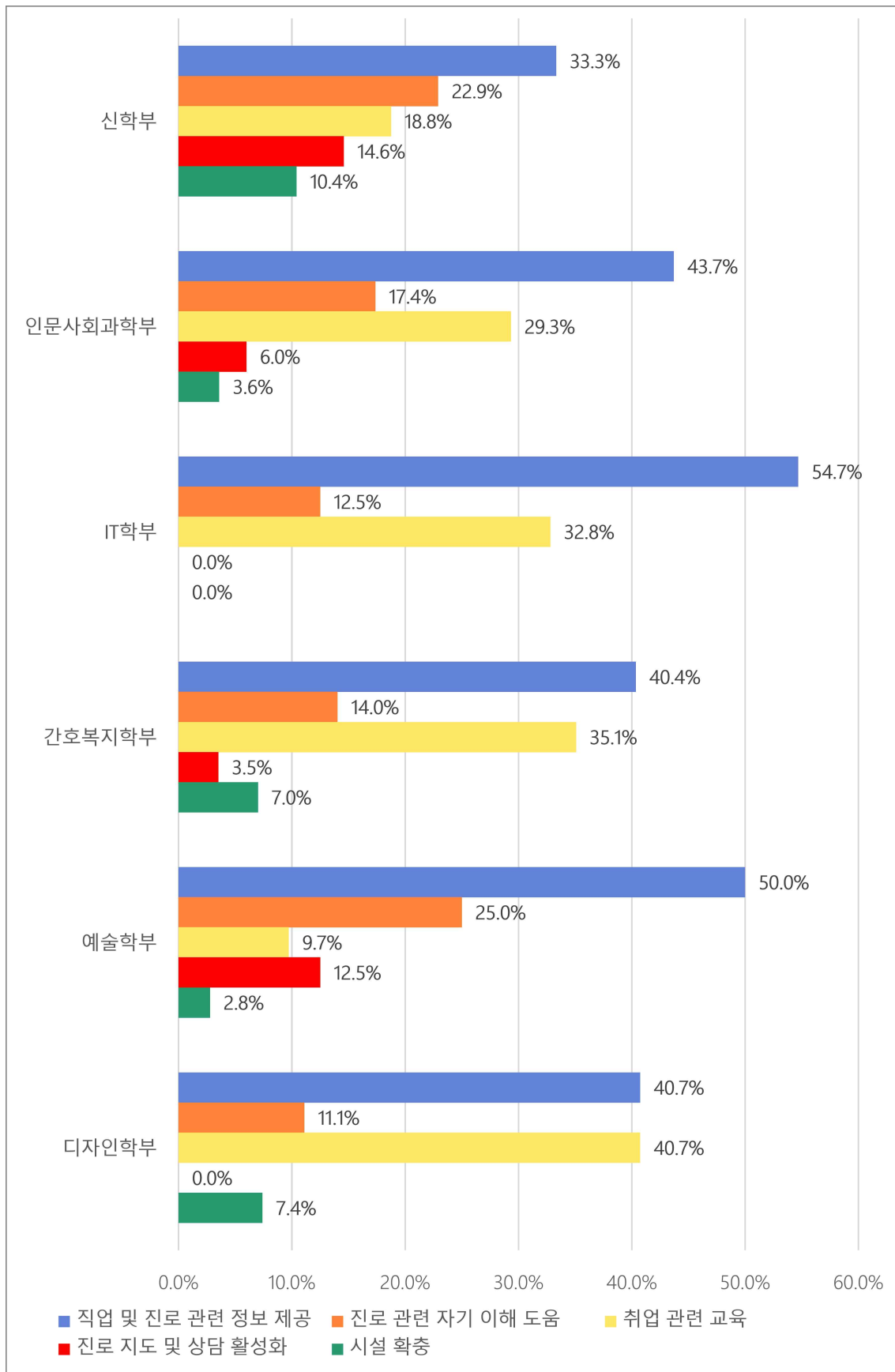
3) 취업 관련 학교에 가장 원하는 지원

신입생들이 취업에 관해 학교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기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제공(44.6%)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취업 관련 교육(26.9%), 진로 관련 자기 이해 도움(17.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54.7%), 예술학부(50.0%), 인문사회과학부(43.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50.6%), 여학생(40.7%) 모두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 제공을 원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4>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

단위: 명, %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 제공	진로 관련 자기 이해 도움	취업 관련 교육	진로 지도 및 상담 활성화	시설 확충	전체
남	91	32	39	12	6	180
	50.6%	17.8%	21.7%	6.7%	3.3%	100.0%
여	103	45	76	16	13	253
	40.7%	17.8%	30.0%	6.3%	5.1%	100.0%
기타	0	0	2	0	0	2
	0.0%	0.0%	100.0%	0.0%	0.0%	100.0%
신학부	16	11	9	7	5	48
	33.3%	22.9%	18.8%	14.6%	10.4%	100.0%
인문사회과학부	73	29	49	10	6	167
	43.7%	17.4%	29.3%	6.0%	3.6%	100.0%
IT학부	35	8	21	0	0	64
	54.7%	12.5%	32.8%	0.0%	0.0%	100.0%
간호복지학부	23	8	20	2	4	57
	40.4%	14.0%	35.1%	3.5%	7.0%	100.0%
예술학부	36	18	7	9	2	72
	50.0%	25.0%	9.7%	12.5%	2.8%	100.0%
디자인학부	11	3	11	0	2	27
	40.7%	11.1%	40.7%	0.0%	7.4%	100.0%
전체	194	77	117	28	19	435
	44.6%	17.7%	26.9%	6.4%	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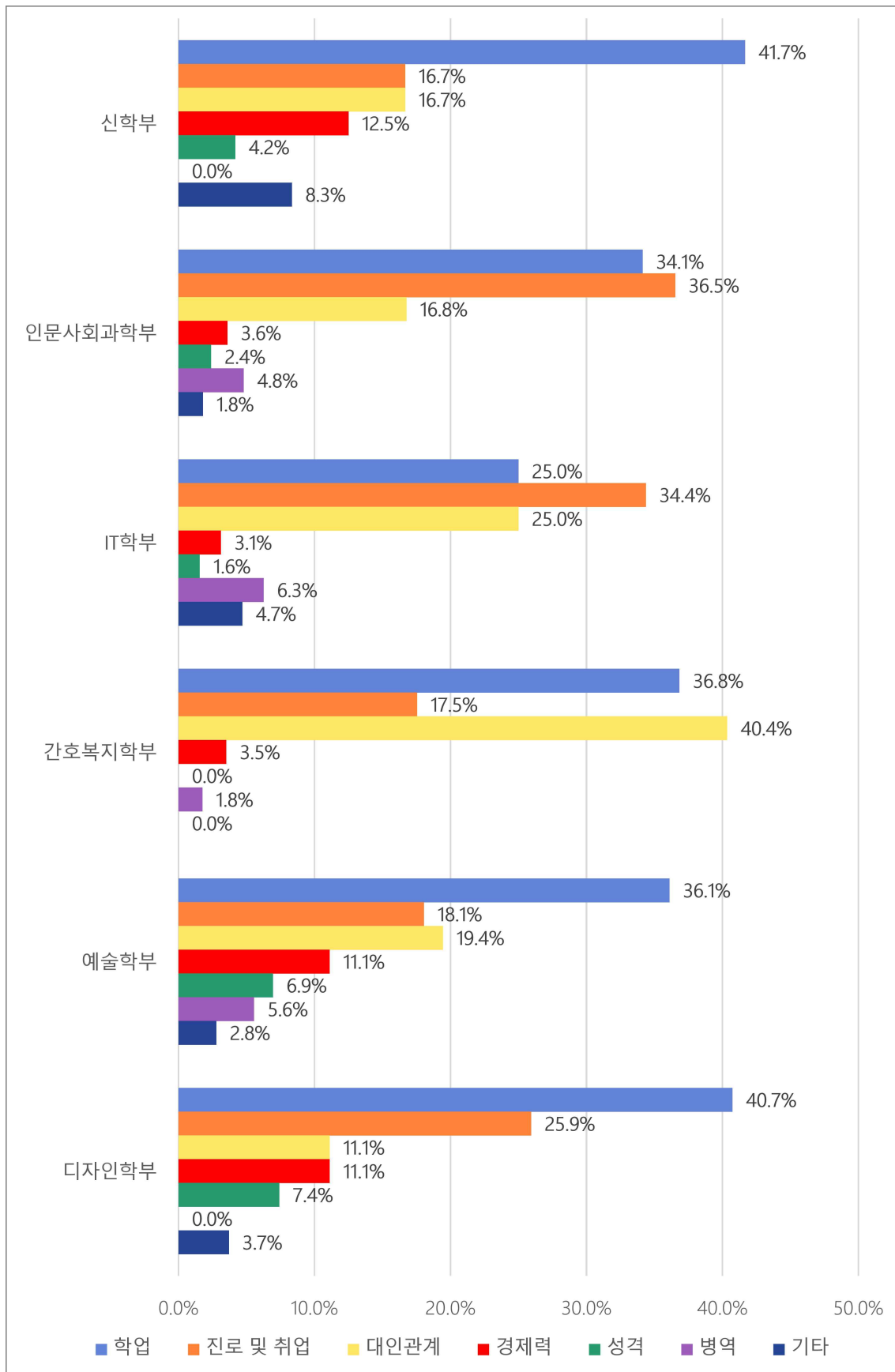
4) 대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학업(34.7%)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진로 및 취업 문제(27.8%), 대인관계(21.1%) 순이었다. 학부별로 보면 학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학부는 신학부(41.7%), 디자인학부(40.7%), 간호복지학부(36.8%) 순이며, 진로 취업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학부는 인문사회과학부(36.5%), IT학부(34.4%), 디자인학부(25.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39.9%), 남학생(26.7%) 모두 학업에 대해 걱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25>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

단위: 명, %

	학업	진로 및 취업	대인관계	경제력	성격	병역	기타	전체
남	48	48	42	12	6	15	9	180
	26.7%	26.7%	23.3%	6.7%	3.3%	8.3%	5.0%	100.0%
여	101	73	50	15	8	2	4	253
	39.9%	28.9%	19.8%	5.9%	3.2%	0.8%	1.6%	100.0%
기타	2	0	0	0	0	0	0	2
	10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20	8	8	6	2	0	4	48
	41.7%	16.7%	16.7%	12.5%	4.2%	0.0%	8.3%	100.0%
인문사회 과학부	57	61	28	6	4	8	3	167
	34.1%	36.5%	16.8%	3.6%	2.4%	4.8%	1.8%	100.0%
IT학부	16	22	16	2	1	4	3	64
	25.0%	34.4%	25.0%	3.1%	1.6%	6.3%	4.7%	100.0%
간호복지 학부	21	10	23	2	0	1	0	57
	36.8%	17.5%	40.4%	3.5%	0.0%	1.8%	0.0%	100.0%
예술학부	26	13	14	8	5	4	2	72
	36.1%	18.1%	19.4%	11.1%	6.9%	5.6%	2.8%	100.0%
디자인학부	11	7	3	3	2	0	1	27
	40.7%	25.9%	11.1%	11.1%	7.4%	0.0%	3.7%	100.0%
전체	151	121	92	27	14	17	13	435
	34.7%	27.8%	21.1%	6.2%	3.2%	3.9%	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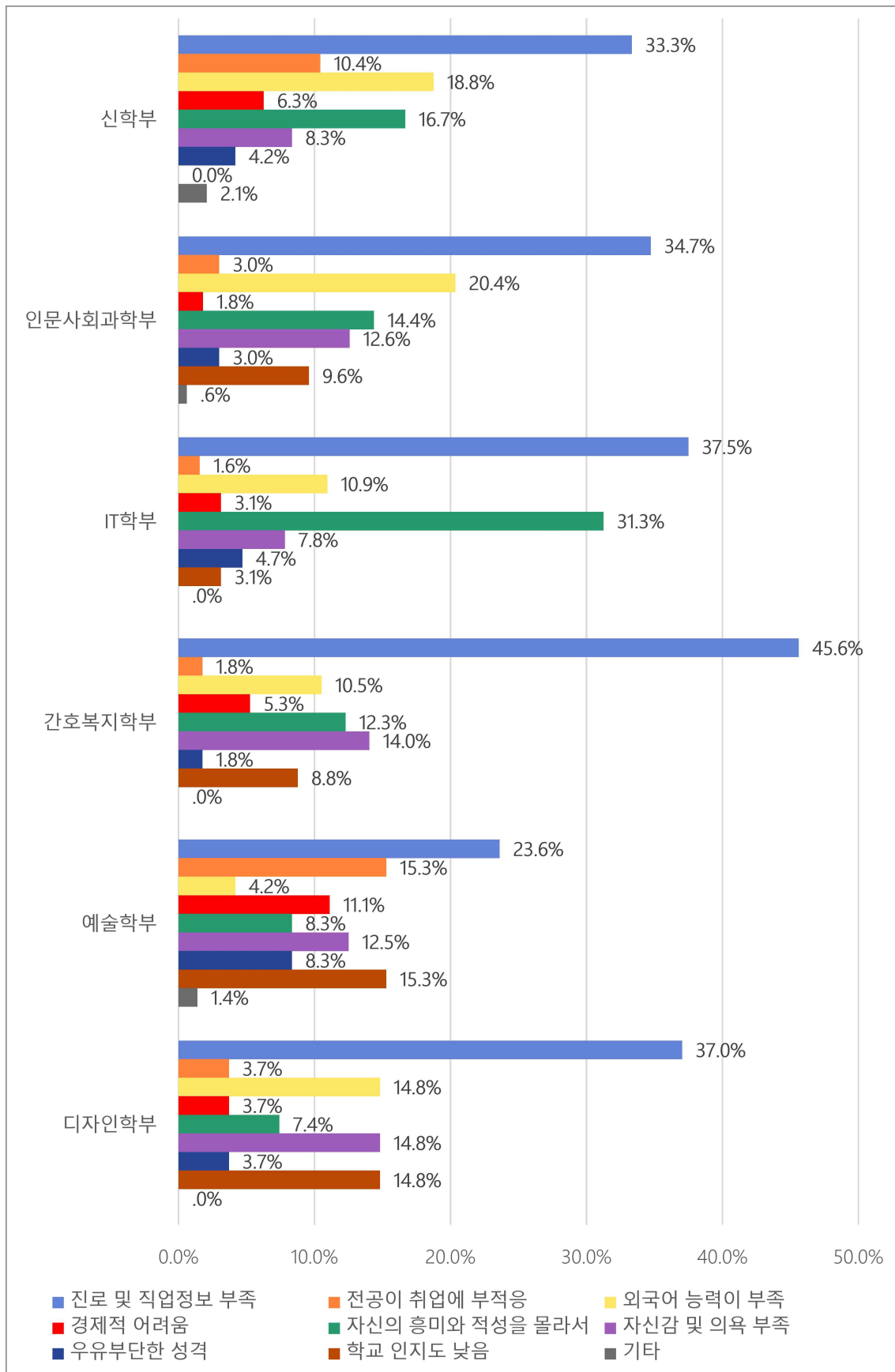
5)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신입생들이 진로 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에 관한 질문에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이라는 응답이 3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15.4%), 외국어 능력 부족(14.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38.3%)과 여학생(32.0%) 모두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이 진로 결정 시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했다.

<표 26>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전공이 취업에 부적응	외국어 능력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	자신감 및 의욕 부족	우유부단 한 성격	학교 인지도 낮음	기타	전체
남	69	9	29	12	28	15	7	11	0	180
	38.3%	5.0%	16.1%	6.7%	15.6%	8.3%	3.9%	6.1%	0.0%	100.0%
여	81	15	34	8	39	35	11	27	3	253
	32.0%	5.9%	13.4%	3.2%	15.4%	13.8%	4.3%	10.7%	1.2%	100.0%
제3의 성	1	0	0	0	0	1	0	0	0	2
	50.0%	0.0%	0.0%	0.0%	0.0%	50.0%	0.0%	0.0%	0.0%	100.0%
신학부	16	5	9	3	8	4	2	0	1	48
	33.3%	10.4%	18.8%	6.3%	16.7%	8.3%	4.2%	0.0%	2.1%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58	5	34	3	24	21	5	16	1	167
	34.7%	3.0%	20.4%	1.8%	14.4%	12.6%	3.0%	9.6%	0.6%	100.0%
IT학부	24	1	7	2	20	5	3	2	0	64
	37.5%	1.6%	10.9%	3.1%	31.3%	7.8%	4.7%	3.1%	0.0%	100.0%
간호 복지 학부	26	1	6	3	7	8	1	5	0	57
	45.6%	1.8%	10.5%	5.3%	12.3%	14.0%	1.8%	8.8%	0.0%	100.0%
예술 학부	17	11	3	8	6	9	6	11	1	72
	23.6%	15.3%	4.2%	11.1%	8.3%	12.5%	8.3%	15.3%	1.4%	100.0%
디자인 학부	10	1	4	1	2	4	1	4	0	27
	37.0%	3.7%	14.8%	3.7%	7.4%	14.8%	3.7%	14.8%	0.0%	100.0%
전체	151	24	63	20	67	51	18	38	3	435
	34.7%	5.5%	14.5%	4.6%	15.4%	11.7%	4.1%	8.7%	0.7%	100.0%



5. 정신건강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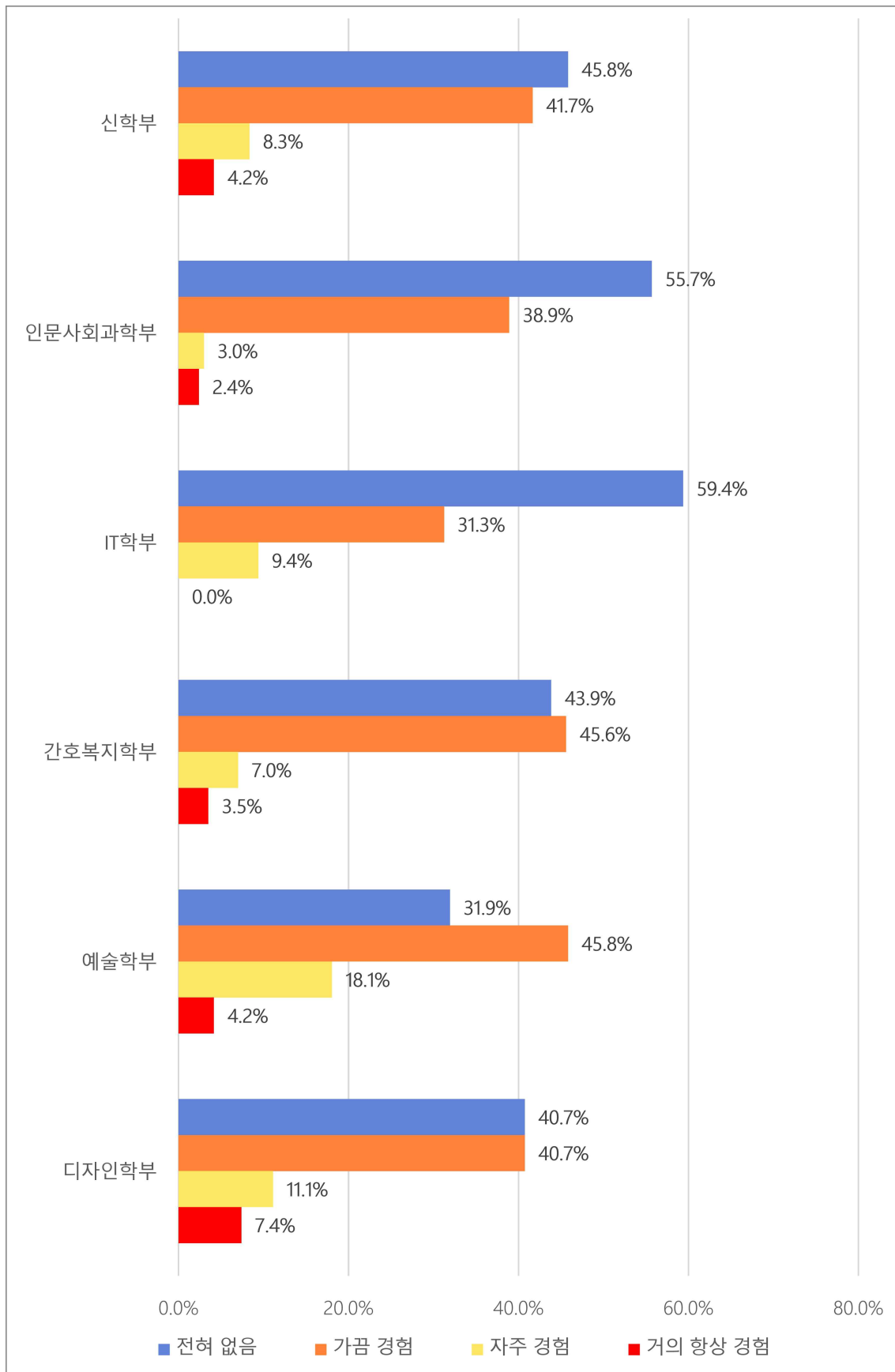
1) 최근 3개월간 외로움을 경험한 정도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외로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8.7%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가끔 경험(40.2%), 자주 경험(8.0%)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없음이라는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59.4%), 인문사회과학부(55.7%), 신학부(45.8%) 순이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53.8%, 여학생 45.5%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작년 대비(35.6%) 전혀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13.1%나 크게 상승하였다.

<표 27> 외로움

단위: 명, %

	전혀 없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거의 항상 경험	전체
남	96	63	15	6	180
	53.3%	35.0%	8.3%	3.3%	100.0%
여	115	111	20	7	253
	45.5%	43.9%	7.9%	2.8%	100.0%
제3의 성	1	1	0	0	2
	50.0%	50.0%	0.0%	0.0%	100.0%
신학부	22	20	4	2	48
	45.8%	41.7%	8.3%	4.2%	100.0%
인문사회과학부	93	65	5	4	167
	55.7%	38.9%	3.0%	2.4%	100.0%
IT학부	38	20	6	0	64
	59.4%	31.3%	9.4%	0.0%	100.0%
간호복지학부	25	26	4	2	57
	43.9%	45.6%	7.0%	3.5%	100.0%
예술학부	23	33	13	3	72
	31.9%	45.8%	18.1%	4.2%	100.0%
디자인학부	11	11	3	2	27
	40.7%	40.7%	11.1%	7.4%	100.0%
전체	212	175	35	13	435
	48.7%	40.2%	8.0%	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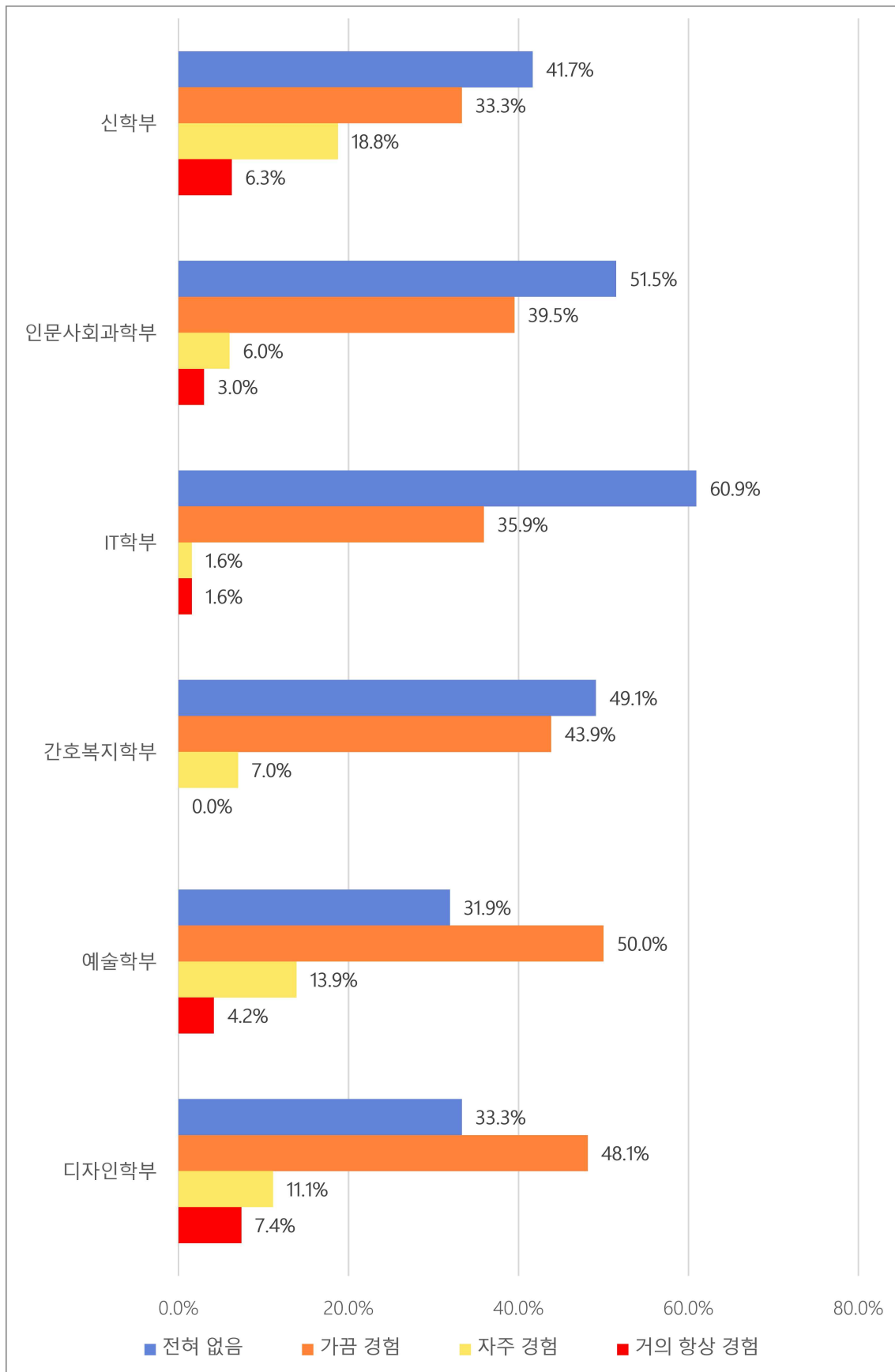
2) 최근 3개월간 불안을 경험한 정도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불안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7.1%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가끔 경험(41.1%), 자주 경험(8.5%) 순이었다. 전혀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60.9%), 인문사회과학부(51.5%), 간호복지학부(49.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53.5%, 여학생 42.7%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특이점은 작년대비(31.7%) 전혀 없음의 응답 비율이 15.4%나 크게 상승하였다.

<표 28> 불안

단위: 명, %

	전혀 없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거의 항상 경험	전체
남	96	65	13	6	180
	53.3%	36.1%	7.2%	3.3%	100.0%
여	108	113	24	8	253
	42.7%	44.7%	9.5%	3.2%	100.0%
제3의 성	1	1	0	0	2
	50.0%	50.0%	0.0%	0.0%	100.0%
신학부	20	16	9	3	48
	41.7%	33.3%	18.8%	6.3%	100.0%
인문사회과학부	86	66	10	5	167
	51.5%	39.5%	6.0%	3.0%	100.0%
IT학부	39	23	1	1	64
	60.9%	35.9%	1.6%	1.6%	100.0%
간호복지학부	28	25	4	0	57
	49.1%	43.9%	7.0%	0.0%	100.0%
예술학부	23	36	10	3	72
	31.9%	50.0%	13.9%	4.2%	100.0%
디자인학부	9	13	3	2	27
	33.3%	48.1%	11.1%	7.4%	100.0%
전체	205	179	37	14	435
	47.1%	41.1%	8.5%	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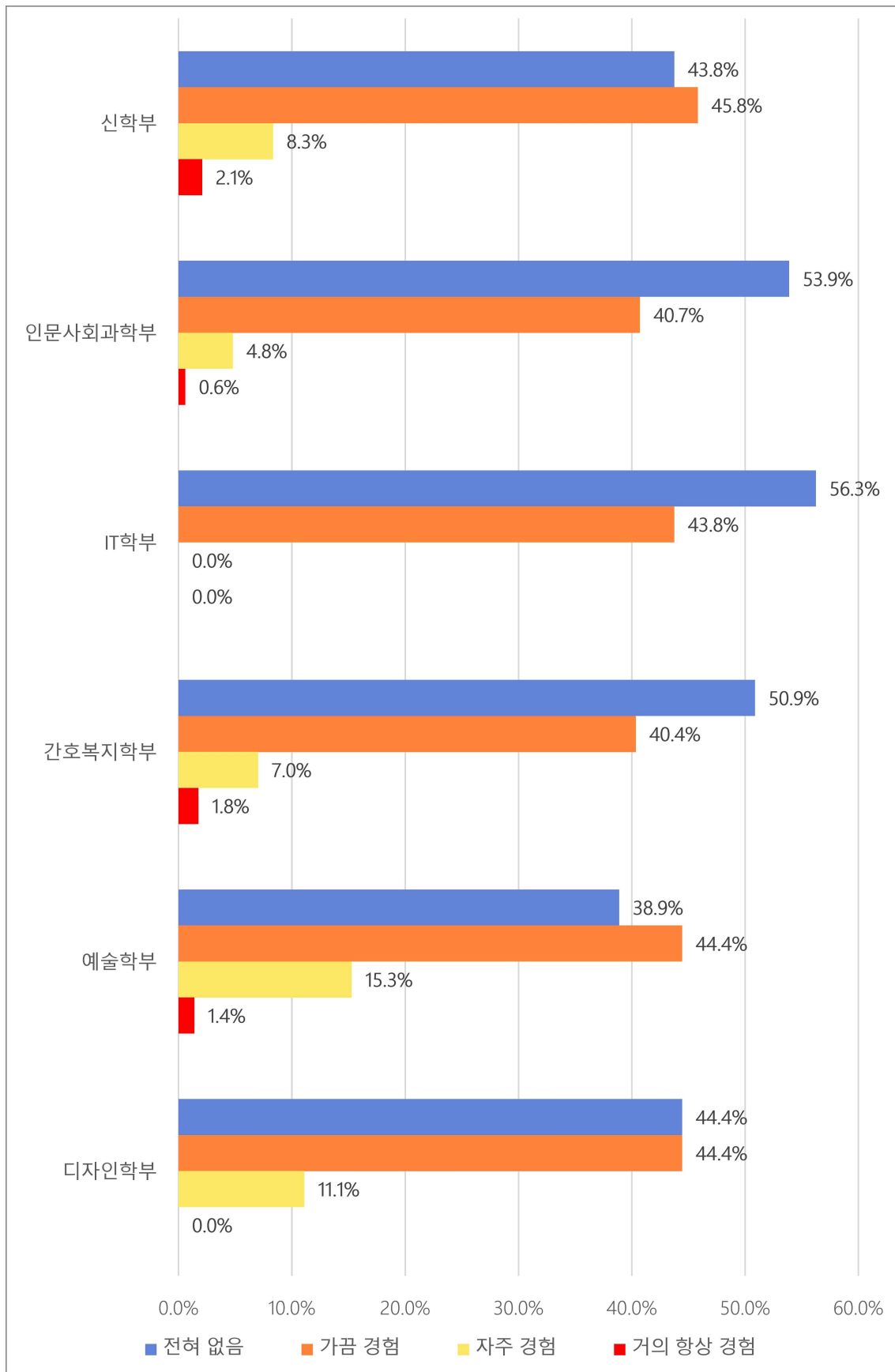
3) 최근 3개월간 분노를 경험한 정도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분노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9.7%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가끔 경험(42.5%), 자주 경험(6.9%) 순이었다. 전혀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56.3%), 인문사회과학부(53.9%), 간호복지학부(50.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53.9%, 여학생 47.0%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특이점은 작년대비 전혀 없음(43.5%)의 응답 비율이 6.2%나 상승하였고 자주 경험(11.1%)의 응답 비율은 4.2% 감소하였다.

<표 29> 분노

단위: 명, %

	전혀 없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거의 항상 경험	전체
남	97	72	11	0	180
	53.9%	40.0%	6.1%	0.0%	100.0%
여	119	111	19	4	253
	47.0%	43.9%	7.5%	1.6%	100.0%
제3의 성	0	2	0	0	2
	0.0%	100.0%	0.0%	0.0%	100.0%
신학부	21	22	4	1	48
	43.8%	45.8%	8.3%	2.1%	100.0%
인문사회과학부	90	68	8	1	167
	53.9%	40.7%	4.8%	0.6%	100.0%
IT학부	36	28	0	0	64
	56.3%	43.8%	0.0%	0.0%	100.0%
간호복지학부	29	23	4	1	57
	50.9%	40.4%	7.0%	1.8%	100.0%
예술학부	28	32	11	1	72
	38.9%	44.4%	15.3%	1.4%	100.0%
디자인학부	12	12	3	0	27
	44.4%	44.4%	11.1%	0.0%	100.0%
전체	216	185	30	4	435
	49.7%	42.5%	6.9%	0.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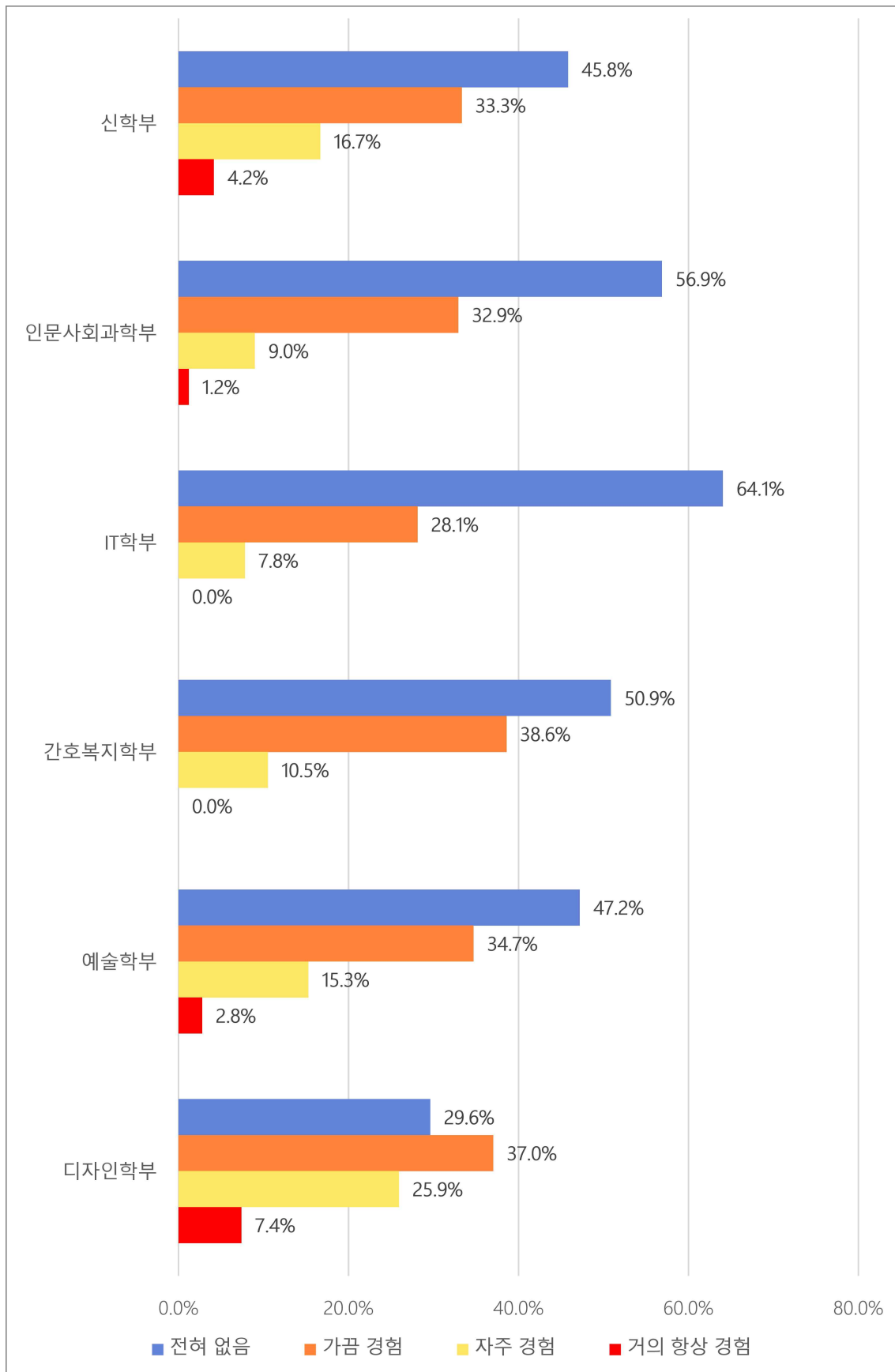
4) 최근 3개월간 우울과 무기력을 경험한 정도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우울과 무기력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52.6%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가끔 경험(33.6%), 자주 경험(12.0%) 순이었다. 전혀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61.4%), 인문사회과학부(56.9%), 간호복지학부(50.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61.1%, 여학생 47.0%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특이점은 작년대비 전혀 없음(31.7%)의 응답 비율이 20.9%나 크게 상승하였고 거의 항상 경험(8.4%)의 응답 비율은 6.6%가 감소하였다.

<표 30> 우울과 무기력

단위: 명, %

	전혀 없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거의 항상 경험	전체
남	110	54	14	2	180
	61.1%	30.0%	7.8%	1.1%	100.0%
여	119	90	38	6	253
	47.0%	35.6%	15.0%	2.4%	100.0%
제3의 성	0	2	0	0	2
	0.0%	100.0%	0.0%	0.0%	100.0%
신학부	22	16	8	2	48
	45.8%	33.3%	16.7%	4.2%	100.0%
인문사회과학부	95	55	15	2	167
	56.9%	32.9%	9.0%	1.2%	100.0%
IT학부	41	18	5	0	64
	64.1%	28.1%	7.8%	0.0%	100.0%
간호복지학부	29	22	6	0	57
	50.9%	38.6%	10.5%	0.0%	100.0%
예술학부	34	25	11	2	72
	47.2%	34.7%	15.3%	2.8%	100.0%
디자인학부	8	10	7	2	27
	29.6%	37.0%	25.9%	7.4%	100.0%
전체	229	146	52	8	435
	52.6%	33.6%	12.0%	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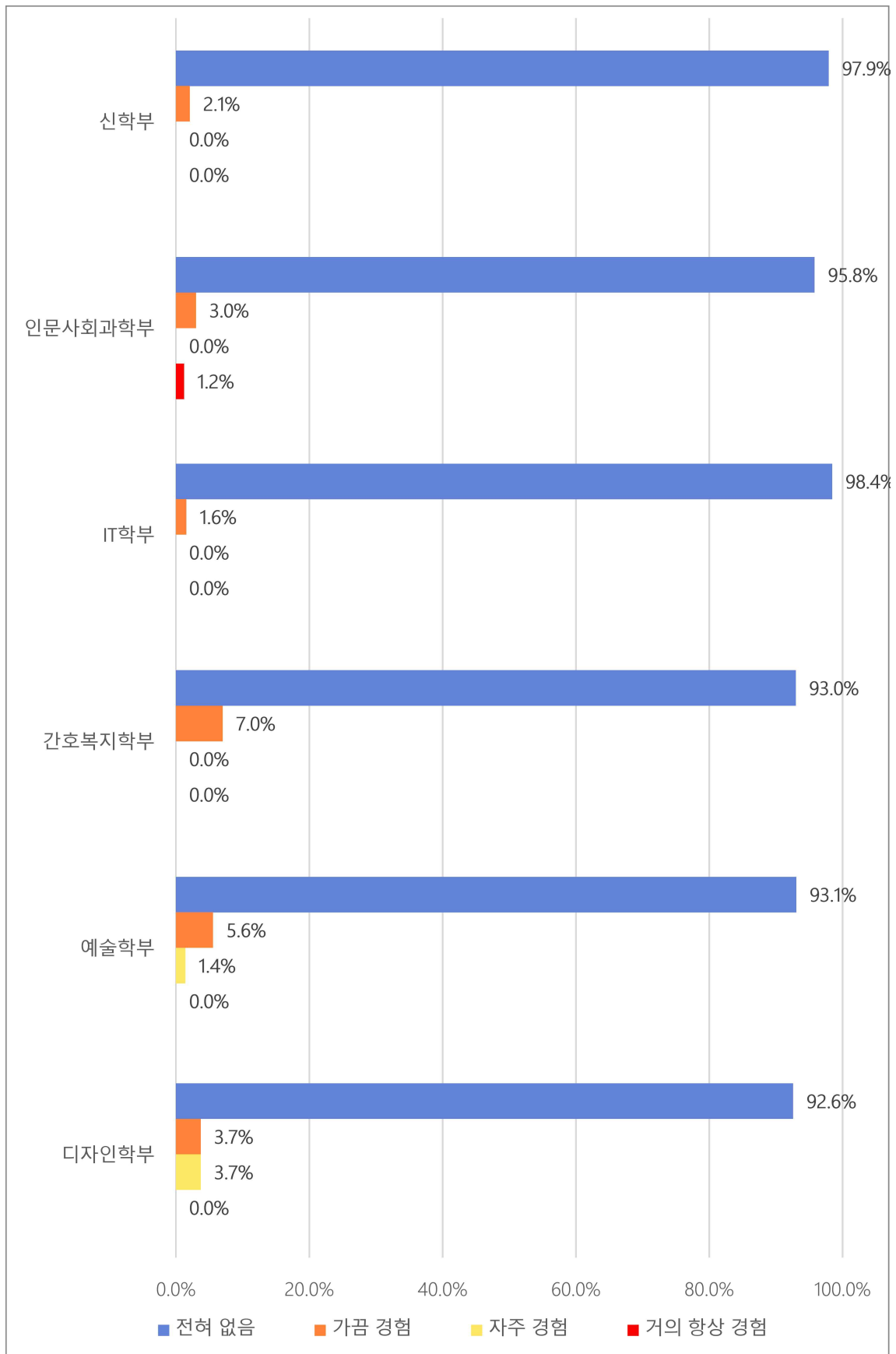
5) 최근 3개월간 자해 충동을 경험한 정도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자해 충동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95.4%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가끔 경험(3.7%), 자주 경험(0.5%) 순이었다. 전혀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98.4%), 신학부(97.9%), 인문사회과학부(95.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97.2%, 여학생 94.1%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특이점은 작년대비 전혀 없음(87.3%)의 응답 비율이 8.1%나 크게 상승하였고 가끔 경험(8.7%)의 응답 비율은 5.0%가 감소하였다.

<표 32> 자해 충동

단위: 명, %

	전혀 없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거의 항상 경험	전체
남	175	4	1	0	180
	97.2%	2.2%	0.6%	0.0%	100.0%
여	238	12	1	2	253
	94.1%	4.7%	0.4%	0.8%	100.0%
제3의 성	2	0	0	0	2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47	1	0	0	48
	97.9%	2.1%	0.0%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160	5	0	2	167
	95.8%	3.0%	0.0%	1.2%	100.0%
IT학부	63	1	0	0	64
	98.4%	1.6%	0.0%	0.0%	100.0%
간호복지학부	53	4	0	0	57
	93.0%	7.0%	0.0%	0.0%	100.0%
예술학부	67	4	1	0	72
	93.1%	5.6%	1.4%	0.0%	100.0%
디자인학부	25	1	1	0	27
	92.6%	3.7%	3.7%	0.0%	100.0%
전체	415	16	2	2	435
	95.4%	3.7%	0.5%	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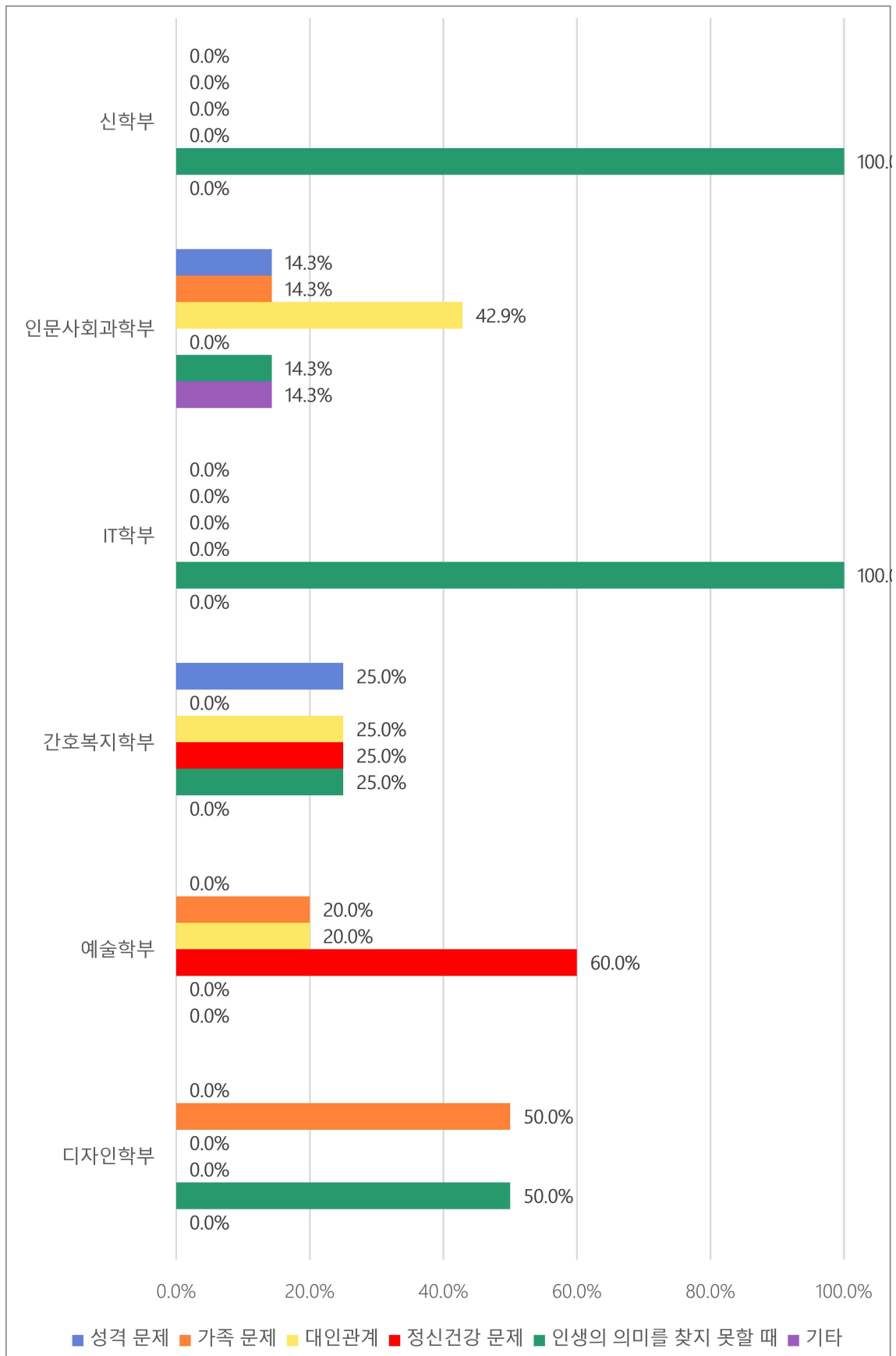
6) 자해 충동의 원인

신입생 중 자해 충동의 경험이 있는 20명을 대상으로 원인에 관한 질문한 결과, 대인관계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정신건강 문제(20.0%)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인문사회과학학부(42.9%)가 높게 나타났으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의 응답 비율은 신학부와 IT학부(100.0%)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40.0%)은 정신건강 문제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라고 답했고 여학생(26.7%) 대인관계가 원인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32> 자해 충동의 원인

단위: 명, %

	성격 문제	가족 문제	대인관계	정신건강 문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기타	전체
남	0	0	1	2	2	0	5
	0.0%	0.0%	20.0%	40.0%	40.0%	0.0%	100.0%
여	2	3	4	2	3	1	15
	13.3%	20.0%	26.7%	13.3%	20.0%	6.7%	100.0%
신학부	0	0	0	0	1	0	1
	0.0%	0.0%	0.0%	0.0%	100.0%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1	1	3	0	1	1	7
	14.3%	14.3%	42.9%	0.0%	14.3%	14.3%	100.0%
IT학부	0	0	0	0	1	0	1
	0.0%	0.0%	0.0%	0.0%	100.0%	0.0%	100.0%
간호복지학부	1	0	1	1	1	0	4
	25.0%	0.0%	25.0%	25.0%	25.0%	0.0%	100.0%
예술학부	0	1	1	3	0	0	5
	0.0%	20.0%	20.0%	60.0%	0.0%	0.0%	100.0%
디자인학부	0	1	0	0	1	0	2
	0.0%	50.0%	0.0%	0.0%	50.0%	0.0%	100.0%
전체	2	3	5	4	5	1	20
	10.0%	15.0%	25.0%	20.0%	25.0%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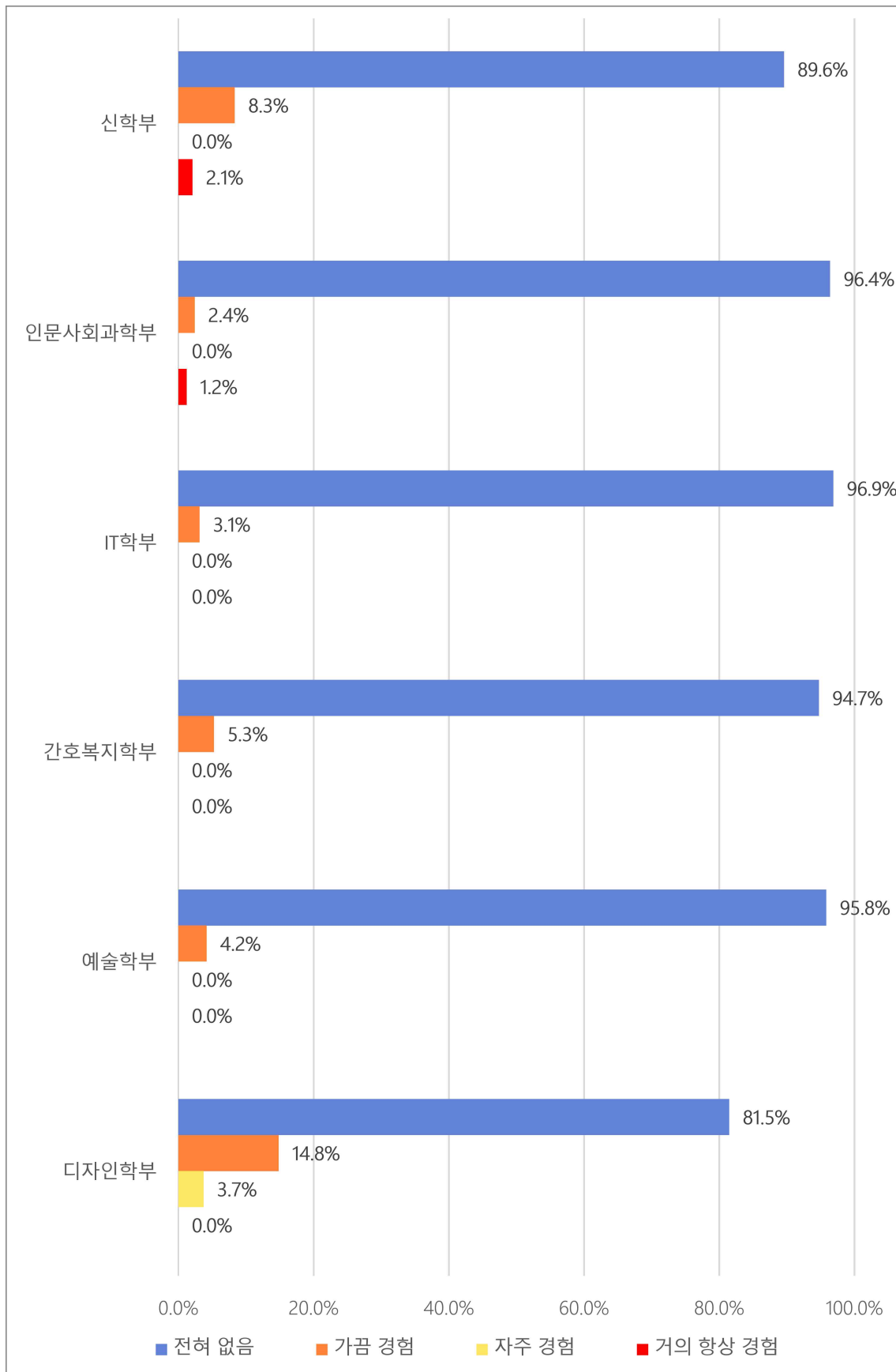
7) 최근 3개월간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정도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자살 충동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94.5%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가끔 경험(4.6%), 거의 항상 경험(0.7%) 순이었다. 전혀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96.9%), 인문사회과학부(96.4%), 예술학부(95.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95.6%, 여학생 93.7%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특이점은 작년대비 전혀 없음(81.0%)의 응답 비율이 13.5%나 크게 상승하였다.고 가끔 경험(8.7%)의 응답 비율은 5.0%가 감소하였다.

<표 33> 자살 충동

단위: 명, %

	전혀 없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거의 항상 경험	전체
남	172	7	0	1	180
	95.6%	3.9%	0.0%	0.6%	100.0%
여	237	13	1	2	253
	93.7%	5.1%	0.4%	0.8%	100.0%
제3의 성	2	0	0	0	2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43	4	0	1	48
	89.6%	8.3%	0.0%	2.1%	100.0%
인문사회과학부	161	4	0	2	167
	96.4%	2.4%	0.0%	1.2%	100.0%
IT학부	62	2	0	0	64
	96.9%	3.1%	0.0%	0.0%	100.0%
간호복지학부	54	3	0	0	57
	94.7%	5.3%	0.0%	0.0%	100.0%
예술학부	69	3	0	0	72
	95.8%	4.2%	0.0%	0.0%	100.0%
디자인학부	22	4	1	0	27
	81.5%	14.8%	3.7%	0.0%	100.0%
전체	411	20	1	3	435
	94.5%	4.6%	0.2%	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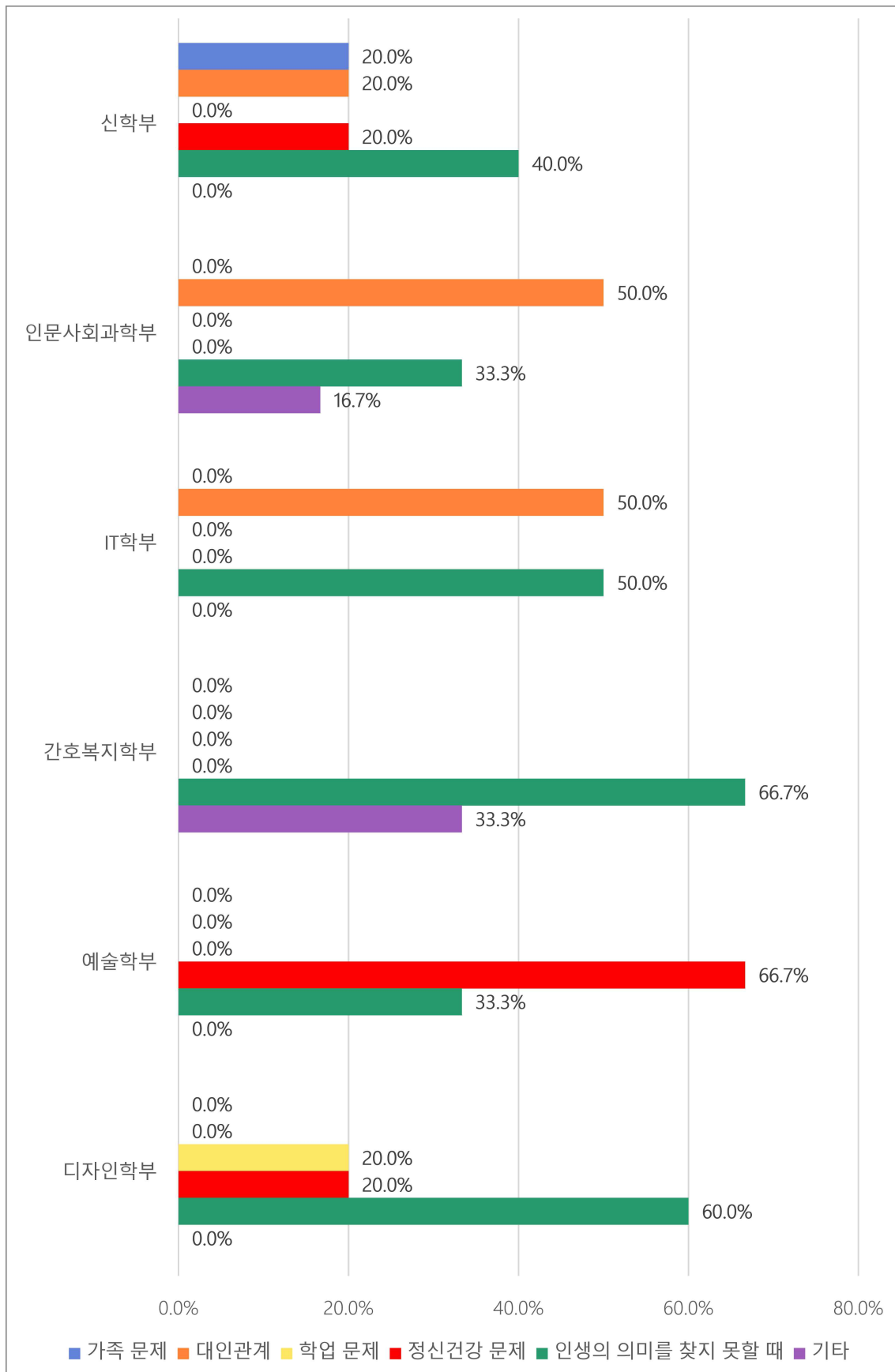
8) 자살 생각의 이유

신입생 중 자살 충동의 경험이 있다는 24명을 대상으로 원인에 관한 질문한 결과, 45.8%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인관계(20.8%), 정신건강 문제(16.7%) 순으로 나타났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간호복지학부(66.7%), 디자인학부(60.0%), IT학부(50.0%) 순이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62.5%)이 여학생(37.5%)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4> 자살 생각을 하는 이유

단위: 명, %

	가족 문제	대인관계	학업 문제	정신건강 문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기타	전체
남	0	2	0	1	5	0	8
	0.0%	25.0%	0.0%	12.5%	62.5%	0.0%	100.0%
여	1	3	1	3	6	2	16
	6.3%	18.8%	6.3%	18.8%	37.5%	12.5%	100.0%
신학부	1	1	0	1	2	0	5
	20.0%	20.0%	0.0%	20.0%	40.0%	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0	3	0	0	2	1	6
	0.0%	50.0%	0.0%	0.0%	33.3%	16.7%	100.0%
IT학부	0	1	0	0	1	0	2
	0.0%	50.0%	0.0%	0.0%	50.0%	0.0%	100.0%
간호복지 학부	0	0	0	0	2	1	3
	0.0%	0.0%	0.0%	0.0%	66.7%	33.3%	100.0%
예술학부	0	0	0	2	1	0	3
	0.0%	0.0%	0.0%	66.7%	33.3%	0.0%	100.0%
디자인학부	0	0	1	1	3	0	5
	0.0%	0.0%	20.0%	20.0%	60.0%	0.0%	100.0%
전체	1	5	1	4	11	2	24
	4.2%	20.8%	4.2%	16.7%	45.8%	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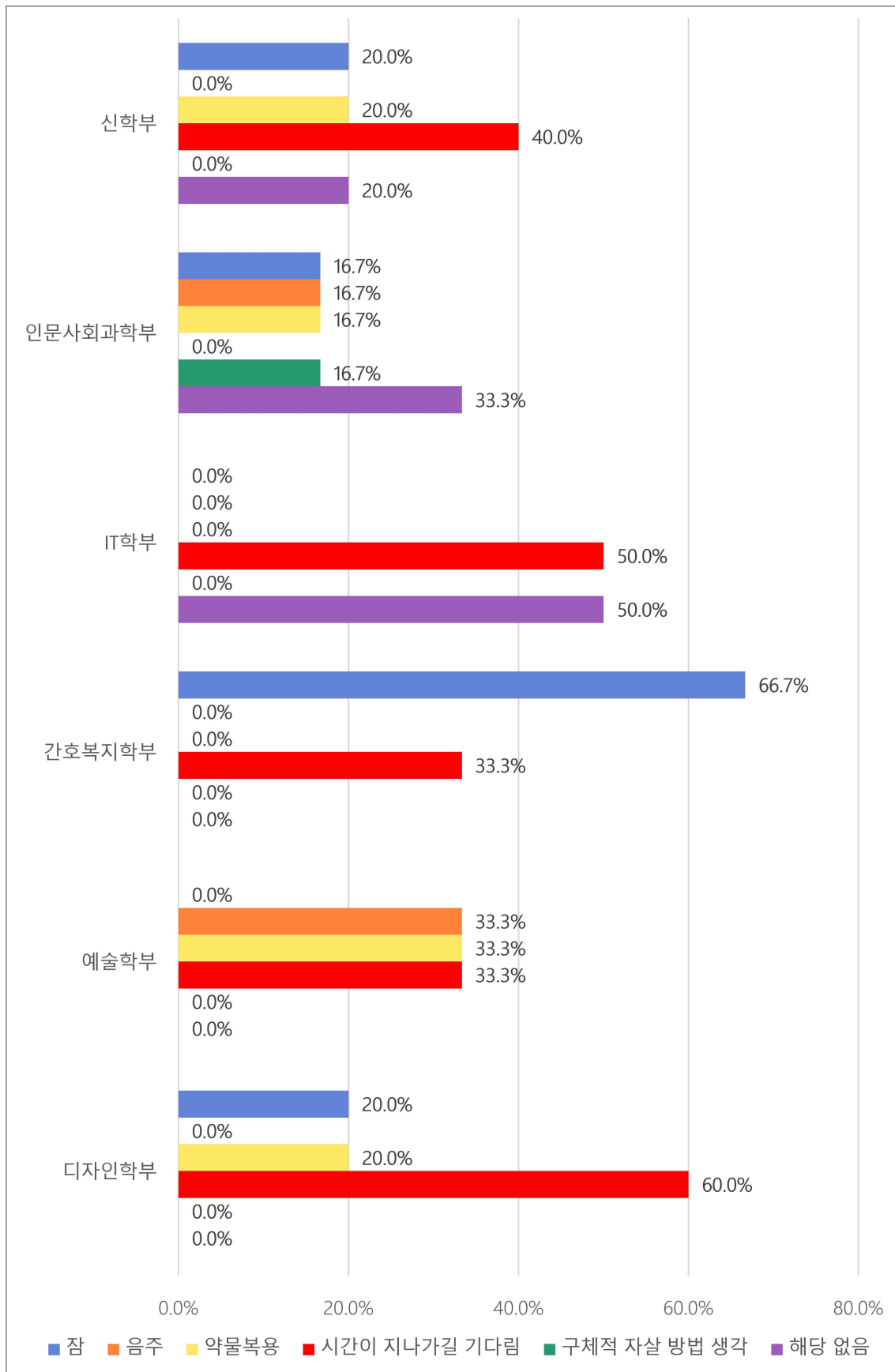
9) 자살 충동 시 대처방식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한 24명에게 자살 충동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을 물어본 결과를 보면 33.3%가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림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잠(20.8%), 약물 복용과 해당 없음(16.7%)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림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학부(60.0%)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IT학부(50.0%), 신학부(4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50.0%의 남학생이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림라고 응답하였으나 31.3%의 여학생은 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5> 자살 충동 시 대처방식

단위: 명, %

	잠	음주	약물복용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림	구체적 자살 방법 생각	해당 없음	전체
남	0	1	1	4	0	2	8
	0.0%	12.5%	12.5%	50.0%	0.0%	25.0%	100.0%
여	5	1	3	4	1	2	16
	31.3%	6.3%	18.8%	25.0%	6.3%	12.5%	100.0%
신학부	1	0	1	2	0	1	5
	20.0%	0.0%	20.0%	40.0%	0.0%	20.0%	100.0%
인문사회과학 부	1	1	1	0	1	2	6
	16.7%	16.7%	16.7%	0.0%	16.7%	33.3%	100.0%
IT학부	0	0	0	1	0	1	2
	0.0%	0.0%	0.0%	50.0%	0.0%	50.0%	100.0%
간호복지학부	2	0	0	1	0	0	3
	66.7%	0.0%	0.0%	33.3%	0.0%	0.0%	100.0%
예술학부	0	1	1	1	0	0	3
	0.0%	33.3%	33.3%	33.3%	0.0%	0.0%	100.0%
디자인학부	1	0	1	3	0	0	5
	20.0%	0.0%	20.0%	60.0%	0.0%	0.0%	100.0%
전체	5	2	4	8	1	4	24
	20.8%	8.3%	16.7%	33.3%	4.2%	1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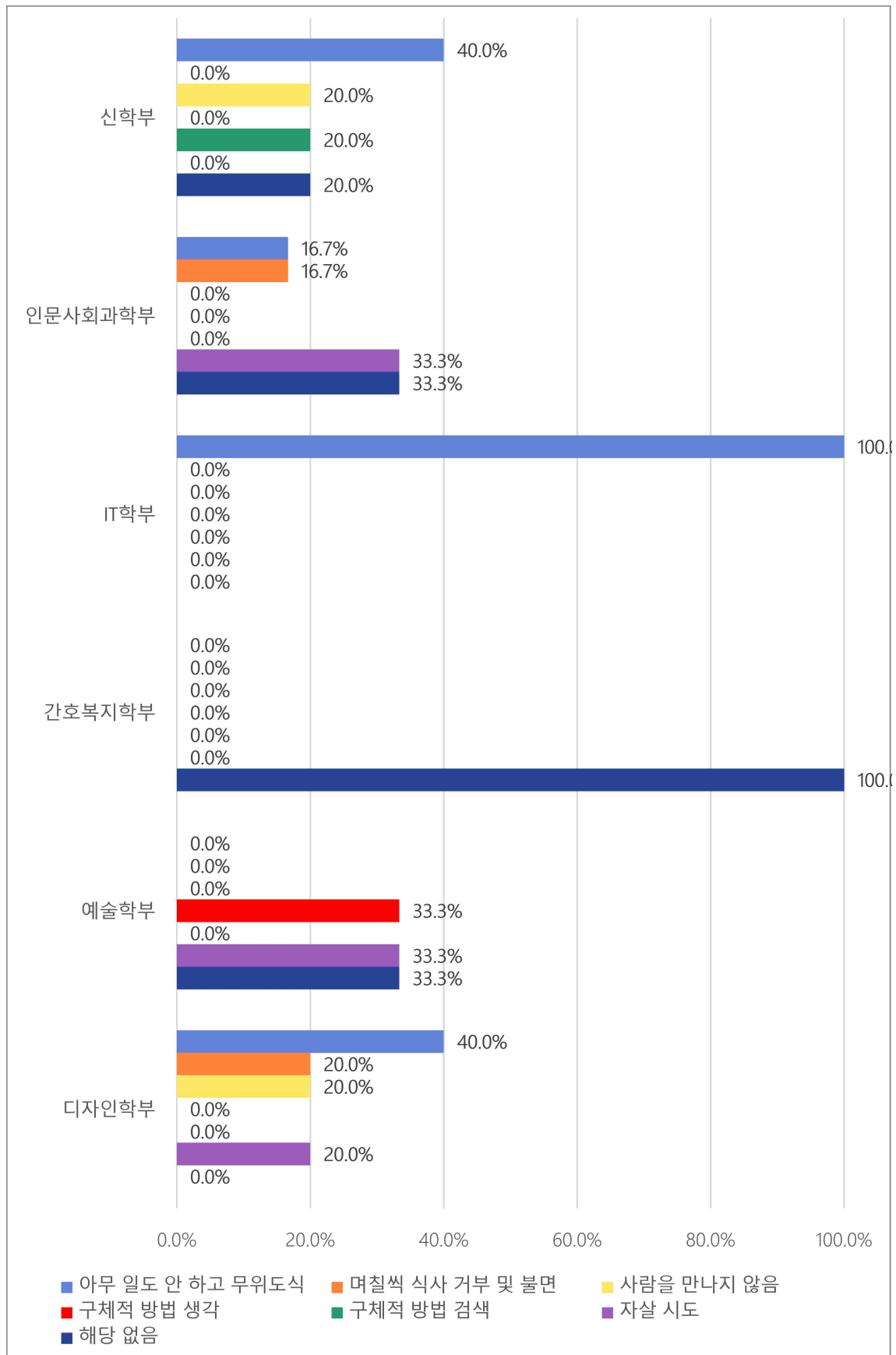
10) 자살 충동 시 진행 정도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한 24명에게 자살 충동이 시 진행 정도를 물어본 결과, 29.2%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위도식과 해당 없음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그다음으로 자살 시도 (16.7%) 순으로 나타났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위도식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 학부(100.0%), 신학부와 디자인학부(0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37.5%의 남학생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위도식이라고 응답하였으나 31.3%의 여학생은 해당 없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6> 자살 충동 시 진행 정도

단위: 명, %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위도식	며칠씩 식사 거부 및 불면	사람을 만나지 않음	구체적 방법 생각	구체적 방법 검색	자살 시도	해당 없음	전체
남	3	1	0	1	0	1	2	8
	37.5%	12.5%	0.0%	12.5%	0.0%	12.5%	25.0%	100.0%
여	4	1	2	0	1	3	5	16
	25.0%	6.3%	12.5%	0.0%	6.3%	18.8%	31.3%	100.0%
신학부	2	0	1	0	1	0	1	5
	40.0%	0.0%	20.0%	0.0%	20.0%	0.0%	2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	1	0	0	0	2	2	6
	16.7%	16.7%	0.0%	0.0%	0.0%	33.3%	33.3%	100.0%
IT학부	2	0	0	0	0	0	0	2
	100.0%	0.0%	0.0%	0.0%	0.0%	0.0%	0.0%	100.0%
간호복지 학부	0	0	0	0	0	0	3	3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예술학부	0	0	0	1	0	1	1	3
	0.0%	0.0%	0.0%	33.3%	0.0%	33.3%	33.3%	100.0%
디자인학부	2	1	1	0	0	1	0	5
	40.0%	20.0%	20.0%	0.0%	0.0%	20.0%	0.0%	100.0%
전체	7	2	2	1	1	4	7	24
	29.2%	8.3%	8.3%	4.2%	4.2%	16.7%	29.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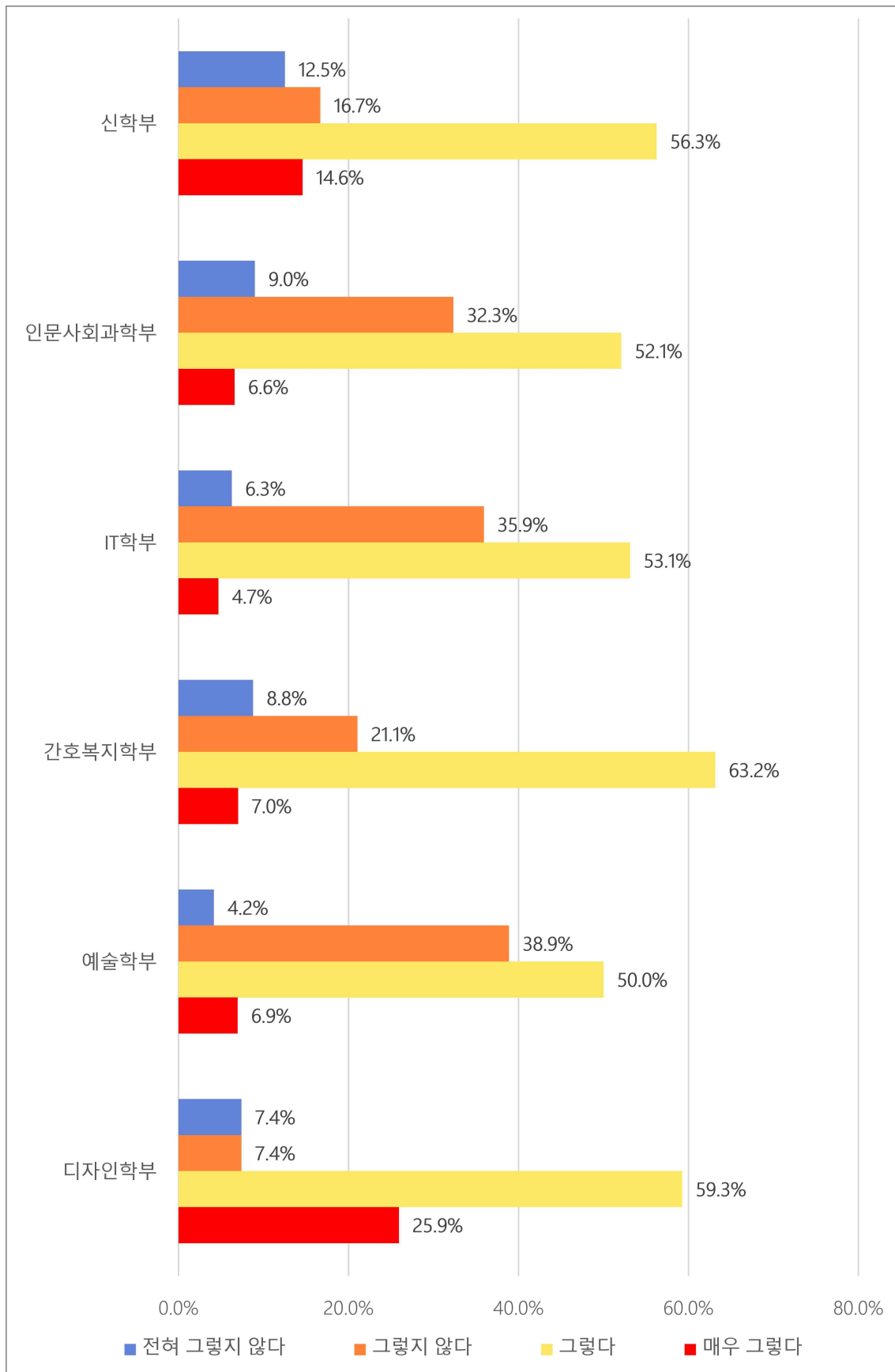
11) 자신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과도한 정도

신입생들에게 자신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과도한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54.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그렇지 않다’(29.7%), ‘매우 그렇다’(8.5%)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간호복지학부(63.2%), 디자인학부(59.3%), 신학부(56.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57.3%)이 남학생(49.4%) 보다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표 37> 자신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과도한 정도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남	23	57	89	11	180
	12.8%	31.7%	49.4%	6.1%	100.0%
여	12	70	145	26	253
	4.7%	27.7%	57.3%	10.3%	100.0%
제3의 성	0	0	2	0	2
	0.0%	0.0%	100.0%	0.0%	100.0%
신학부	6	8	27	7	48
	12.5%	16.7%	56.3%	14.6%	100.0%
인문사회과학부	15	54	87	11	167
	9.0%	32.3%	52.1%	6.6%	100.0%
IT학부	4	23	34	3	64
	6.3%	35.9%	53.1%	4.7%	100.0%
간호복지학부	5	12	36	4	57
	8.8%	21.1%	63.2%	7.0%	100.0%
예술학부	3	28	36	5	72
	4.2%	38.9%	50.0%	6.9%	100.0%
디자인학부	2	2	16	7	27
	7.4%	7.4%	59.3%	25.9%	100.0%
전체	35	127	236	37	435
	8.0%	29.2%	54.3%	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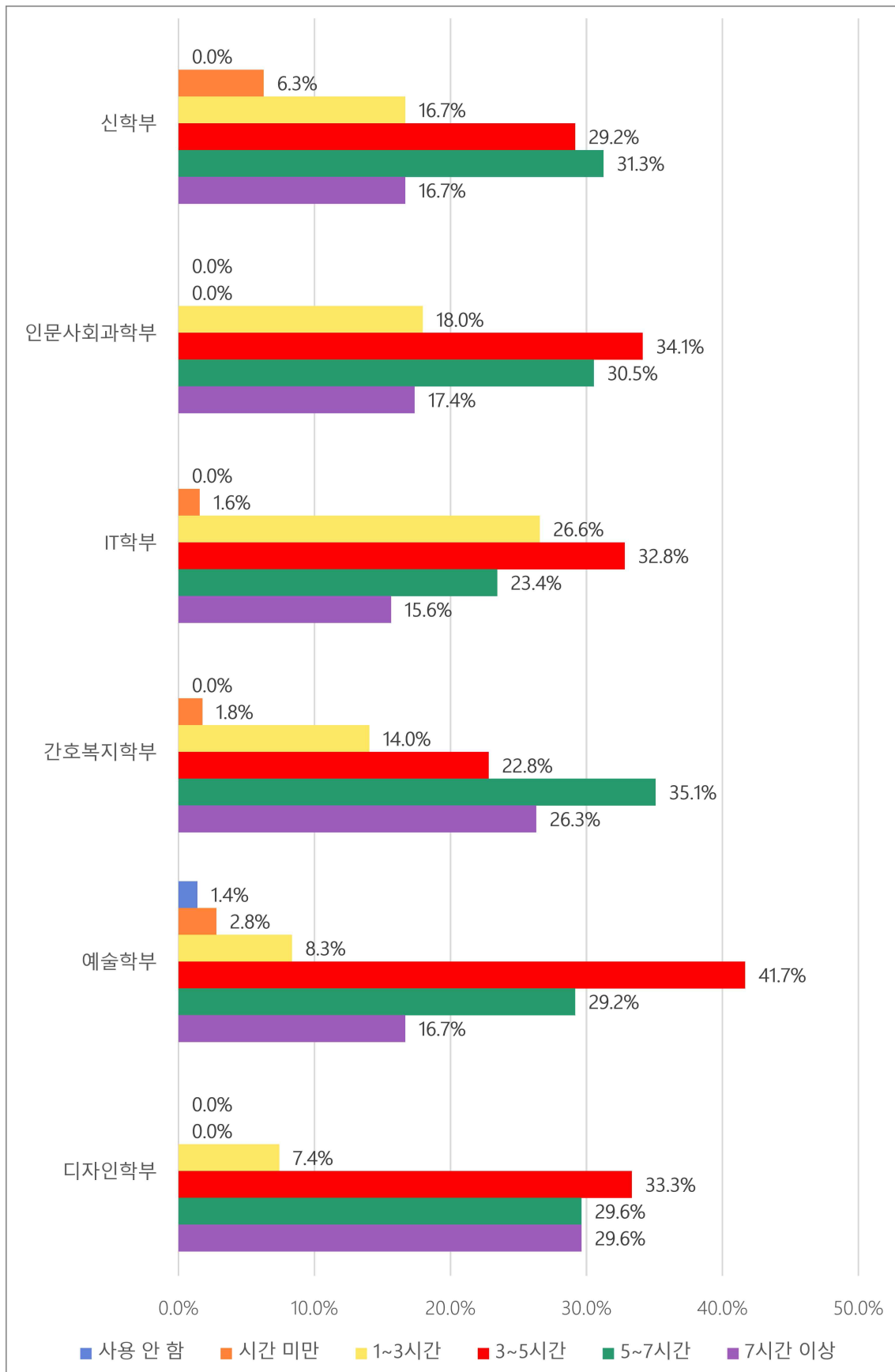
12) 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신입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3~5시간(33.1%)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5~7시간(29.9%), 7시간 이상(18.9%)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예술학부가 3~5시간이라고 응답 비율이 41.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인문사회과학부(34.1%), 디자인학부(33.3%) 순이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37.2%가 3~5시간, 여학생의 35.6%가 5~7시간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아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사용 시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단위: 명, %

	사용 안 함	1시간 미만	1~3시간	3~5시간	5~7시간	7시간 이상	전체
남	0	4	43	67	39	27	180
	0.0%	2.2%	23.9%	37.2%	21.7%	15.0%	100.0%
여	1	3	28	77	90	54	253
	0.4%	1.2%	11.1%	30.4%	35.6%	21.3%	100.0%
제3의 성	0	0	0	0	1	1	2
	0.0%	0.0%	0.0%	0.0%	50.0%	50.0%	100.0%
신학부	0	3	8	14	15	8	48
	0.0%	6.3%	16.7%	29.2%	31.3%	16.7%	100.0%
인문사회 과학부	0	0	30	57	51	29	167
	0.0%	0.0%	18.0%	34.1%	30.5%	17.4%	100.0%
IT학부	0	1	17	21	15	10	64
	0.0%	1.6%	26.6%	32.8%	23.4%	15.6%	100.0%
간호복지 학부	0	1	8	13	20	15	57
	0.0%	1.8%	14.0%	22.8%	35.1%	26.3%	100.0%
예술학부	1	2	6	30	21	12	72
	1.4%	2.8%	8.3%	41.7%	29.2%	16.7%	100.0%
디자인학부	0	0	2	9	8	8	27
	0.0%	0.0%	7.4%	33.3%	29.6%	29.6%	100.0%
전체	1	7	71	144	130	82	435
	0.2%	1.6%	16.3%	33.1%	29.9%	18.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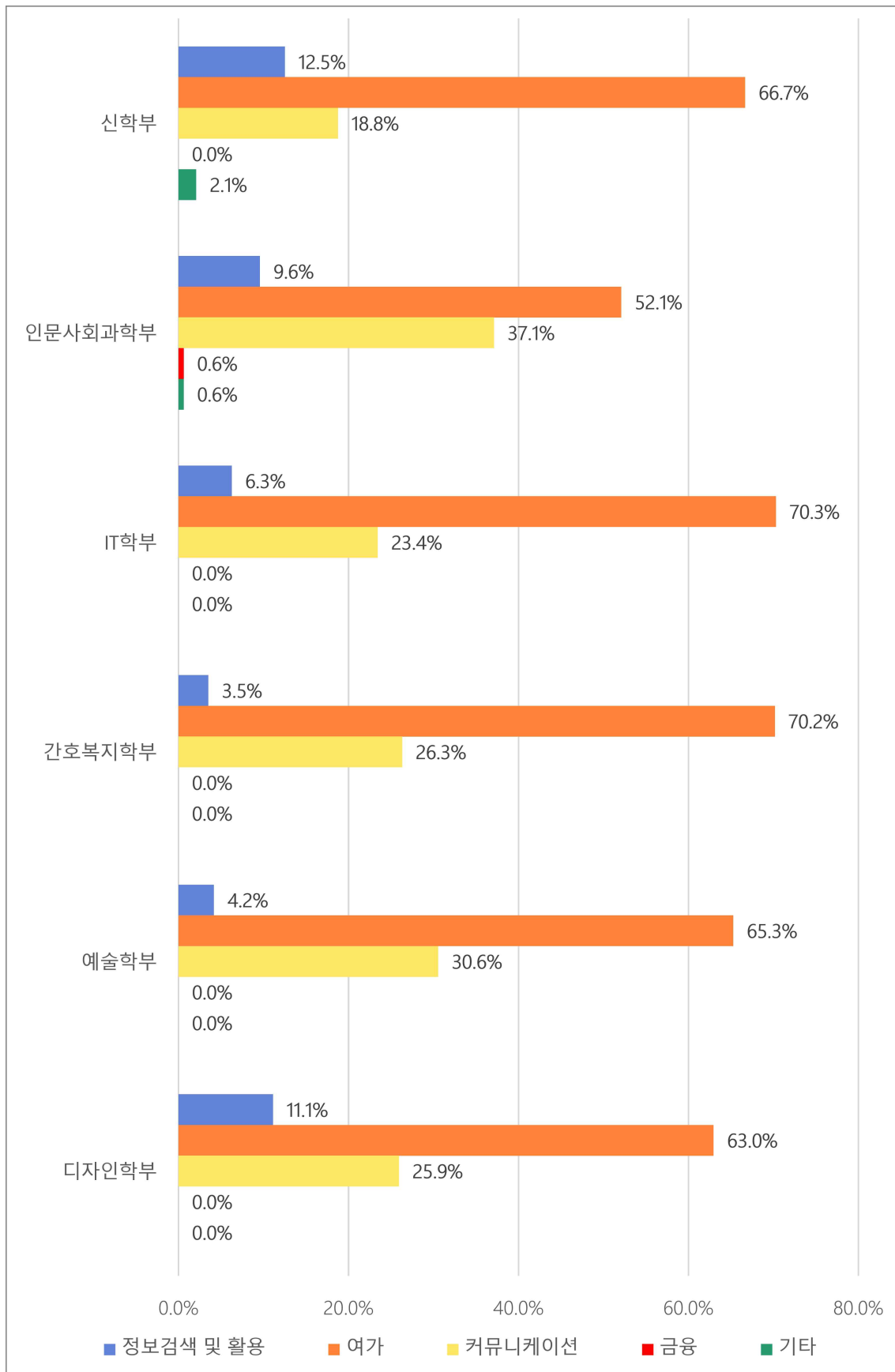
13) 스마트폰 주된 용도

신입생들이 스마트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여가(61.6%)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29.9%), 정보검색 및 활용(7.8%) 순이다. 여가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70.3%), 간호복지학부(70.2%), 신학부(66.7%)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62.1%)이 남학생(60.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9> 스마트폰 주된 용도

단위: 명, %

	정보검색 및 활용	여가	커뮤니케이션	금융	기타	전체
남	19	109	49	1	2	180
	10.6%	60.6%	27.2%	0.6%	1.1%	100.0%
여	15	157	81	0	0	253
	5.9%	62.1%	32.0%	0.0%	0.0%	100.0%
제3의 성	0	2	0	0	0	2
	0.0%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6	32	9	0	1	48
	12.5%	66.7%	18.8%	0.0%	2.1%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6	87	62	1	1	167
	9.6%	52.1%	37.1%	0.6%	0.6%	100.0%
IT학부	4	45	15	0	0	64
	6.3%	70.3%	23.4%	0.0%	0.0%	100.0%
간호복지 학부	2	40	15	0	0	57
	3.5%	70.2%	26.3%	0.0%	0.0%	100.0%
예술학부	3	47	22	0	0	72
	4.2%	65.3%	30.6%	0.0%	0.0%	100.0%
디자인학부	3	17	7	0	0	27
	11.1%	63.0%	25.9%	0.0%	0.0%	100.0%
전체	34	268	130	1	2	435
	7.8%	61.6%	29.9%	0.2%	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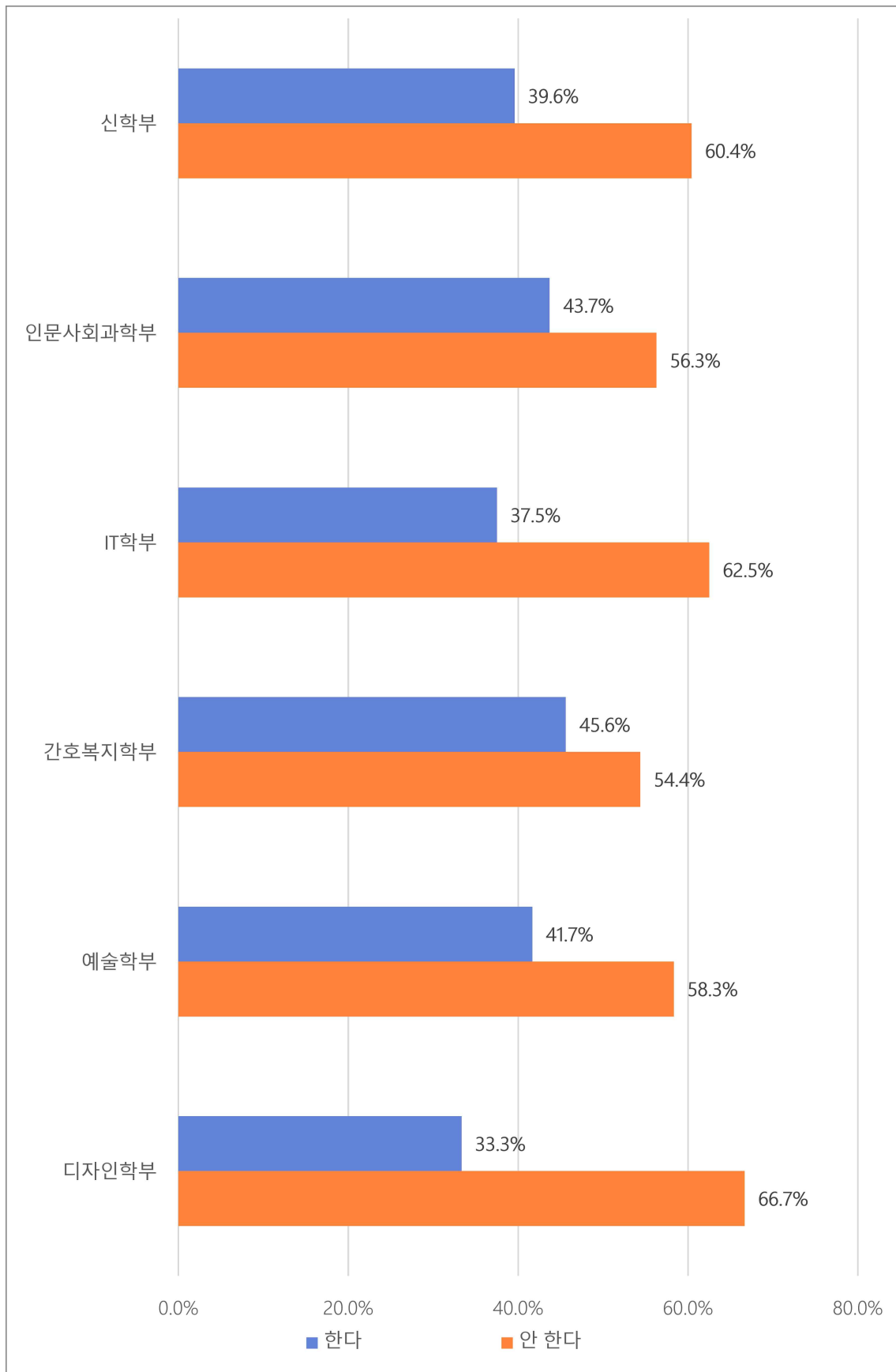
14) 규칙적인 운동 여부

신입생들에게 규칙적인 운동 여부를 묻은 결과, 신입생들의 58.4%가 ‘안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안 한다’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학부(66.7%), IT학부(62.5%), 신학부(60.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63.6%)이 남학생(50.6%)보다 ‘안 한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표 40> 규칙적인 운동 여부

단위: 명, %

	한다	안 한다	전체
남	89	91	180
	49.4%	50.6%	100.0%
여	92	161	253
	36.4%	63.6%	100.0%
제3의 성	0	2	2
	0.0%	100.0%	100.0%
신학부	19	29	48
	39.6%	60.4%	100.0%
인문사회과학부	73	94	167
	43.7%	56.3%	100.0%
IT학부	24	40	64
	37.5%	62.5%	100.0%
간호복지학부	26	31	57
	45.6%	54.4%	100.0%
예술학부	30	42	72
	41.7%	58.3%	100.0%
디자인학부	9	18	27
	33.3%	66.7%	100.0%
전체	181	254	435
	41.6%	58.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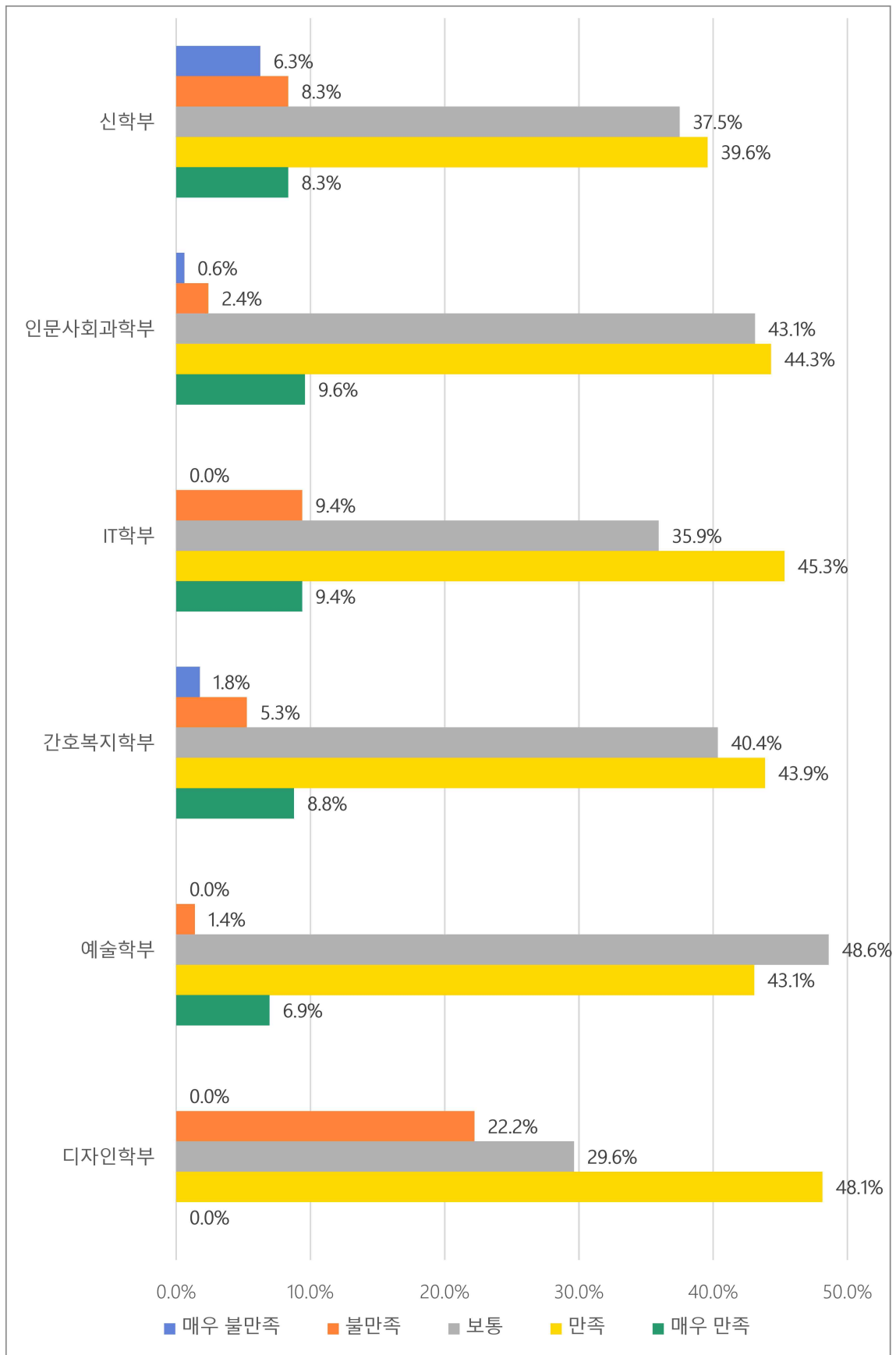
15) 현재 삶의 만족도

신입생들의 현재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43.9%)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보통(41.1%), 매우 만족(8.3%) 순이다. 만족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학부(48.1%), IT학부(45.3%), 인문사회과학부(44.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42.7%)은 보통과 만족이란 응답이 높았고 남학생(46.1%)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남	2	8	69	83	18	180
	1.1%	4.4%	38.3%	46.1%	10.0%	100.0%
여	3	16	108	108	18	253
	1.2%	6.3%	42.7%	42.7%	7.1%	100.0%
제3의 성	0	0	2	0	0	2
	0.0%	0.0%	100.0%	0.0%	0.0%	100.0%
신학부	3	4	18	19	4	48
	6.3%	8.3%	37.5%	39.6%	8.3%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	4	72	74	16	167
	0.6%	2.4%	43.1%	44.3%	9.6%	100.0%
IT학부	0	6	23	29	6	64
	0.0%	9.4%	35.9%	45.3%	9.4%	100.0%
간호복지 학부	1	3	23	25	5	57
	1.8%	5.3%	40.4%	43.9%	8.8%	100.0%
예술학부	0	1	35	31	5	72
	0.0%	1.4%	48.6%	43.1%	6.9%	100.0%
디자인학부	0	6	8	13	0	27
	0.0%	22.2%	29.6%	48.1%	0.0%	100.0%
전체	5	24	179	191	36	435
	1.1%	5.5%	41.1%	43.9%	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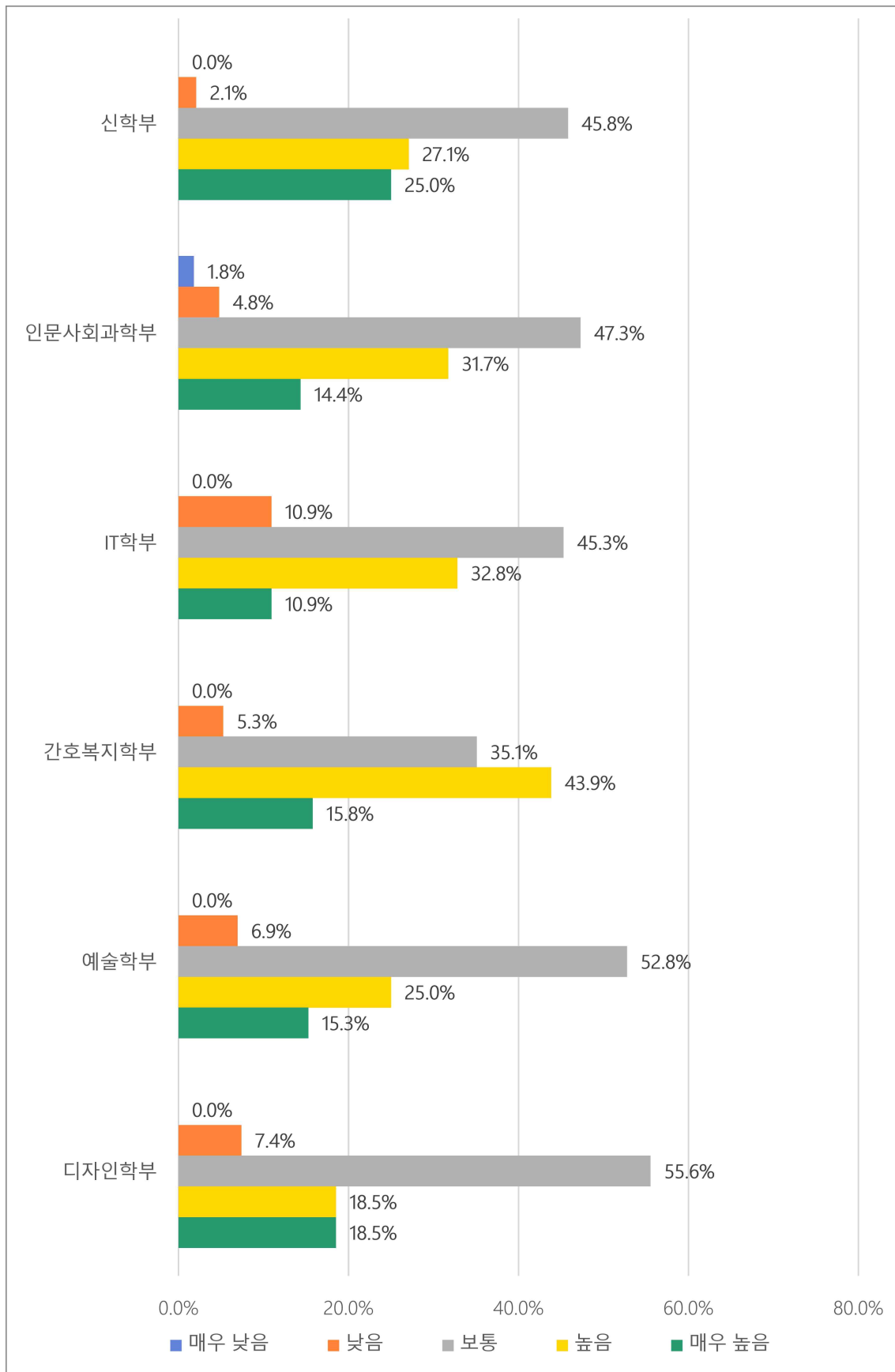
16)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치

신입생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치를 조사한 결과, 보통(46.7%)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높음(31.0%), 매우 높음(15.6%) 순이다.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학부(55.6%), 예술학부(52.8%), 인문사회과학부(47.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48.3%)과 여학생(45.1%)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42> 삶의 대한 기대치

단위: 명, %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전체
남	0	11	87	47	35	180
	0.0%	6.1%	48.3%	26.1%	19.4%	100.0%
여	3	15	114	88	33	253
	1.2%	5.9%	45.1%	34.8%	13.0%	100.0%
제3의 성	0	0	2	0	0	2
	0.0%	0.0%	100.0%	0.0%	0.0%	100.0%
신학부	0	1	22	13	12	48
	0.0%	2.1%	45.8%	27.1%	25.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3	8	79	53	24	167
	1.8%	4.8%	47.3%	31.7%	14.4%	100.0%
IT학부	0	7	29	21	7	64
	0.0%	10.9%	45.3%	32.8%	10.9%	100.0%
간호복지 학부	0	3	20	25	9	57
	0.0%	5.3%	35.1%	43.9%	15.8%	100.0%
예술학부	0	5	38	18	11	72
	0.0%	6.9%	52.8%	25.0%	15.3%	100.0%
디자인학부	0	2	15	5	5	27
	0.0%	7.4%	55.6%	18.5%	18.5%	100.0%
전체	3	26	203	135	68	435
	0.7%	6.0%	46.7%	31.0%	15.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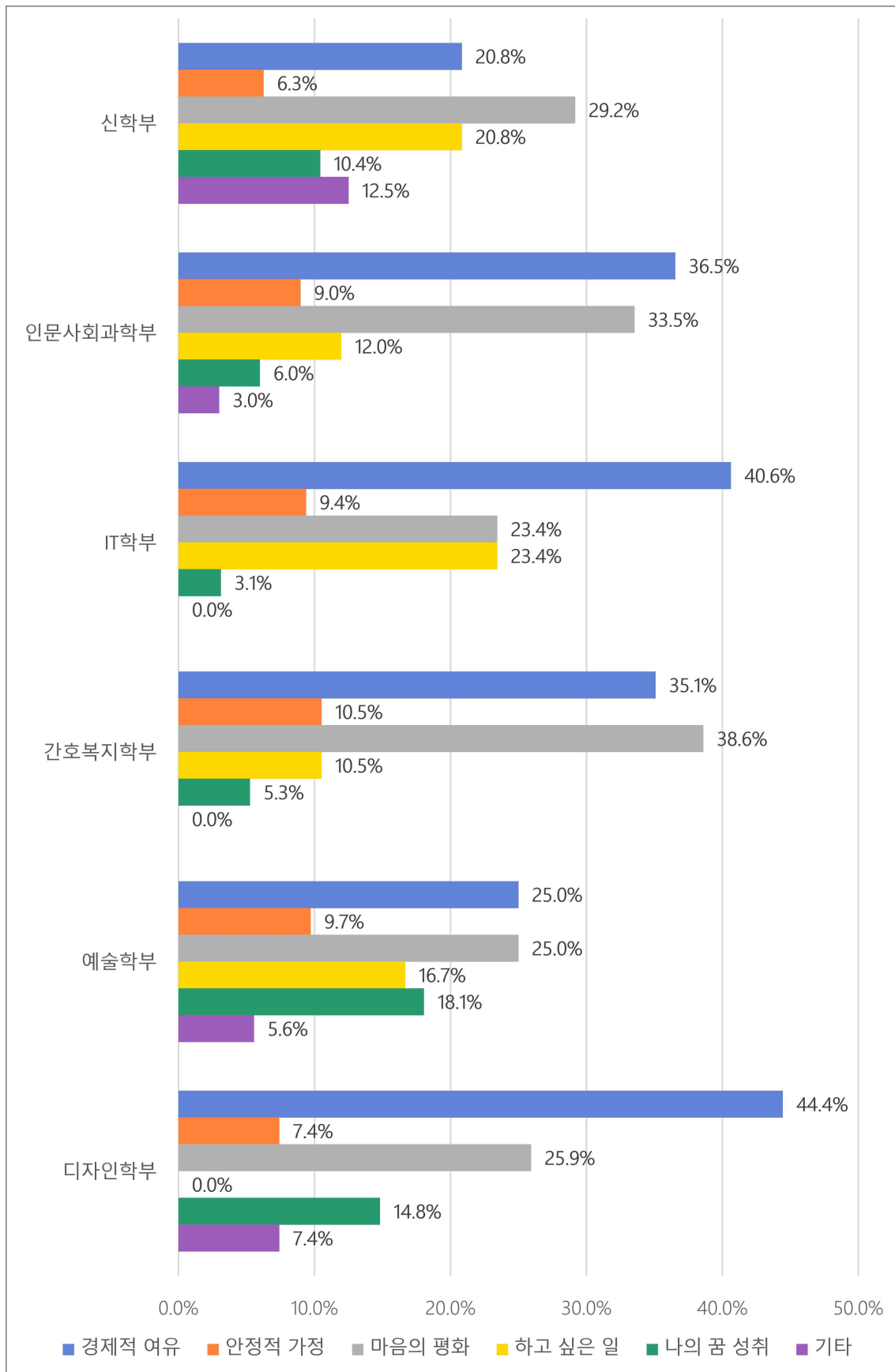
17) 행복한 삶의 기준

신입생들에게 행복한 삶의 기준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여유(33.8%)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마음의 평화(30.3%), 하고 싶은 일(14.5%) 순이다. 경제적 여유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학부(44.4%), IT학부(40.6%), 인문사회과학부(36.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34.4%)과 남학생(32.8%) 모두 경제적 여유가 행복한 삶의 기준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43> 행복한 삶의 기준

단위: 명, %

	경제적 여유	안정적 가정	마음의 평화	하고 싶은 일	나의 꿈 성취	기타	전체
남	59	22	46	33	13	7	180
	32.8%	12.2%	25.6%	18.3%	7.2%	3.9%	100.0%
여	87	17	86	29	24	10	253
	34.4%	6.7%	34.0%	11.5%	9.5%	4.0%	100.0%
제3의 성	1	0	0	1	0	0	2
	50.0%	0.0%	0.0%	50.0%	0.0%	0.0%	100.0%
신학부	10	3	14	10	5	6	48
	20.8%	6.3%	29.2%	20.8%	10.4%	12.5%	100.0%
인문사회 과학부	61	15	56	20	10	5	167
	36.5%	9.0%	33.5%	12.0%	6.0%	3.0%	100.0%
IT학부	26	6	15	15	2	0	64
	40.6%	9.4%	23.4%	23.4%	3.1%	0.0%	100.0%
간호복지 학부	20	6	22	6	3	0	57
	35.1%	10.5%	38.6%	10.5%	5.3%	0.0%	100.0%
예술학부	18	7	18	12	13	4	72
	25.0%	9.7%	25.0%	16.7%	18.1%	5.6%	100.0%
디자인학부	12	2	7	0	4	2	27
	44.4%	7.4%	25.9%	0.0%	14.8%	7.4%	100.0%
전체	147	39	132	63	37	17	435
	33.8%	9.0%	30.3%	14.5%	8.5%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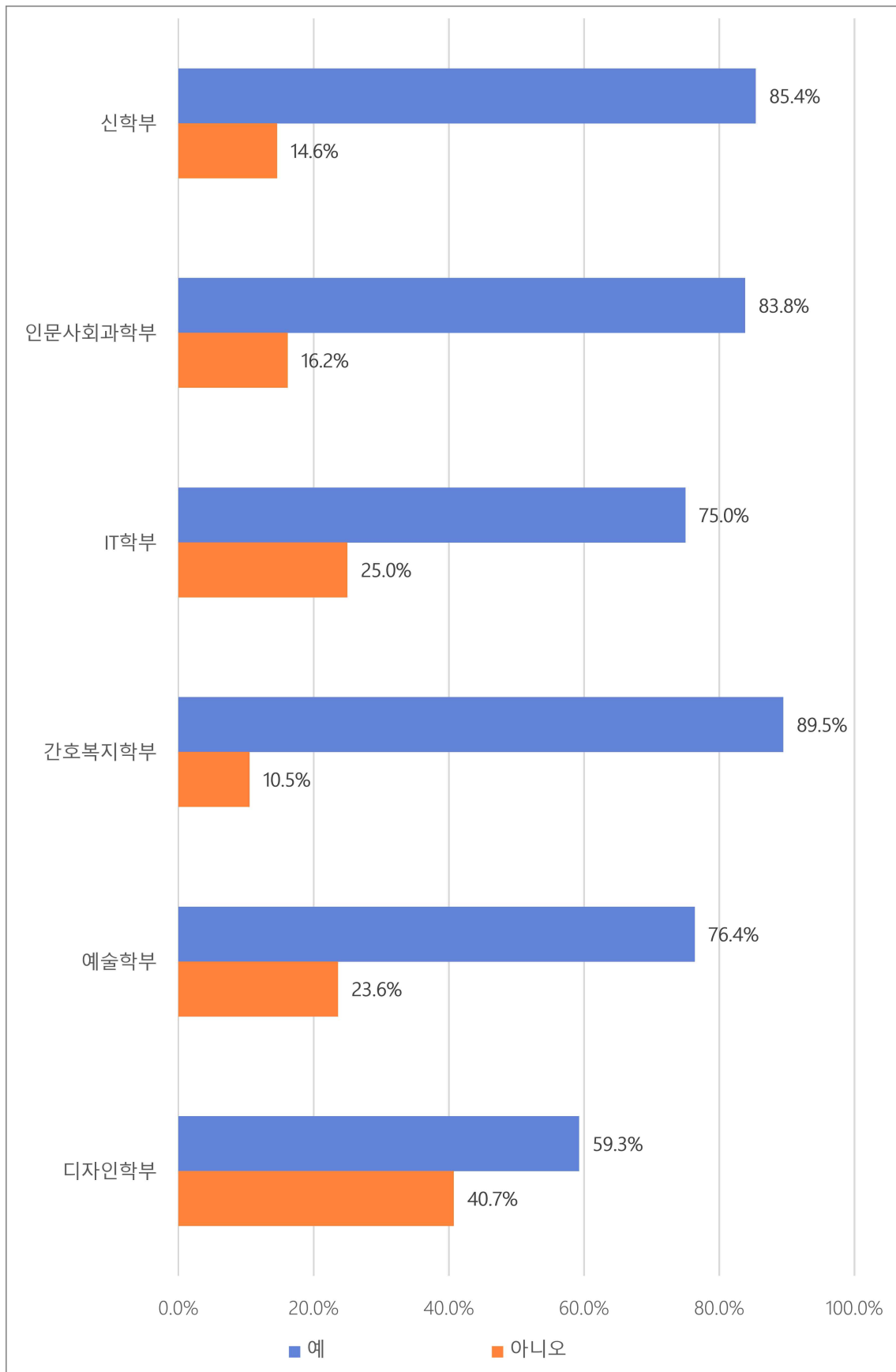
6. 학생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

1)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심리적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심리상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에 관한 질문에서 신입생 80.7%가 '예'라고 답변하여 전년도 56.5%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간호복지학부(89.5%), 신학부(85.4%), 인문사회과학부(8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는 디자인학부(40.7%)가 타학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 82.2%, 남학생 78.3%가 심리상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남	141	39	180
	78.3%	21.7%	100.0%
여	208	45	253
	82.2%	17.8%	100.0%
제3의 성	2	0	2
	100.0%	0.0%	100.0%
신학부	41	7	48
	85.4%	14.6%	100.0%
인문사회과학부	140	27	167
	83.8%	16.2%	100.0%
IT학부	48	16	64
	75.0%	25.0%	100.0%
간호복지학부	51	6	57
	89.5%	10.5%	100.0%
예술학부	55	17	72
	76.4%	23.6%	100.0%
디자인학부	16	11	27
	59.3%	40.7%	100.0%
전체	351	84	435
	80.7%	1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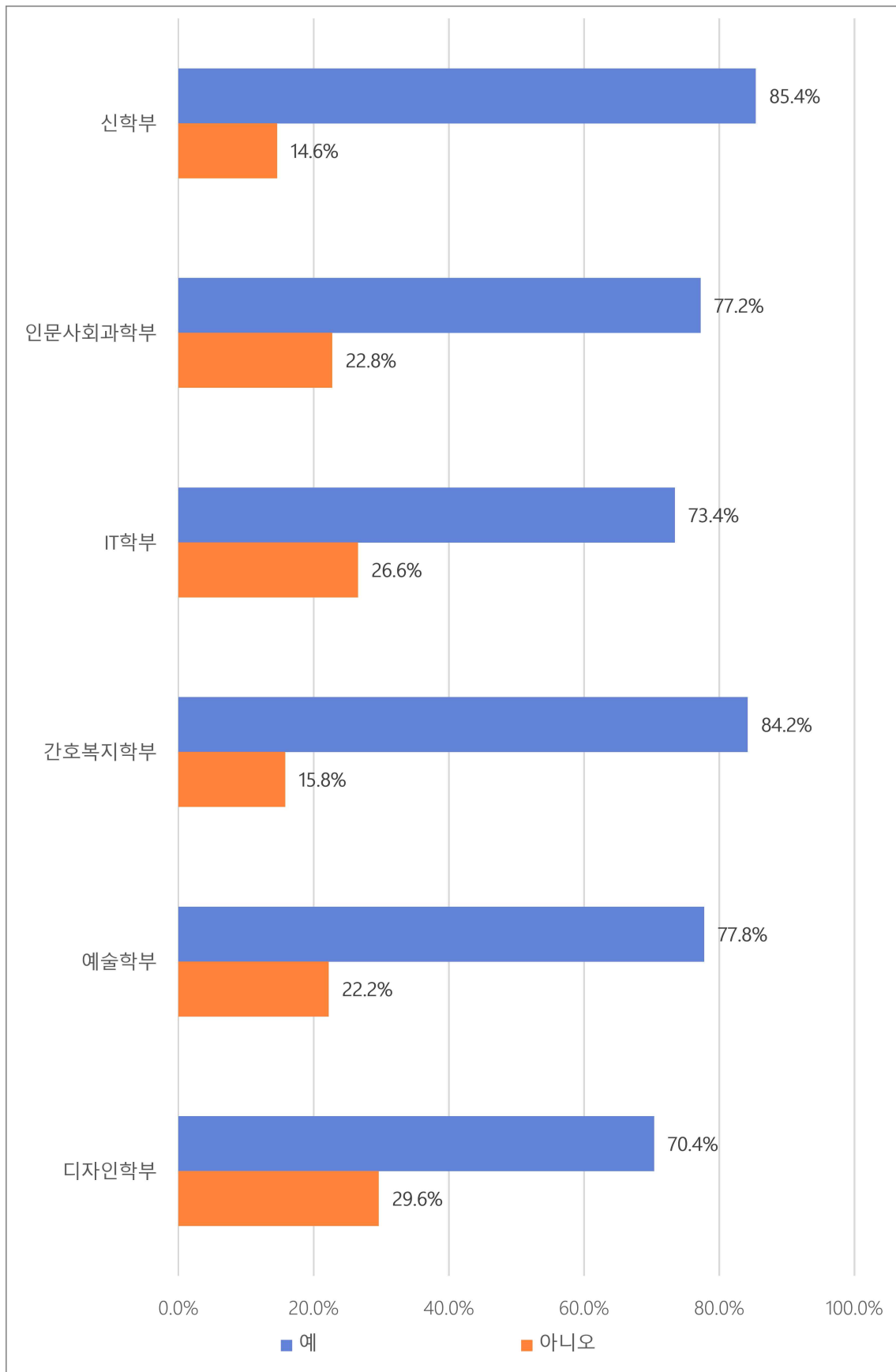
2) 학생상담센터 이용 여부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 해결과 성장을 위해 학생상담센터 이용에 관한 질문에서 신입생 78.2%가 '예'라고 답변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신학부(85.4%), 간호복지학부(84.2%), 예술학부(7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 80.2%, 남학생 75.6%가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학생상담센터 이용 여부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남	136	44	180
	75.6%	24.4%	100.0%
여	203	50	253
	80.2%	19.8%	100.0%
제3의 성	1	1	2
	50.0%	50.0%	100.0%
신학부	41	7	48
	85.4%	14.6%	100.0%
인문사회과학부	129	38	167
	77.2%	22.8%	100.0%
IT학부	47	17	64
	73.4%	26.6%	100.0%
간호복지학부	48	9	57
	84.2%	15.8%	100.0%
예술학부	56	16	72
	77.8%	22.2%	100.0%
디자인학부	19	8	27
	70.4%	29.6%	100.0%
전체	340	95	435
	78.2%	2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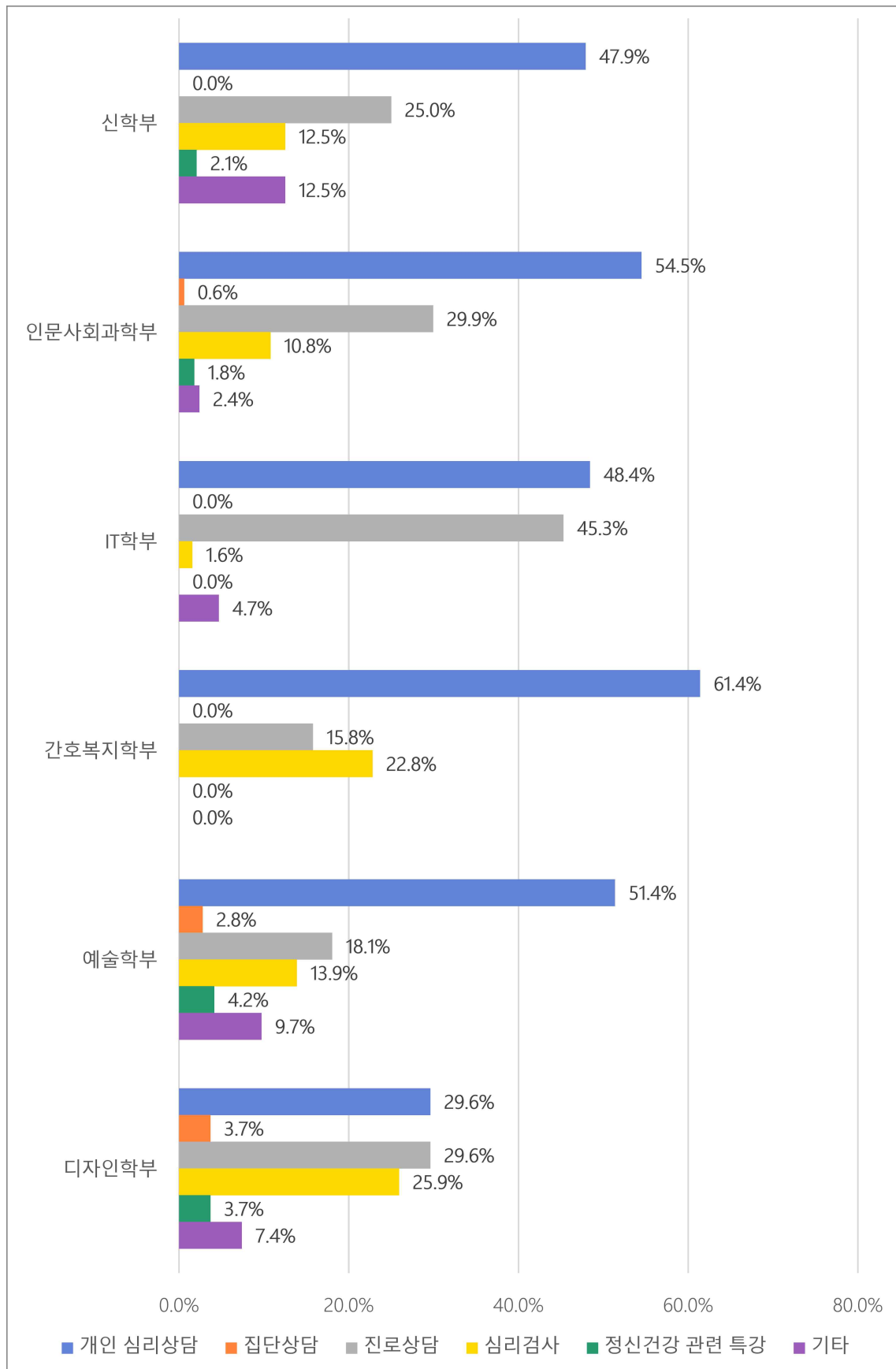
3) 학생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서비스

신입생들이 상담센터를 이용할 때 희망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51.7%가 개인 심리상담을 가장 다루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이 진로상담(27.8%), 심리검사(12.6%) 순이었다. 개인심리상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간호복지학부(61.4%), 인문사회과학부(54.5%), 예술학부(51.4%)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52.2%), 여학생(51.8%) 모두 높은 비율로 개인 심리상담라고 응답하였다.

<표 46>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서비스

단위: 명, %

	개인 심리상담	집단상담	진로상담	심리검사	정신건강 관련 특강	기타	전체
남	94	2	56	12	2	14	180
	52.2%	1.1%	31.1%	6.7%	1.1%	7.8%	100.0%
여	131	2	64	42	6	8	253
	51.8%	0.8%	25.3%	16.6%	2.4%	3.2%	100.0%
제3의 성	0	0	1	1	0	0	2
	0.0%	0.0%	50.0%	50.0%	0.0%	0.0%	100.0%
신학부	23	0	12	6	1	6	48
	47.9%	0.0%	25.0%	12.5%	2.1%	12.5%	100.0%
인문사회 과학부	91	1	50	18	3	4	167
	54.5%	0.6%	29.9%	10.8%	1.8%	2.4%	100.0%
IT학부	31	0	29	1	0	3	64
	48.4%	0.0%	45.3%	1.6%	0.0%	4.7%	100.0%
간호복지 학부	35	0	9	13	0	0	57
	61.4%	0.0%	15.8%	22.8%	0.0%	0.0%	100.0%
예술학부	37	2	13	10	3	7	72
	51.4%	2.8%	18.1%	13.9%	4.2%	9.7%	100.0%
디자인학부	8	1	8	7	1	2	27
	29.6%	3.7%	29.6%	25.9%	3.7%	7.4%	100.0%
전체	225	4	121	55	8	22	435
	51.7%	0.9%	27.8%	12.6%	1.8%	5.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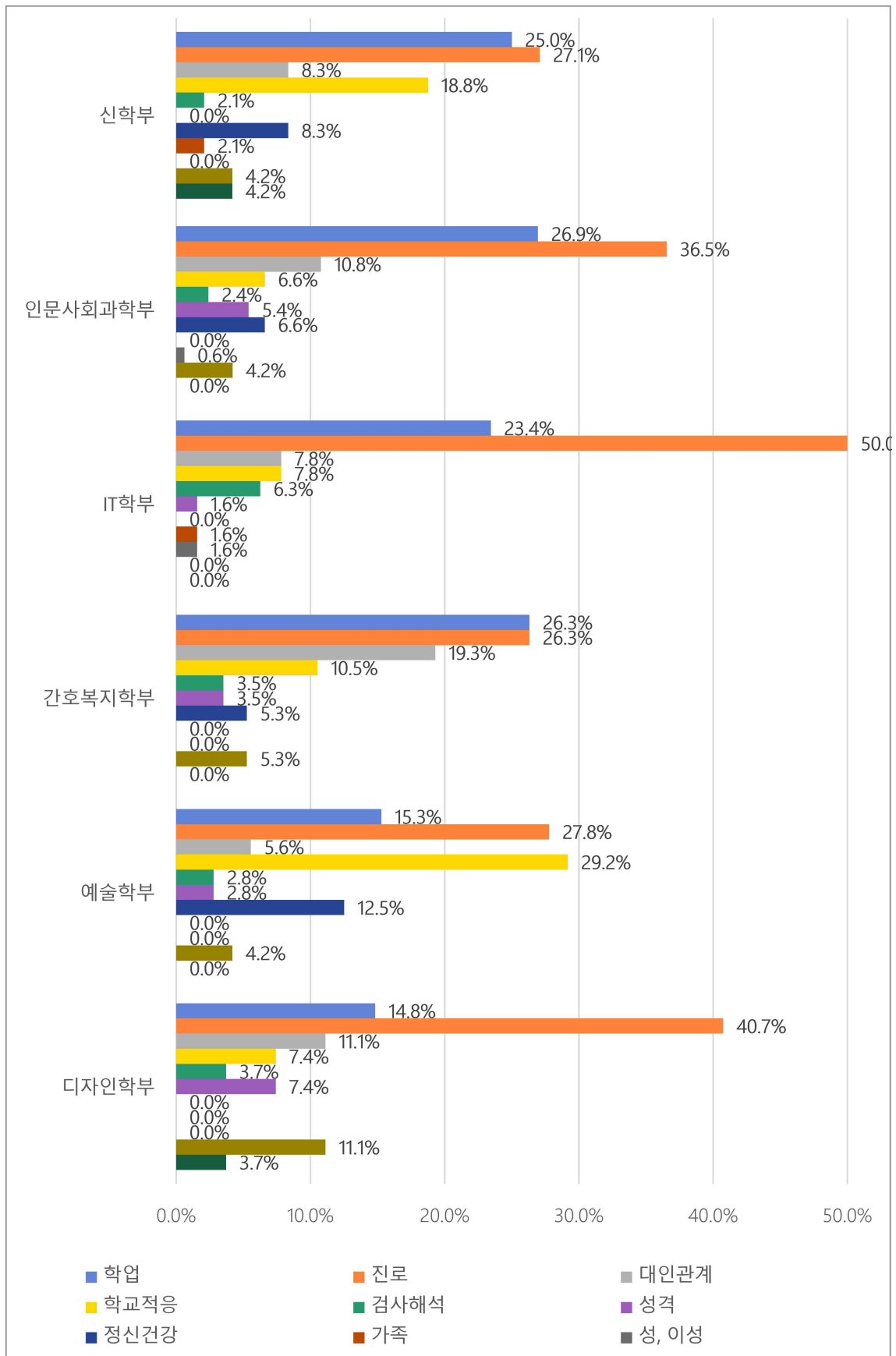
4) 상담받고 싶은 문제

신입생들이 상담센터를 상담받고 싶은 문제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34.9%가 진로를 가장 다루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학업(23.4%), 학교적응(12.4%) 순이었다. 진로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50.0%), 디자인학부(40.7%), 인문사회과학부(36.5%)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40.0%), 여학생(30.8%) 모두 높은 비율로 진로라고 응답하였다.

<표 47> 상담받고 싶은 문제

단위: 명, %

	학업	진로	대인 관계	학교 적응	검사 해석	성격	정신 건강	가족	성, 이성	인생관 및 가치관 확립 문제	기타	전체
남	42	72	17	18	5	7	5	0	1	11	2	180
	23.3%	40.0%	9.4%	10.0%	2.8%	3.9%	2.8%	0.0%	0.6%	6.1%	1.1%	100.0%
여	60	78	28	36	9	9	22	2	1	7	1	253
	23.7%	30.8%	11.1%	14.2%	3.6%	3.6%	8.7%	0.8%	0.4%	2.8%	0.4%	100.0%
기타	0	2	0	0	0	0	0	0	0	0	0	2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12	13	4	9	1	0	4	1	0	2	2	48
	25.0%	27.1%	8.3%	18.8%	2.1%	0.0%	8.3%	2.1%	0.0%	4.2%	4.2%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45	61	18	11	4	9	11	0	1	7	0	167
	26.9%	36.5%	10.8%	6.6%	2.4%	5.4%	6.6%	0.0%	0.6%	4.2%	0.0%	100.0%
IT학부	15	32	5	5	4	1	0	1	1	0	0	64
	23.4%	50.0%	7.8%	7.8%	6.3%	1.6%	0.0%	1.6%	1.6%	0.0%	0.0%	100.0%
간호 복지 학부	15	15	11	6	2	2	3	0	0	3	0	57
	26.3%	26.3%	19.3%	10.5%	3.5%	3.5%	5.3%	0.0%	0.0%	5.3%	0.0%	100.0%
예술 학부	11	20	4	21	2	2	9	0	0	3	0	72
	15.3%	27.8%	5.6%	29.2%	2.8%	2.8%	12.5%	0.0%	0.0%	4.2%	0.0%	100.0%
디자인 학부	4	11	3	2	1	2	0	0	0	3	1	27
	14.8%	40.7%	11.1%	7.4%	3.7%	7.4%	0.0%	0.0%	0.0%	11.1%	3.7%	100.0%
전체	102	152	45	54	14	16	27	2	2	18	3	435
	23.4%	34.9%	10.3%	12.4%	3.2%	3.7%	6.2%	0.5%	0.5%	4.1%	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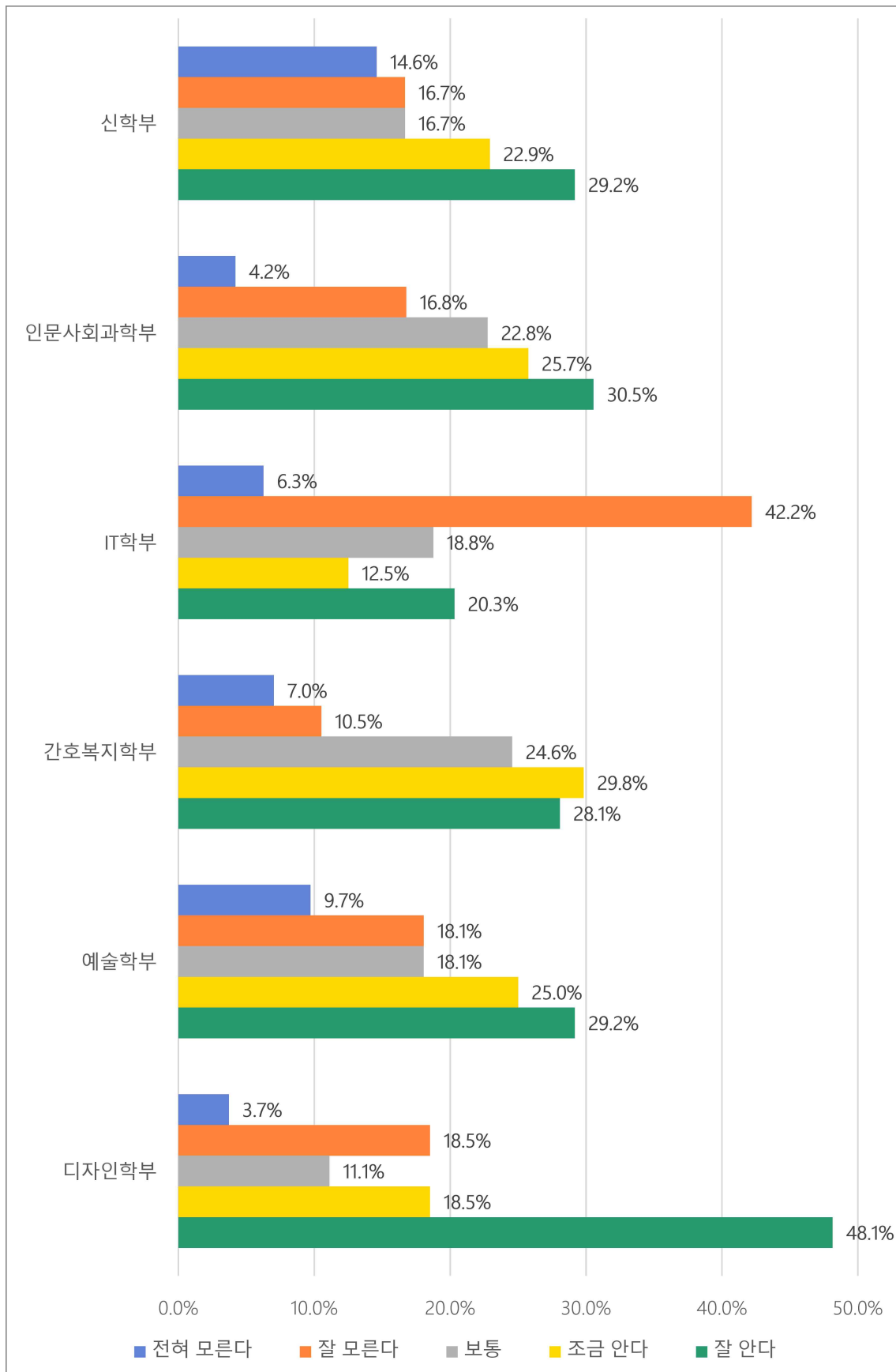
5)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인식 정도

신입생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해 얼마나 아는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29.4%가 ‘잘 안다’라고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 ‘조금 안다’(23.4%), 보통(20.2%) 순으로 나타났다. ‘잘 안다’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학부(48.1%), 인문사회과학부(30.5%), 신학부와 예술학부(29.2%)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27.2%는 보통, 여학생의 34.0%는 ‘잘 안다’라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표 48>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인식 정도

단위: 명, %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	조금 안다	잘 안다	전체
남	18	40	49	31	42	180
	10.0%	22.2%	27.2%	17.2%	23.3%	100.0%
여	12	46	39	70	86	253
	4.7%	18.2%	15.4%	27.7%	34.0%	100.0%
제3의 성	0	1	0	1	0	2
	0.0%	50.0%	0.0%	50.0%	0.0%	100.0%
신학부	7	8	8	11	14	48
	14.6%	16.7%	16.7%	22.9%	29.2%	100.0%
인문사회 과학부	7	28	38	43	51	167
	4.2%	16.8%	22.8%	25.7%	30.5%	100.0%
IT학부	4	27	12	8	13	64
	6.3%	42.2%	18.8%	12.5%	20.3%	100.0%
간호복지 학부	4	6	14	17	16	57
	7.0%	10.5%	24.6%	29.8%	28.1%	100.0%
예술학부	7	13	13	18	21	72
	9.7%	18.1%	18.1%	25.0%	29.2%	100.0%
디자인학부	1	5	3	5	13	27
	3.7%	18.5%	11.1%	18.5%	48.1%	100.0%
전체	30	87	88	102	128	435
	6.9%	20.0%	20.2%	23.4%	29.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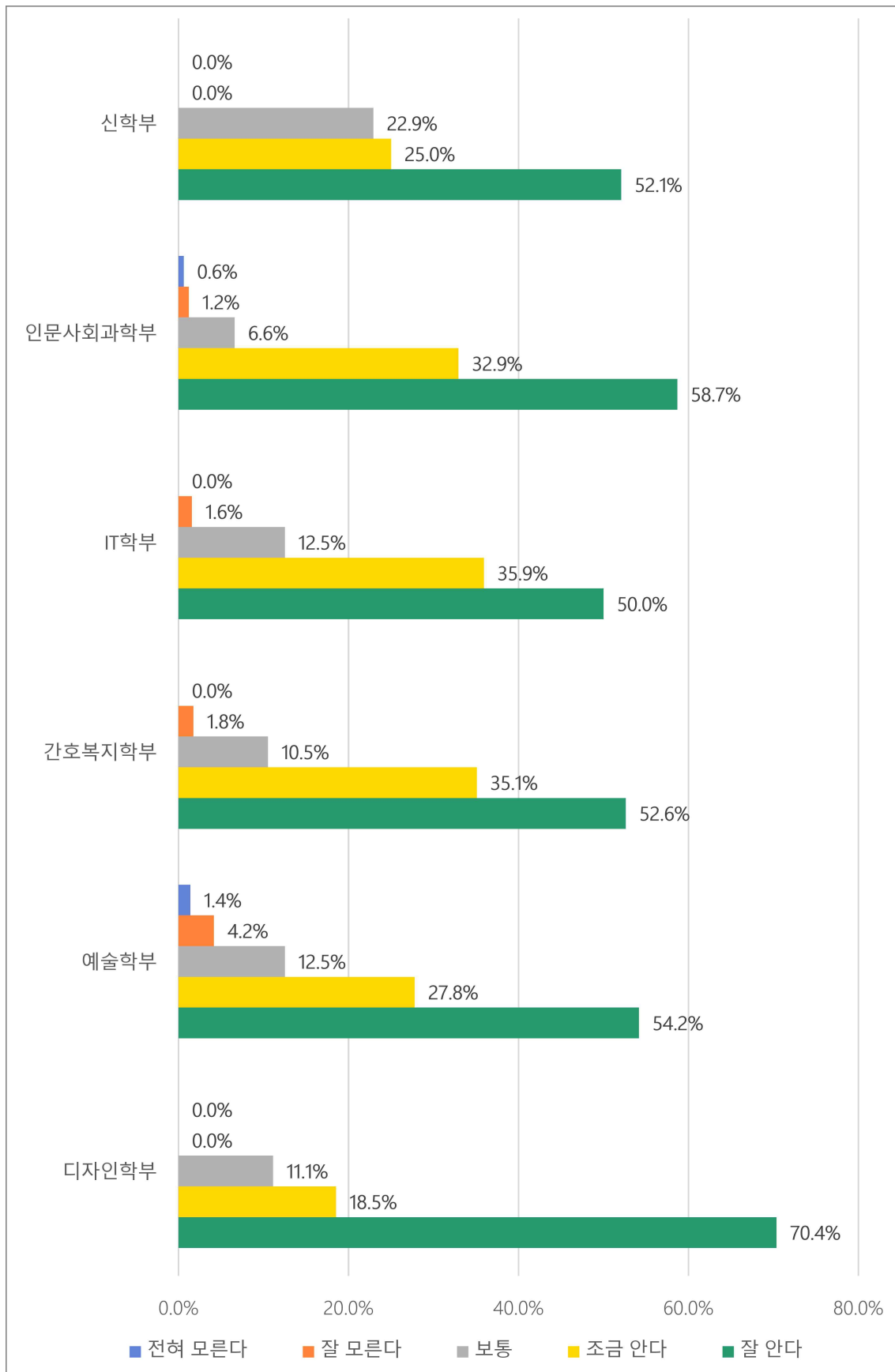
6)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인식 정도

신입생들이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해 얼마나 아는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55.9%가 ‘잘 안다’라고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 ‘조금 안다’(31.0%), 보통(11.0%) 순으로 나타났다. ‘잘 안다’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학부(70.4%), 인문사회과학부(58.7%), 예술학부(54.2%)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49.4%, 여학생의 60.5%가 ‘잘 안다’라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표 49>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인식 정도

단위: 명, %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	조금 안다	잘 안다	전체
남	2	3	29	57	89	180
	1.1%	1.7%	16.1%	31.7%	49.4%	100.0%
여	0	4	19	77	153	253
	0.0%	1.6%	7.5%	30.4%	60.5%	100.0%
제3의 성	0	0	0	1	1	2
	0.0%	0.0%	0.0%	50.0%	50.0%	100.0%
신학부	0	0	11	12	25	48
	0.0%	0.0%	22.9%	25.0%	52.1%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	2	11	55	98	167
	0.6%	1.2%	6.6%	32.9%	58.7%	100.0%
IT학부	0	1	8	23	32	64
	0.0%	1.6%	12.5%	35.9%	50.0%	100.0%
간호복지 학부	0	1	6	20	30	57
	0.0%	1.8%	10.5%	35.1%	52.6%	100.0%
예술학부	1	3	9	20	39	72
	1.4%	4.2%	12.5%	27.8%	54.2%	100.0%
디자인학부	0	0	3	5	19	27
	0.0%	0.0%	11.1%	18.5%	70.4%	100.0%
전체	2	7	48	135	243	435
	0.5%	1.6%	11.0%	31.0%	5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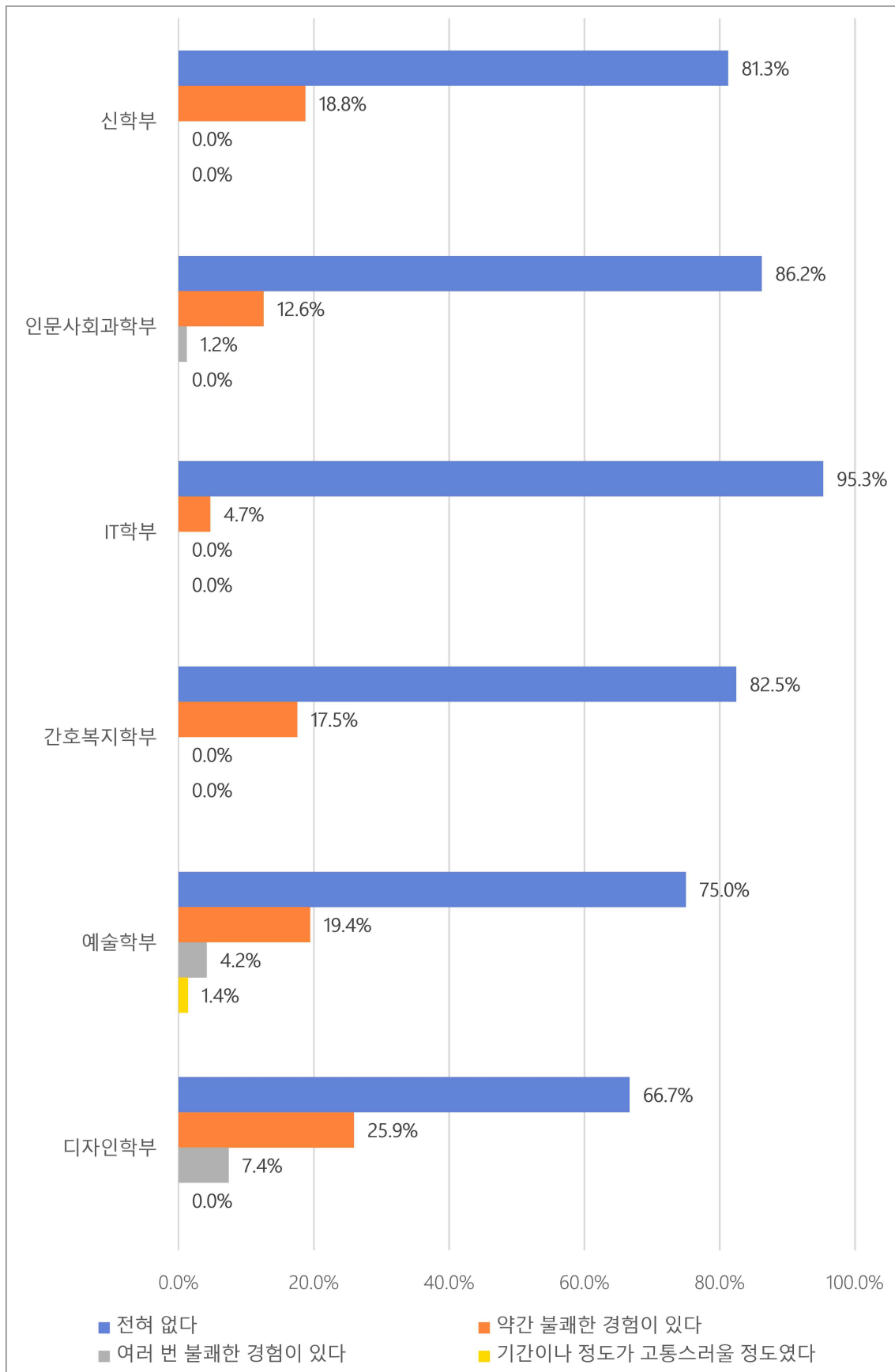
7) 과거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의 경험 정도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신입생의 83.4%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전혀 없다’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95.3%), 인문사회과학부(86.2%), 간호학부(82.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혀 없다’라는 응답에 남학생(93.3%)이 여학생(76.4%)보다 더 높았으며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경험이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50>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의 경험 정도

단위: 명, %

	전혀 없다	약간 불편한 경험이 있다	여러 번 불편한 경험이 있다	기간이나 정도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전체
남	168	12	0	0	180
	93.3%	6.7%	0.0%	0.0%	100.0%
여	194	51	7	1	253
	76.7%	20.2%	2.8%	0.4%	100.0%
제3의 성	1	1	0	0	2
	50.0%	50.0%	0.0%	0.0%	100.0%
신학부	39	9	0	0	48
	81.3%	18.8%	0.0%	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44	21	2	0	167
	86.2%	12.6%	1.2%	0.0%	100.0%
IT학부	61	3	0	0	64
	95.3%	4.7%	0.0%	0.0%	100.0%
간호복지 학부	47	10	0	0	57
	82.5%	17.5%	0.0%	0.0%	100.0%
예술학부	54	14	3	1	72
	75.0%	19.4%	4.2%	1.4%	100.0%
디자인학부	18	7	2	0	27
	66.7%	25.9%	7.4%	0.0%	100.0%
전체	363	64	7	1	435
	83.4%	14.7%	1.6%	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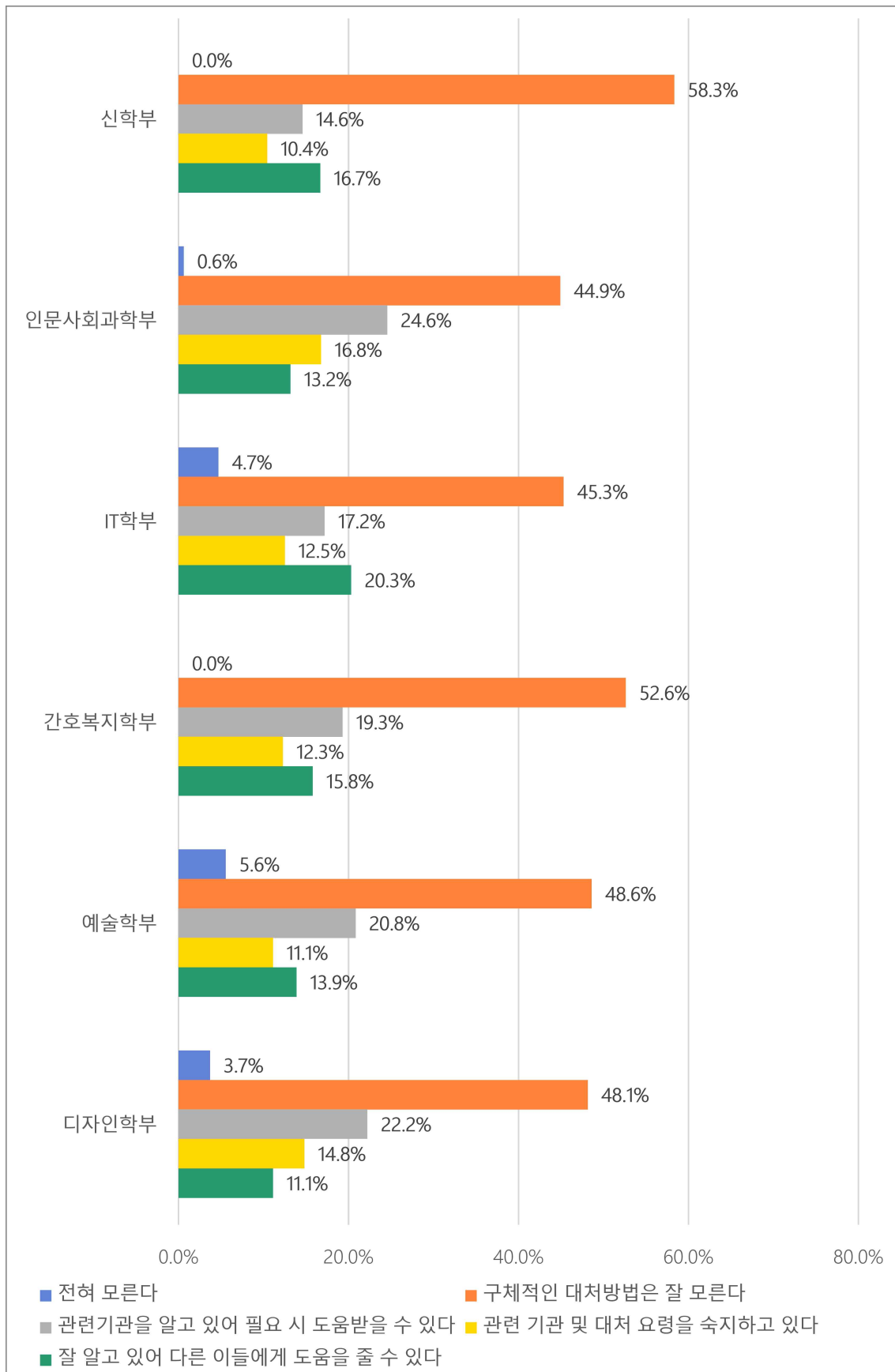
8)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대처 방법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할 때 대응 방법을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잘 모른다’(48.3%), ‘관련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 시 도움받을 수 있다’(20.9%),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14.9%) 순이었다.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잘 모른다’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신학부(58.3%), 간호복지학부(52.6%), 예술학부(48.6%) 순이며,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50.2%)이 남학생(45.6%)보다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1>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대처 방법

단위: 명, %

	전혀 모른다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잘 모른다	관련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 시 도움받을 수 있다	관련 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체
남	6	82	33	26	33	180
	3.3%	45.6%	18.3%	14.4%	18.3%	100.0%
여	3	127	57	34	32	253
	1.2%	50.2%	22.5%	13.4%	12.6%	100.0%
제3의 성	0	1	1	0	0	2
	0.0%	50.0%	50.0%	0.0%	0.0%	100.0%
신학부	0	28	7	5	8	48
	0.0%	58.3%	14.6%	10.4%	16.7%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	75	41	28	22	167
	0.6%	44.9%	24.6%	16.8%	13.2%	100.0%
IT학부	3	29	11	8	13	64
	4.7%	45.3%	17.2%	12.5%	20.3%	100.0%
간호복지 학부	0	30	11	7	9	57
	0.0%	52.6%	19.3%	12.3%	15.8%	100.0%
예술학부	4	35	15	8	10	72
	5.6%	48.6%	20.8%	11.1%	13.9%	100.0%
디자인학 부	1	13	6	4	3	27
	3.7%	48.1%	22.2%	14.8%	11.1%	100.0%
전체	9	210	91	60	65	435
	2.1%	48.3%	20.9%	13.8%	1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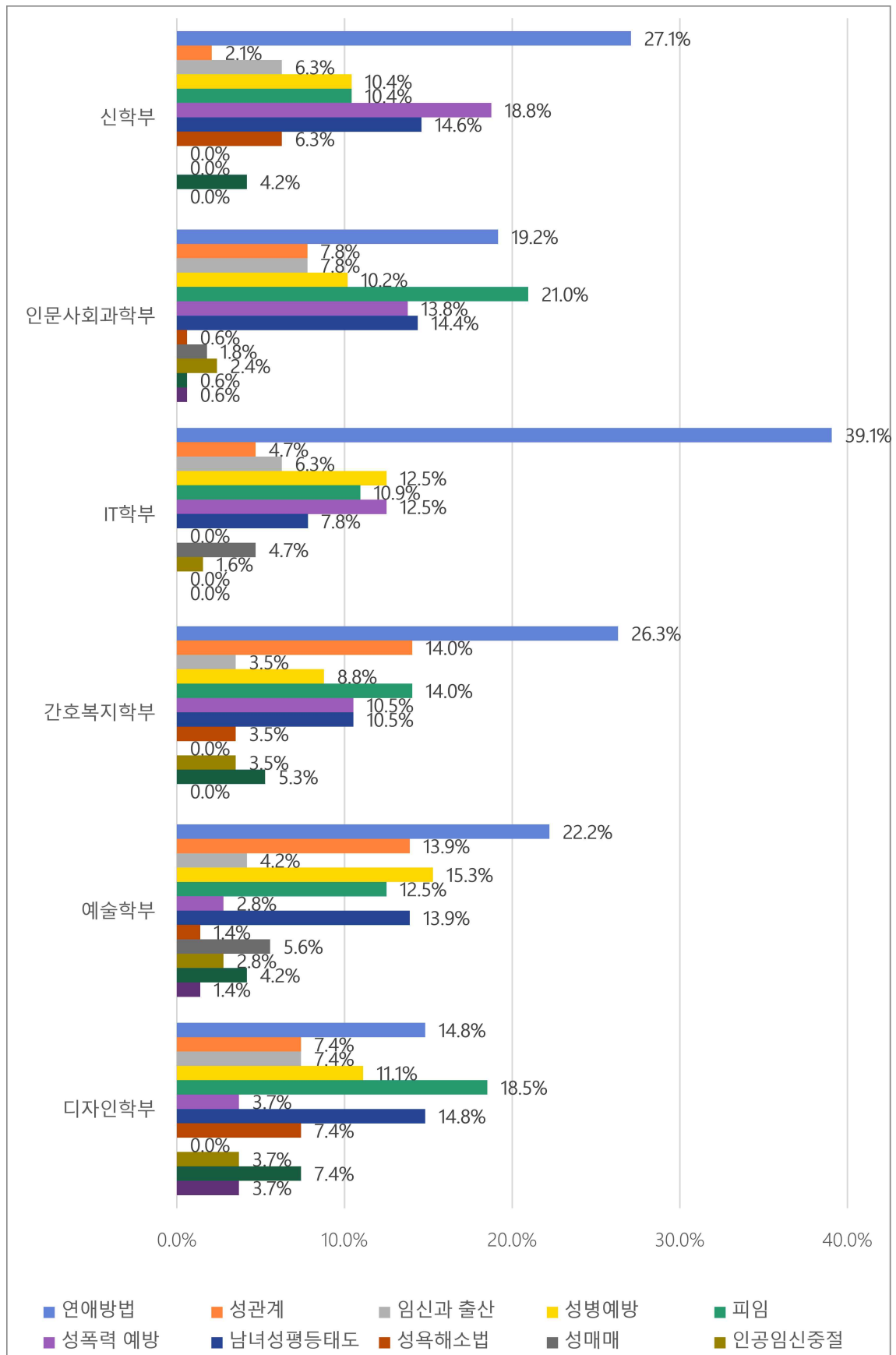
9) 성교육 시 가장 알고 싶은 것

성교육 시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연애편법(24.1%)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다음으로 피임(15.9%), 남녀성평등태도(12.9%) 순으로 나타났다. 연애편법의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39.1%), 신학부(27.1%), 간호복지학부(26.3%) 순이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31.7%)과 여학생(19.0%) 모두 연애편법을 가장 알고 싶어 했다.

<표 52> 성교육 시 가장 알고 싶은 것

단위: 명, %

	연애편법	성관계	임신과출산	성병예방	피임	성폭력예방	남녀성평등태도	성욕해소법	성매매	인공임신중절	동성애	기타	전체
남	57	15	8	23	24	18	22	3	6	1	3	0	180
	31.7%	8.3%	4.4%	12.8%	13.3%	10.0%	12.2%	1.7%	3.3%	0.6%	1.7%	0.0%	100.0%
여	48	22	19	26	44	31	34	6	4	9	8	2	253
	19.0%	8.7%	7.5%	10.3%	17.4%	12.3%	13.4%	2.4%	1.6%	3.6%	3.2%	.8%	100.0%
제3의성	0	0	0	0	1	0	0	0	0	0	0	1	2
	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50.0%	100.0%
신학부	13	1	3	5	5	9	7	3	0	0	2	0	48
	27.1%	2.1%	6.3%	10.4%	10.4%	18.8%	14.6%	6.3%	0.0%	0.0%	4.2%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32	13	13	17	35	23	24	1	3	4	1	1	167
	19.2%	7.8%	7.8%	10.2%	21.0%	13.8%	14.4%	0.6%	1.8%	2.4%	0.6%	0.6%	100.0%
IT학부	25	3	4	8	7	8	5	0	3	1	0	0	64
	39.1%	4.7%	6.3%	12.5%	10.9%	12.5%	7.8%	0.0%	4.7%	1.6%	0.0%	0.0%	100.0%
간호복지학부	15	8	2	5	8	6	6	2	0	2	3	0	57
	26.3%	14.0%	3.5%	8.8%	14.0%	10.5%	10.5%	3.5%	0.0%	3.5%	5.3%	0.0%	100.0%
예술학부	16	10	3	11	9	2	10	1	4	2	3	1	72
	22.2%	13.9%	4.2%	15.3%	12.5%	2.8%	13.9%	1.4%	5.6%	2.8%	4.2%	1.4%	100.0%
디자인학부	4	2	2	3	5	1	4	2	0	1	2	1	27
	14.8%	7.4%	7.4%	11.1%	18.5%	3.7%	14.8%	7.4%	0.0%	3.7%	7.4%	3.7%	100.0%
전체	105	37	27	49	69	49	56	9	10	10	11	3	435
	24.1%	8.5%	6.2%	11.3%	15.9%	11.3%	12.9%	2.1%	2.3%	2.3%	2.5%	0.7%	100.0%



IV. 결론

본 연구는 2023학년도 한세대학교 신입생들의 개인별·가정환경 특성, 대학 생활 및 학업 관련, 진로 및 직업 관련, 정신건강 영역, 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신입생들의 일반 특성과 전반적인 대학생활 만족도를 비롯한 대학 생활 적응도를 이해하려고 한다. 나아가 합리적인 교육 계획 수립과 학생 생활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2023학년도 신입생들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신입생 실태조사는 2023년 2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어 총 603명 중 435명이 응답하여, 72%의 응답률을 보였다. 문항은 총 53문항이며, 그중 상담센터 관련 문항에서는 1문항이 9개 소문항으로 나뉘었다.

1) 개인별 특성과 관련된 사항

개인별 특성에 관하여는 모두 6문항으로 학부, 성별, 연령, 출신 고교 소재지와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 본인의 종교에 관해 질문하였다. 신입생 전체 응답자 435명 중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한 학부는 인문사회학부(1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참여율은 남학생 41.4%, 여학생 58.2%의 참여율을 보였다. 학부별 남녀비율을 보면, 남학생은 IT학부(81.3%)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신학부와 인문사회학부(52.5%)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부는 디자인학부(81.5%), 간호복지학부(73.7%), 예술학부(65.3%) 순이다. 2023학년도 신입생들의 연령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금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기록하여 살펴보았다. 만 19세(74.9%), 만 20세(14.0%)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나이 신입생은 47세로 확인되었다. 출신고교 지역은 경기·인천지역이 6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서울 (20.9%), 대전·충청 (3.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67.8%, 여학생이 68.4%가 경기·인천지역 고교출신이라고 답변하였다. 신입생들의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는 2023년도가 72.6%로 가장 많았고, 2022년 (18.4%), 2020년 (6.0%) 순이었다.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기독교 (31.5%), 천주교 (3.7%) 순으로 나타났다. 신학부는 기독교가 91.7%로 나타났으나 다른 학부에서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 가정환경 특성과 관련된 사항

가정환경과 관련한 질문은 총 3문항으로 가정 경제 수준, 등록금 부담 예정자, 대학입학 후 주거 형태에 관해 질문하였다. 신입생들은 본인의 가정 경제 수준에 대해 69.4%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좋음 (16.8%), 곤란 (7.6%)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부담 예정자를 조사한 결과 부모 (83.4%), 장학금 (7.1%), 본인 (3.2%)로 순으로 나타났고, 주거 형태는 전체의 81.6%가 자택이라고 응답했으며 그다음이 기숙사 (9.9%), 자취 (6.2%)로

순이었다.

3) 대학 생활 및 학업과 관련된 사항

대학 생활 및 학업과 관련한 문항은 13문항으로 대학진학 목적 및 본교 선택에 관련된 사항, 학부 선택의 요인 및 인식의 정도, 다전공의 이수용의,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로 구성되었다. 먼저 대학진학의 목적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43.0%가 전문지식 습득이라고 답했고 그다음에 유망한 직종 취업 (21.8%), 대학생활 경험 (14.3%) 순으로 나타났다. 본교 선택의 이유에 대해 합격 가능성이 6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기타 (11.0%), 주위 사람들의 추천이 (7.6%) 순으로 나타났다.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의 28.7%가 인터넷 검색, 23.7%는 학교, 17.5%는 가족·지인이라고 응답했다. 본교 입학에 만족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 83.0%가 만족하고 전년도 72.3%보다 매우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 본교 입학에 불만족으로 응답한 74명에게 이유를 조사한 결과, 원하는 학교가 아님 (66.2%), 학과 아님 (16.2%) 순으로 나타났고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질문에는 모르겠음 (23.0%), 편입 (21.6%),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노력과 반수·재수 (20.3%)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에게 전공학부의 교육과정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공학부의 선택 시 결정적 요인에 무엇인지의 질문에는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 (26.7%), 합격할 가능성 (16.1%), 취업 전망 (14.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공학부의 결정 시기는 고3 초 ~ 원서접수 전 35.9%, 고1 ~ 고2 말 25.5% 순이었다. 전공학과 선택 시 학교에서 제공 받기 원하는 지원내용에 관한 질문에 전공 선택 관련 정보 제공 (45.5%), 진로상담 (28.0%), 교수님과의 대화 (11.0%) 순이며 다전공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2.3%가 '모르겠다'라고 응답했으며 35.9%가 '이수할 용의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진로 지도 (23.0%), 전공지식 전달 (19.5%), 학생에 관한 관심 (17.9%) 순으로 나타났고 대학에 기대하는 경험은 신입생의 40.0%가 전공 공부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취미 및 다양한 활동 (13.8%), 폭넓은 인간관계 (13.6%) 순으로 나타났다.

4) 진로 및 직업 관련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72.2%가 취직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에 대학원 진학 10.3%, 유학 6.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선택 시 어떤 점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의 33.3%가 직무적성 및 흥미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그다음으로는 연봉 (30.3%), 근무환경·복지 (21.1%) 순이었다. 신입생들이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기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 제공(44.6%)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취업 관련 교육 (26.9%), 진로 관련 자기 이해 도움(17.7%)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34.7%가 학업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진로 및 취업 (27.8%), 대인관계 (21.1%) 순이었다. 졸업 후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에 관한 질문에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이라는 응답이 34.7%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15.4%),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14.5%) 순으로 나타났다.

5) 정신건강 영역

정신건강 영역에 관련된 사항은 17문항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외로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8.7%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가끔 경험(40.2%), 자주 경험(8.0%) 순이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불안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7.1%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가끔 경험(41.1%), 자주 경험(8.5%) 순이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분노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9.7%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가끔 경험(42.5%), 자주 경험(6.9%) 순이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우울과 무기력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52.6%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가끔 경험(33.6%), 자주 경험(12.0%) 순이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자해 충동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95.4%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이 가끔 경험(3.7%), 자주 경험과 거의 항상 경험(0.5%) 순으로 나타났다. 자해 충동의 경험이 있는 20명을 대상으로 자해 충동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대인관계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정신건강문제(20.0%)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자살 충동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94.5%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가끔 경험(4.6%), 거의 항상 경험(0.7%) 순이다. 신입생 중 자살 충동의 경험이 있는 24명을 대상으로 자살 생각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45.8%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인관계(20.8%), 정신건강문제(16.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 충동 시 대처 방법에 관한 질문을 보면 33.3%가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림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잠(20.8%), 약물복용과 해당 없어(16.7%) 순이다. 자살 충동 시 진행 정도에 관한 질문에 29.2%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위도식과 해당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서 자살 시도(16.7%)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에게 자신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과도한지에 관한 질문에 ‘그렇다’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이 ‘그렇지 않다’(29.2%), ‘매우 그렇다’(8.5%) 순이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3~5시간(33.1%)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5~7시간(29.9%), 7시간 이상(18.9%)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주로 여가(61.6%)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커뮤니케이션(29.9%), 정보검색 및 활용(7.8%)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입생들에게 규칙적인 운동 여부를 질문한 결과, 58.4%가 ‘안 한다’라고 응답하였고 현재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3.9%가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보통(41.1%), 매우 만족(8.3%) 순이다. 신입생들에게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치를 조사한 결과, 보통(46.7%)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어서 높음(31.0%), 매우 높음(15.6%) 순으로 나타났다. 또 행복한 삶의 기준에 관한 질문에 33.8%가 경제적 여유라고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 마음의 평화(30.3%), 하고 싶은 일(14.5%) 순이다.

6) 학생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

상담센터와 관련해서 9문항으로 대학 내 심리상담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의 80.7%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학생상담센터 이용에 관한 질문에도

78.2%가 '예'라고 답변하였다. 신입생들에게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할 때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51.7%가 개인 상담을 가장 희망하였고 그다음이 진로상담(27.8%), 심리검사(12.6%) 순으로 나타났다. 또 상담센터에서 상담받고 싶은 문제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34.9%가 진로를 가장 다루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이 학업(23.4%), 학교적응(12.4%) 순이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신입생들의 29.4%가 '잘 안다'라고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 '조금 안다'(23.4%), 보통(20.2%) 순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해 얼마나 아는지를 조사한 결과, 55.9%가 '잘 안다'라고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 '조금 안다'(31.0%), 보통(11.0%) 순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에 관한 질문에 83.4%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했고 이런 경험의 대응 방법을 조사한 결과, 48.3%가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잘 모른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관련 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 시 도움받을 수 있다'(20.9%),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14.9%) 순으로 나왔다. 성교육 시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연애 방법(24.1%)과 가장 높게 나왔고 그다음으로 피임(15.9%), 남녀성평등 태도(12.9%) 순이다.

부 록

2023학년도

신입생 설문 조사서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이 설문지는 한세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실태를 파악하여 학생 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전체적인 통계를 내기 위한 것으로서 응답자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따라서 한 문제도 빠뜨리지 말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특성

1. 학부

- ① 신학부 (신학, 기독교교육상담)
- ② 인문사회과학부 (미디어영상광고, 경영, 경찰행정, 국제관광, 영어, 중국어)
- ③ IT학부 (컴퓨터공학, ICT융합, 산업보안)
- ④ 간호복지학부 (간호, 사회복지)
- ⑤ 예술학부 (음악, 공연예술)
- ⑥ 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 실내건축디자인, 섬유패션디자인)

2. 성별 : ① 남 ② 여 ③ 제3의 성

3. 생년월일 6자리 (예시: 220216): _____

4. 출신 고교 소재지

- ① 서울 ② 경기·인천 ③ 강원도
- ④ 대전·충청도 ⑤ 부산·대구·울산·경상도
- ⑥ 광주·전라도 ⑦ 제주도 ⑧ 국외
- ⑨ 기타

5.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

- ① 2023년 ② 2022년
- ③ 2021년 ④ 2020년 이전

6. 본인의 종교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 ④ 기타 ⑤ 없음

◆ 가정환경 특성

7. 가정 경제 수준

- ① 매우 곤란 ② 곤란 ③ 보통
- ④ 좋음 ⑤ 매우 좋음

8. 등록금 부담 예정자

- ① 부모 ② 조부모 ③ 친인척
- ④ 형제·자매 ⑤ 본인 ⑥ 대출
- ⑦ 장학금 ⑧ 기타

9. 대학입학 후 주거 형태

- ① 자택 ② 친척 집 ③ 기숙사
- ④ 자취 ⑤ 하숙 ⑥ 기타

◆ 대학생활 및 학업 관련

10. 대학진학의 목적

- ① 전문지식 습득 ② 사회적 지위 확보
- ③ 유망한 직종 취업 ④ 적성과 소질 개발
- ⑤ 부모 권유 ⑥ 타인들도 진학하기에
- ⑦ 대학생활 경험 ⑧ 국가, 사회봉사
- ⑨ 기타

11. 본교 선택 이유

- ① 합격 가능성 ② 경제 사정
- ③ 주위 사람들의 추천 ④ 취업 가능성
- ⑤ 대학의 발전 가능성 ⑥ 유능한 교수진
- ⑦ 학구적 분위기 ⑧ 기타

12.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

- ① 학교 ② 학원
- ③ 가족, 지인 ④ 본교 출신
- ⑤ 인터넷 검색 ⑥ 대중매체
- ⑦ 본교 공식 SNS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등등)
- ⑧ 대학진학 정보지 ⑨ 기타

13. 본교 입학에 만족합니까?

- ① 예 (16문항으로) ② 아니오

14. 본교 입학에 불만족한 이유

- ① 원하는 학교 아님
- ② 원하는 학과 아님
- ③ 교육과정 지원 및 장학 제도
- ④ 캠퍼스 분위기 및 시설
- ⑤ 기독교 학교
- ⑥ 기타

15. 본교 입학에 불만족 시 앞으로 계획

- ①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노력 ② 전과
 ③ 부전공 ④ 복수전공
 ⑤ 휴학 ⑥ 반수, 재수
 ⑦ 편입 ⑧ 모르겠음

16. 전공학부(학과) 교육과정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정도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 ④ 조금 안다
 ⑤ 잘 안다

17. 전공학부(학과) 선택 시 고려한 결정적 요인

- ① 합격 가능성 ② 근거리
 ③ 적성 ④ 학문적 흥미
 ⑤ 학과 전망 ⑥ 취업 전망
 ⑦ 가족, 지인의 권유 ⑧ 어릴 때부터 희망
 ⑨ 이유 없음

18. 전공학부(학과)의 지원 결정 시기

- ① 고등학교 입학 이전
 ② 고1 ~ 고2 말
 ③ 고3 초 ~ 원서접수 전
 ④ 원서접수 기간 중

19. 2학년 진학 시 전공학과 선택에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 원하는 지원내용

- ① 전공 선택 관련 정보 제공
 ② 전문적인 진로상담
 ③ 전문가와의 대화
 ④ 교수님과의 대화
 ⑤ 기타

20. 다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복합전공) 이수용의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21. 교수님들에게 기대하는 것

- ① 전공지식 전달 ② 진로 지도
 ③ 품위 있는 태도 ④ 깊이 있는 연구
 ⑤ 인생의 멘토 ⑥ 학생에 관한 관심
 ⑦ 모범적인 신앙인 ⑧ 기타

22. 대학생활에서 기대하는 경험

- ① 전공 공부 ② 자격증 취득

- ③ 취업 준비 ④ 교양 함양
 ⑤ 동아리 활동 ⑥ 취미 및 다양한 활동
 ⑦ 사회봉사 ⑧ 사회 경험
 ⑨ 폭넓은 인간관계 ⑩ 이성 교제

◆ 진로 및 직업 관련**23.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 ① 취직 ② 창업 및 사업
 ③ 대학원 진학 ④ 고시 응시
 ⑤ 유학 ⑥ 기타

24. 직업 선택 시 우선 고려하는 것

- ① 연봉(급여) ② 근무환경, 복지
 ③ 명예, 지위 ④ 직무적성 및 흥미
 ⑤ 소속, 안정감 ⑥ 전망, 발전성
 ⑦ 사회봉사 ⑧ 여가생활

25. 취업 관련 학교에 가장 원하는 지원

- ①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 제공
 ② 진로 관련 자기 이해 도움 (적성, 흥미 등)
 ③ 취업 관련 교육 (영어, 컴퓨터 강좌, 면접 교육 등)
 ④ 진로 지도 및 상담 활성화
 ⑤ 시설 확충 (도서관, 영어·컴퓨터 실습 시설 등)

26. 대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 ① 학업 ② 진로 및 취업 ③ 대인관계
 ④ 경제력 ⑤ 성격 ⑥ 병역
 ⑦ 기타

27. 신입생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 ①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② 전공이 취업에 부적응
 ③ 외국어 능력이 부족
 ④ 경제적 어려움
 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
 ⑥ 자신감 및 의욕 부족
 ⑦ 우유부단한 성격
 ⑧ 학교 인지도 낮음

◆ 정신건강 영역

28. 최근 3개월간 외로움을 경험한 정도

- ① 전혀 없음 ② 가끔 경험
③ 자주 경험 ④ 거의 항상 경험

29. 최근 3개월간 불안을 경험한 정도

- ① 전혀 없음 ② 가끔 경험
③ 자주 경험 ④ 거의 항상 경험

30. 최근 3개월간 분노를 경험한 정도

- ① 전혀 없음 ② 가끔 경험
③ 자주 경험 ④ 거의 항상 경험

31. 최근 3개월간 우울/ 무기력을 경험한 정도

- ① 전혀 없음 ② 가끔 경험
③ 자주 경험 ④ 거의 항상 경험

32. 최근 3개월간 자해 충동을 경험한 정도

- ① 전혀 없음 (34번으로) ② 가끔 경험
③ 자주 경험 ④ 거의 항상 경험

33. 자해 충동을 불러일으킨 원인

- ① 성격 문제 ② 가족 문제
③ 대인관계 ④ 이성 관계
⑤ 학업 문제 ⑥ 진로 문제
⑦ 경제 문제 ⑧ 정신건강 문제
⑨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⑩ 기타

34. 최근 3개월간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정도

- ① 전혀 없음 (38번으로) ② 가끔 경험
③ 자주 경험 ④ 거의 항상 경험

35. 자살 생각을 하는 이유

- ① 성격 문제 ② 가족 문제
③ 대인관계 ④ 이성 관계
⑤ 학업 문제 ⑥ 진로 문제
⑦ 경제 문제 ⑧ 정신건강 문제
⑨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⑩ 기타

36. 자살 충동 시 대처방식

- ① 잠 ② 음주
③ 흡연 ④ 약물복용
⑤ 주변에 도움 요청

- ⑥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⑦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림
⑧ 구체적 자살 방법 생각
⑨ 자살 관련 자료 검색
⑩ 해당 없음

37. 자살 충동 시 진행 정도

- ①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위도식
② 며칠씩 식사 거부 및 불면
③ 사람을 만나지 않음
④ 구체적 방법 생각
⑤ 구체적 방법 검색
⑥ 자살 시도
⑦ 기타
⑧ 해당 없음

38. 자신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39. 1일 기준 스마트폰 평균 이용 시간

- ① 사용 안함 ② 1시간 미만
③ 1~3시간 ④ 3~5시간
⑤ 5~7시간 ⑥ 7시간 이상

40. 스마트폰 사용의 주된 용도

- ① 정보검색 및 활용 (뉴스, 학업, 교통, 상품, 웹서핑 등)
② 여가 (게임, 동영상, 음악, e-book, 웹툰 등)
③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메신저, SNS, 새 친구 만남 등)
④ 생활 관리 (달력, 계획표, 건강관리, 가계부 등)
⑤ 온라인 상품 거래 (구매, 판매, 예약, 예매 등)
⑥ 금융 (인터넷 뱅킹, 주식 등)
⑦ 교육 (온라인 강의, 어학, 시험 등)
⑧ 기타

41. 평소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십니까?

- ① 한다 ② 안 한다

42. 현재 삶의 만족도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43.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치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44. 행복한 삶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제적 여유 ② 안정적 가정
③ 마음의 평화 ④ 하고 싶은 일
⑤ 나의 꿈 성취 ⑥ 기타

◆ 학생상담센터 활동 및 기대**45. 심리적으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46.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 해결과 성장을 위해 교내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할 생각이 있으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47. 학생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서비스

- ① 개인 심리상담 ② 집단상담
③ 진로상담 ④ 심리검사
⑤ 정신건강 관련 특강 ⑥ 기타

48.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받고 싶은 문제

- ① 학업 ② 진로 ③ 대인관계
④ 학교적응 ⑤ 검사해석 ⑥ 성격
⑦ 정신건강 ⑧ 가족 ⑨ 성, 이성
⑩ 인생관 및 가치관 확립 문제

49.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
④ 조금 안다 ⑤ 잘 안다

50.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
④ 조금 안다 ⑤ 잘 안다

51. 과거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약간 불쾌한 경험이 있다
③ 여러 번 불쾌한 경험이 있다

- ④ 기간이나 정도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⑤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심한 고통이었다

52.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의 대처 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으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잘 모른다
③ 관련 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 시 도움받을 수 있다
④ 관련 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
⑤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53. 성교육을 받는다면 가장 알고 싶은 것

- ① 연애방법 ② 성관계
③ 임신과 출산 ④ 성병예방
⑤ 피임 ⑥ 성폭력 예방
⑦ 남녀성평등 태도 ⑧ 성욕해소법
⑨ 성매매 ⑩ 인공임신중절
⑪ 동성애

2022학년도 상담센터 활동 보고

학생지원처의 상담센터는 본교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자기이해와 진로, 가정 및 대인관계 등을 돕기 위한 각종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 집단상담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을 돕고 있으며, 전문 상담 인력을 위한 인턴십 과정과 실습, 교육,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위기 학생 대응 관련하여 자살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역 연계 활동으로 군포·의왕 교육청 지원 청소년 상담, 가까운 지역의 의왕시청과 MOU를 체결하여 찾아가는 상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 그리고 교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개인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1. 상담 및 심리검사

1) 재학생 상담

(1) 개인상담

대학생활 중 겪게 되는 자신의 정체성, 대인관계 갈등, 정서 및 성격상의 문제, 신앙 및 가정의 위기, 진로 선택,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를 비롯한 심리적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다.

(2) 집단상담 및 심리(영화)치료 프로그램 진행

전문상담가가 진행하는 집단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진행자와 집단원들의 역동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개인의 성격, 대인관계, 집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나 주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자신감 등을 증진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도구를 통하여 개인의 성격, 적성 및 인성 등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에는 성격검사(MBTI, TCI, 에니어그램, 표준성격진단검사, 방어기제검사)와 적성검사(홀랜드 적성탐색검사, 적성진단검사)가 있고, 기타 검사들로는 MMPI-2와 K-WAIS, 대학생 간이정신진단검사 등이 있다.

(4) 자살 예방 교육

재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자존감 및 생명존중의식 함양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삶과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의 증진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2) 지역 연계 상담

(1) 군포·의왕 교육청 특별교육 이수 기관 지정 상담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및 2017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계획에 의거하여 군포·의왕 지역의 초·중·고 학생 교육 및 학부모 교육 실시 하고 있다.

(2) 기타기관으로 찾아가는 상담

기타기관(의왕시청 공무원 대상, 서울분류심사원, 고봉 중·고등학교, 수원보호관찰소 등)과의 협약을 통해 상황에 따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3)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

군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심리검사와 개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 상담실 이용 안내

- 이용시간 : 주간 : 월~금 (09:00 ~ 17:00)
야간 : 월~수 (17:00 ~ 21:00)

- 이용절차 : 심리검사는 검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한 주 후에 해석 상담을 진행한다. 개인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 면접 후 상담이 진행되며, 학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예약 접수 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집단상담은 매 학기 집단상담이 개설되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참여할 수 있다.

- 문의 : 전화/ 031) 450-5173, 5056
e-mail / kimhs@hansei.ac.kr

3. 주요 업무 실적

1) 재학생 월별 방문자 수 (2022년 3월 ~ 2023년 2월)

(단위: 명)

년도	월	심리검사 인원(검사횟수)	개인상담인원(회기수)
2022년	3월	23	41
	4월	28	60
	5월	81	223
	6월	157	329
	7월	128	144
	8월	79	106
	9월	62	89
	10월	73	134
	11월	496	508
	12월	106	179
2023년	1월	56	107
	2월	30	72
합계		1,319	1,992

2) 교육청 심리검사 및 상담 (2022년 3월 ~ 2023년 2월)

년도	월	심리검사			상담진행 건수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학부모
2022년	3월							
	4월						1	1
	5월							
	6월					1		1
	7월					1		3
	8월					3		
	9월						2	
	10월					2	1	3
	11월							
	12월							
2023년	1월							
	2월							
합계						7	4	8

3) 재학생 상담 및 심리검사 (2022년 3월 ~ 2023년 2월)

(1) 학부별 심리검사 방문자

학과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IT학부	0	0	14	14	9	6	5	5	22	5	3	4
간호복지학부	6	8	18	31	31	16	10	14	54	6	2	0
인문·사회과학부	3	7	9	26	44	23	20	24	256	62	23	4
디자인학부	9	4	17	46	21	10	12	13	62	6	9	15
신학부	0	5	16	29	19	12	6	5	9	7	6	2
예술학부	5	4	7	11	4	12	9	12	93	20	13	5
합계	23	28	81	157	128	79	62	73	496	106	56	30

(2) 심리검사 종류별 실시 및 해석

구분	MBTI	TCI	스트레스.우울	홀랜드	애니어그램	이화방어기제	표준화 성격 검사	표준화 적성 검사	MMPI-2	SCT	HTP/KFD	간이 정신 진단
합계	212	26	225	73	1	16	0	0	275	57	28/17	417

(3) 개인상담 및 회기

학과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IT학부	0	0	38	51	15	12	10	12	19	13	8	8
간호복지학부	12	18	47	86	22	21	10	35	21	17	5	0
인문·사회과학부	7	21	32	67	25	18	25	47	327	81	39	9
디자인학부	16	13	55	75	23	18	25	19	15	11	16	32
신학부	0	3	35	36	44	26	13	14	22	19	15	11
예술학부	6	5	16	14	15	11	6	7	104	38	24	12
합계	41	60	223	329	144	106	89	134	508	179	107	72

4) 집단상담

프로그램명	지도	총인원/ 수료 인원	총시간	만족도
2022-1년도 힐링-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	김리라	7/ 8	6	3.85
2022-1학기 영화 심리 치유 "영화를 통한 자아 탐색 여행 "	함정심	27/ 28	6	4.3
나의 본캐를 찾아서!! (MBTI를 통한 자기이해)	서진희	24/ 30	6	4.56
제 6기 한세우리친친 또래 상담자 양성교육	전경숙	19/ 20	12	4.37
한세우리친친 또래 상담자 활동	전경숙	7/ 13	14	4.7
홀랜드 직무 잡고	서진희	6/ 7	6	5
2022-2학기 영화치유 프로그램 영화를 통한 치유와 자아 성장	함정심	16/ 17	6	4.31
발표 불안	전경숙	5/ 10	6	4.9
2022-2 힐링 스타트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김리라	7/ 11	6	4.6

5) 특강

프로그램명	강사	참여인원 (교육인원/대상인원)	일시 및 시간	비 고
신입생 대상 간이정신진단검사	상담센터	417/ 603	2022. 3월/ 9월	
자살예방교육	장각자	1,279/ 1,427	2022. 11. 08	

6) 연구

본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인과 가정환경 특성, 대학 생활 및 학업 관련, 진로 및 직업 관련, 정신건강 영역, 상담센터 활용 및 기대 관련 등을 설문 조사한 후 연구 분석하였다.

7) 교육

본 학생상담센터는 인턴 수련생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였다. 인턴교육은 심리검사, 상담기법, 상담사례 집단 Supervision이 진행되었다.

8) 출판물

신입생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자료를 연구 분석하여 매년 「신입생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행하며, 2023년에 제26권을 발간한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신입생실태조사 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여 본교 신입생의 특징을 파악한 「신입생실태조사 비교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본 센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집」을 발간하였다.

2023학년도 학생상담센터 운영 현황

(2023.03 ~2024.02)

구분	주요 활동 내용
3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2023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실시, 신입생 전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학사경고자 상담 실시 (2022-2학기)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통합 슈퍼비전 교육연수 실시 특별교육 이수 기관 운영(군포·의왕 교육청 위센터)
4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재학생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 이수 기관 운영 찾아가는 진로 심리검사 실시 진로 집단상담 실시
5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MBTI/ 매체치유) - 학부 대상, 5주 과정 심리(영화)치료 프로그램 진행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 이수 기관 운영 진로 1:1 진로상담 실시
6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 이수 기관 운영 진로 1:1 진로상담 실시
7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하계 집중 슈퍼비전 진행(인턴) 특별교육 이수 기관 운영
8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학사경고자 전화상담 실시 대학 성희롱 고충 상담원 직무 연수 참석 특별교육 이수 기관 운영

구분	주요 활동 내용
9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집중 심리검사 주간 실시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 이수 기관 운영
10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 이수 기관 운영 재학생 대상 자살 예방 교육 실시
11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2024학년도 예산 계획 수립 월례회 및 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마음소풍/ 홀랜드/ 발표불안) - 학부 대상, 5주 과정 심리(영화)치료 프로그램 진행 특별교육 이수 기관 운영 진로 1:1 진로상담 실시 도서관, 생활관 찾아가는 심리검사 주간
12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연간 개인심리 검사, 상담 및 업무 종합 월례회 및 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 이수 기관 운영 진로 1:1 진로상담 실시 2024년 인턴 및 레지던트 상담사 모집
1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월례회 및 동계 집중 슈퍼비전 진행 2023년 인턴 수료식 2024년 인턴 및 레지던트 상담사 선발 2023년 상담통계
2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인턴 상담사 양성 과정 O/T(심리검사 워크숍) 신입생 대상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논문 투고 규정

2023. 02. 28. 개정

본 학회지는 신입생 실태조사보고서로 1998년에 창간되었으며, 2018년 제21권부터 『학생생활연구』로 명칭이 변경된다. 연구자 여러분의 소중한 연구 결과를 학생생활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1. 일반 규정

- 1) 학생생활연구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학생생활 분야, 상담학 분야의 주제를 다룬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논문, 자료(연구용 및 상담학사 관계) 및 논설이며, '학생생활연구'가 지향하는 연구와 관련된 것으로 것이어야 한다.
- 2) 학생생활연구는 한세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의 기관지로서 연 1회 이상 간행을 원칙으로 한다.
- 3) 논문투고, 심사료 및 게재료 입금, 편집위원회와의 의사소통, 출판 후 독자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책임은 교신저자에게 있다. 다른 저자나 대학원생의 이름으로 교신이 진행될 경우의 혼란으로 인하여 저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책임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원고 편집과 분량은 본 학회지의 편집양식에 따라 15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1페이지당 한글로 약 1,800자, 영문으로 약 3,700자(약 550단어)가 들어감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단, 페이지 초과시 규정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5) 모든 연구논문은 1페이지 이내로 150단어(600자) 안팎의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을 포함해야 하고 국문, 영문초록은 반드시 그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 6) 게재희망자는 한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편집국을 통하여 제출하며, 학생생활연구의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7) 게재신청서 작성
 - 게재신청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해주시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자: 논문 신청, 수정, 게재 등의 실무를 담당하며 편집국과 연락을 취할 자
 - 교신저자: 다른 연구자들과 게재된 논문에 관련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저자
 - 연구자: 논문 작성에 참여한 자. (작성 순서는 반드시 논문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록)

2. 원고작성 규정

- 1) 원고는 반드시 아래아한글(HWP)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2) 원고는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3) 논문의 영문 제목은 영문인 경우, 제목과 하위제목을 명사, 대명사, 형용사는 첫머리를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작성한다. 키워드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소문자로 작성한다.
- 4) 논문의 구성
 - ① 국문 제목
 - ② 투고자 성명 및 소속 (한글)
 - ③ 국문 초록
 - ④ 주요어
 - ⑤ 본문 (예: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V. 결론 및 논의)
 - ⑥ 참고문헌
 - ⑦ Abstract

※ 단, 질적연구에서는 ⑤ 본문 (예,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결론 및 논의)로 형식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 5) 모든 저자의 소속 및 직위별 표시사항은 연구재단에서 발표한 바와 동일하게 공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사항>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초중등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6) 자료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원문에서는 자료수집의 목적 및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는다.
- 7) 논문의 부제는 순차적으로 일련번호에 따라 표기한다.
I → 1 → 1) → (1) → ① ……

8) 원고작성 기준

- ① 다단: 2단
- ② 편집 용지 : A4 규격, 세로 용지
- ③ 용지여백 : 위쪽 35mm, 아래 35mm, 좌측 30mm, 우측 30mm, 머리말 12mm, 꼬리말 13mm
- ④ 문단 모양 :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서체	크기	정렬	첫줄
논문 제목 (국문/영문)	신명조	16p/ 진하게	가운데	
투고자 성명 및 소속 (국문/ 영문)	중고딕	10p/ 진하게	가운데	
초록 내용 (국문/영문)	신명조	9p	양쪽	들여쓰기: -10
주요어 (국문)	중고딕	8p/ 진하게	왼쪽	
본문	신명조	10p	양쪽	들여쓰기: -10
I. 제목	신명조	12p/ 진하게	가운데	
1. 제목	신명조	10p/ 진하게	왼쪽	
1) 제목	신명조	10p/ 진하게	왼쪽	들여쓰기: -10
표 제목	중고딕	10p	가운데	
표 내용	신명조	10p	가운데	
그림 제목	중고딕	10p	가운데	
그림내용	신명조	10p	양쪽 또는 가운데	
참고문헌	신명조	10p	가운데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10p	양쪽	내어쓰기: -30
Abstract	중고딕	12p/ 진하게	양쪽	
주요어 (영문: 기울임)	중고딕	8p/ 진하게	왼쪽	

9) 표 및 그림 작성

- 표와 그림의 제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동일하게 작성한다.
- 표와 그림 제목의 번호는 본문에서 설명할 경우나 표와 그림에서 작성 시 <표 1>, <그림 1>로 괄호를 사용해서 표기한다.
- 모든 표는 반드시 가로 선으로만 작성한다. 단, 특별한 의미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로 선도 사용할 수 있다.

10) 참고문헌

출판지침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 출판요강(Publication Manual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최근판을 참조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되지 않을 것이다.

12)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분은 위의 원고작성 양식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시고 [작성자

-논문 예시]를 참조한다. 양식에 맞지 않은 원고나 수정 요청받은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13) 기존 논문 참고자료: <https://www.hansei.ac.kr/counselling/2024/subview.do>

3. 투고 규정

- 1) 투고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투고 심사과정 중이거나, 심사 완료되어 논문이 정식 게재된 경우, 다른 학회지에 투고해서는 안 된다.
- 2) 작성 및 제출
원고는 반드시 “원고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편집 담당자 메일로 접수한다. 본 학회지는 원고 마감일은 9월 30일, 발간은 11월 30일에 한다.
- 2) 논문 심사료
논문 투고자는 편당 90,000원의 논문 심사료를 부과한다. 기한 내 투고를 원칙으로 하고 기한 이후 투고 시 긴급 투고로 간주하여 150,000원을 부과한다.
- 3) 논문 게재료
논문의 분량은 기본 15페이지 이내, 150,000원을 기본으로 하며, 15페이지를 초과하면 1페이지당 10,000씩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4) 논문 제출처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분은 학회지 원고작성 세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한세대 학생생활연구 편집국에 문의하셔서 절차를 밟는다.
(T. 031-450-5173)

4. 논문심사 규정

- 1) 논문 선정의 원칙
논문 공모 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투고논문 심사기준에 의거 해당 전공 분야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2) 방법 및 절차
 - 편집위원회는 먼저 심사 적부를 판단하기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사전심사를 한다.
 - 사전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본 심사에서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의견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종합판정을 내린다.
 -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
수정 후 게재가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 요구 수정지시 사항 확인 후 게재 여부 최종결정
수정 후 재심	수정지시사항 확인과 재심을 거친 다음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 판단
게재 불가	논문 게재 불가. 불가 이유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저자에게 통보

-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짧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최종 ‘게재가’ 확정 전까지 수정의 충실도와 수정된 논문의 질적 완성도에 따라 추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수정을 확인 후에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